



제 2 편 단과대학·대학원·부속기관의 역사(470)

제 1 장 단과대학의 역사



인문대학의 역사

1. 인문대학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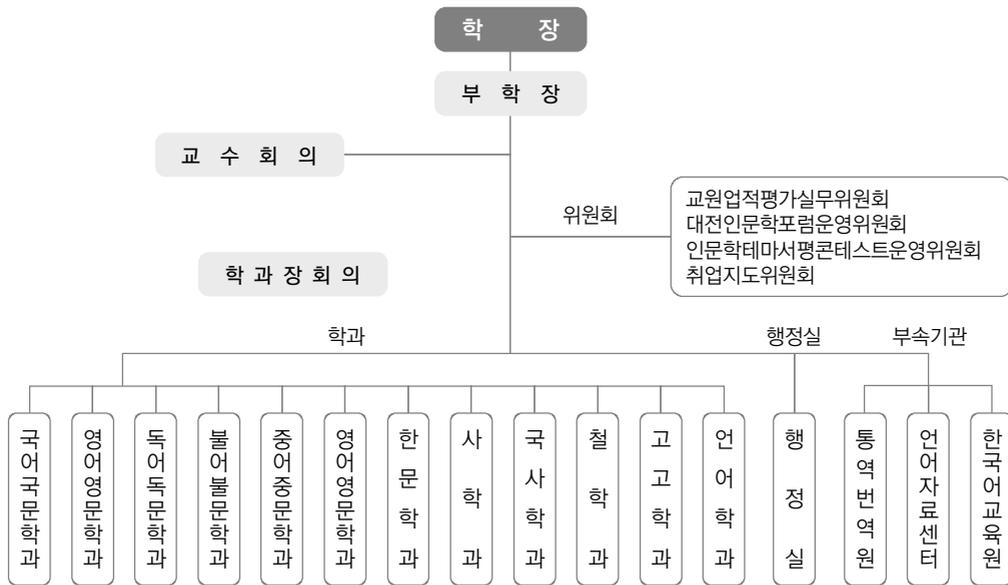
- 1952년 05월 독립 충남대학교 설립인가 문리과대학(문과, 이과, 법학과)
- 1954년 02월 문리과대학이 국문학, 영문학, 사학, 철학, 물리학, 화학, 수학, 법학과 등 8개 학과로 증과
- 1974년 04월 문리과대학 내에 제2부(야간부) 대학을 설치하여 국문학, 영문학, 사학, 법학, 경상학의 5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군·경·직장인들에게 면학의 기회 제공
- 1957년 04월 대학원 설립인가(국문학과, 철학과, 화학과, 농학과, 축산학과)
- 1962년 03월 독립 충북대학교를 흡수, 국립 충청대학교로 발족
문리과대학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사학, 철학, 물리학, 화학, 수학, 법학, 경영학의 9개 학과로 확충, 종전의 제2부 대학은 문리과대학에 흡수
- 1963년 03월 국립 충청대학교가 국립 충남대학교와 국립 충북대학교로 다시 분리
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농학, 축산학, 철학과 등 3개 학과를 설치
석사학위과정도 영어영문학, 사학, 법학, 수학, 물리학, 농업토목학, 농산제조학, 건축공학과 등 13개 학과 신설
- 1968년 03월 문리과대학 의예과 신설
- 1973년 03월 문리과대학에 체육과를 신설하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국어국문학과 신설
- 1974년 01월 인문과학연구소, 백제연구소 신설

- 1975년 03월 문리과대학에 사회학과, 생물학과, 가정학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신설
- 12월 문리과대학에 불어불문학과 신설
- 1977년 12월 문리과대학에 중어중문학과와 계산통계학과 신설
- 1979년 03월 문리과대학이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분리되어 신설
 문과대학에 교육학과 신설
- 08월 문과대학 대덕캠퍼스로 이전
- 1980년 03월 문과대학에 도서관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독어독문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임학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사학과, 수학과 신설
- 1981년 01월 문과대학에 심리학과 이월
-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으로 불어불문학과 신설
 박사학위과정으로 독어독문학과, 교육학과 신설
- 1982년 03월 문과대학에 음악학과, 미술학과 신설
- 1987년 03월 문과대학에 한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신설
- 1989년 03월 문과대학에 국사학과 신설
 문과대학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개편
- 1990년 03월 문과대학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신문방송학과, 법과대학의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자치행정학과 신설
- 1991년 05월 문과대학 부설 백제연구소가 본부 직속 연구소로 개편
 문과대학에 고고학과 신설
- 1993년 03월 문과대학에 언어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국사학과 신설
- 1994년 03월 국어교육전공을 국어교육전공과 한문교육전공으로 분리 개편
- 1999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언어학과, 고고학과 신설
- 2000년 03월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일어일문학과 신설
 대학원 기록보존학 협동과정 개설
- 2001년 09월 대학원 박사과정에 언어학과 신설
- 2002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한문학과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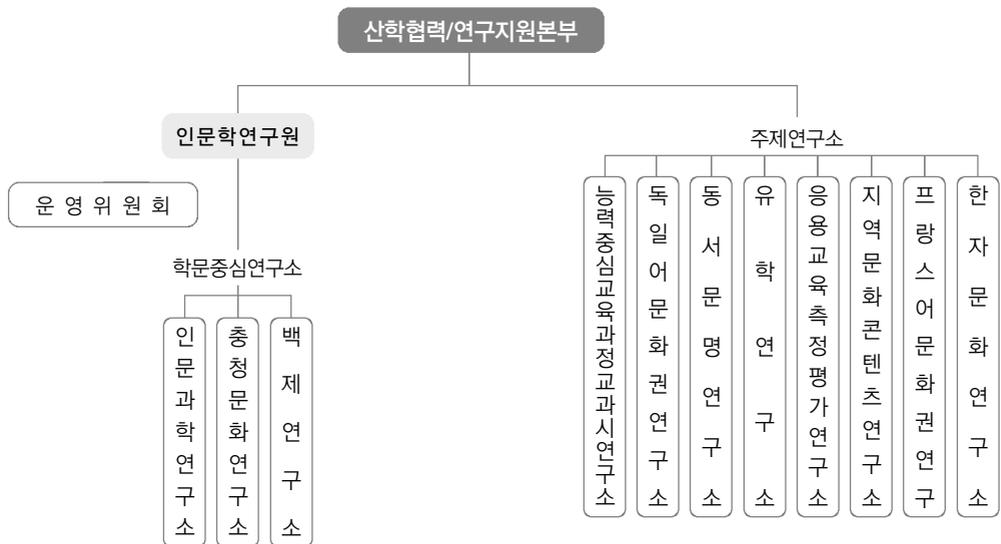
- 대학원 박사과정에 일어일문학과 신설
- 2003년 02월 충남대학교부설연구소로 충청문화연구소 설립
당진 소난지도 의병 항쟁 학술 고증 사업 진행
- 03월 대학원 박사과정에 국사학과, 고고학과 신설
- 2004년 03월 문과대학을 인문대학으로 명칭변경
- 2005년 10월 인문대학부설 통역번역원, 한국어교육원, 언어임상연구원 설립
- 인문대학 인문계열(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고고학과, 철학과)을 어문자율전공계열(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과 인문계열(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고고학과, 언어학과)로 조정
- 대학원 석·박사 학과간협동 과정에 언어병리학과 신설
- 10월 인문대학부설 통역번역원, 한국어교육원, 언어임상연구원 설립
- 2006년 06월 인문대학 부설 언어임상연구원을 언어치료센터로 명칭 변경
- 대학원 한문학과에 박사과정 신설
- 2007년 05월 인문학연구원 설립
- 충청문화연구소 - “일제의 침략과 한인 학살”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총서 10여 권 발간, 인문·사회분야 교내연구소 평가 결과 우수연구소 선정
- 2010년 11월 인문관 증축 및 리모델링 준공
- 2013년 05월 인문대학 부설 취업지원센터 설립
- 2015년 03월 국어국문학과 주관 연계전공인 인문콘텐츠학과 신설
-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신설
- 2016년 03월 한국연구재단 인문학진흥사업(CORE) 선정
- 08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1차년도 사업 시작
- 2019년 03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 종료 후 관리 시작
- 2021년 03월 인문대학 여성젠더학 협동과정(석사과정) 신설

2. 인문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23] 인문대학 행정 조직도



[그림 24] 인문대학 연구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190〉 인문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국 어 국 문 학 과	13	3	48	50	65	84	247	29	28	57
영 어 영 문 학 과	13	3	88	97	111	145	441	31	16	47
독 어 독 문 학 과	5	1	37	33	51	92	213		1	1
불 어 불 문 학 과	5	1	29	32	38	50	149	2	1	3
중 어 중 문 학 과	5	1	42	40	47	87	216	17		17
일 어 일 문 학 과	4	1	25	38	45	49	157	3	3	6
한 문 학 과	4	1	25	25	28	31	109	8	1	9
사 학 과	6	2	35	38	41	77	191	5	2	7
국 사 학 과	4	1	22	29	25	41	117	2	4	6
철 학 과	8	2	36	43	43	69	191	8	8	16
고 고 학 과	5	1	20	29	23	30	102	15	7	22
언 어 학 과	6	1	24	30	36	44	134	4	2	6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6	16	22
언 어 병 리 학 과								22	5	27
여 성 젠 더 학 과								9		9
총 계	72	17	407	454	517	755	2,133	152	94	246

3) 학과별 역사

Ⅰ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는 1954년 2월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내에 국어국문학과로 설치되었다. 우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학문 연구와 문화 예술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전공으로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이 있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우리말의 특징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의 측면에서 연구하며,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근대화 이전의 고전문학의 가치를 연구하고 나아가 조상들의 미적 정신세계를 탐구한다. 현대문학의 경우 문학 일반 이론 학습을 바탕으로 현대 문학사의 주요 작가와 작품을 해석하며 그 문학적 가치와 실상을 익힌다. 일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는 1957년 4월과 1973년 3월에 각각 국어국문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어국문학과는 지식, 창의, 인격을 갖춘 인재상을 목표로 한국어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유와 감각의 능력을 신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에는 교사, 교수, 학자, PD, 영화감독, 기자, 시인, 소설가, 극작가, 방송작가, 평론가, 연기자, 출판인, 광고인, 공무원, 기업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전공별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졸업생들은 여러 대학에 교수 및 강사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교가 창립될 당시 국어국문학과에는 손낙범, 지현영, 김순동, 김형기 교수가 취임하였다. 지현영 교수는 일찍이 향가 연구를 시작하여 고시가 및 지명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김형기 교수는 조선어학회 사건에 가담 하여 일제의 압력으로 한 때 은거 생활을 한 적도 있으며, 어학 정리 사업에 참여하다가 광복과 더불어 교육계에 투신하여 반평생을 본교와 이 지역 발전에 몸 바쳐왔다. 김순동 교수는 한문학을 전공하여 국학 연구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손낙범 교수는 부임 이래 <춘향전> 강독을 하였고, 뒤이어 권선근 교수가 취임하여 불모지였던 현대문학 분야를 개척하였다. 이어 국어학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김완진 교수가 부임하여 원서 강독을 통한 최신 언어학 이론을 강의하였다. 지현영, 김형기, 김순동 등 세 교수의 지도를 받은 충남대학교 졸업생들이 1960년대 초부터 학계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본과에는 정년퇴임한 황인덕 교수가 명예교수로 있고, 김진수, 경일남, 손찬식, 김정태, 이형권, 송기섭, 김진영, 홍혜원, 윤석진, 이금영, 김기영, 박재희, 윤준섭 교수 13명이 재직 중이다.

2016년에는 인문콘텐츠 연계전공의 주관학과로 선정되어 융복합 교육을 선도했다. 인문콘텐츠 연계전공은 국어국문학, 철학, 디자인, 고고학 분야의 전공 교수와 학생이 모여 각 전공간의 융합, 연계학습을 통해 각종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에서 요구하는 실제적 능력을 양성하고 있다.

Ⅰ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는 1952년 5월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이 세워진 이래 1954년 2월 영문학과로 설치되었다. 영미문화의 뿌리가 되는 영문학에 대한 전반적 학습을 통해 영미권 문화 전반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더불어 한국과 영미문화를 잇는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영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과 더불어 영미문학 및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국제

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전공 분야로는 크게 영문학과 영어학으로 나뉘어 있다. 영어학 분야에서는 영어가 가진 언어로서의 특징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인지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며, 영문학 분야에서는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학이 가진 의의에 중점을 두며 더 나아가 영문학이 가진 의미와 문학적 가치가 현대사회 속 인간의 삶에 연결되는 지점을 모색함으로써 문학이 지니는 미적 세계를 탐구하는 동시에 현실과의 밀착성을 추구한다.

영어영문학과는 인성, 지성,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상을 목표로 영어/영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학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미문학, 영어학, 영어교육, 영한통번역, 실용영어 등 여러 분야의 과목들로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졸업 후 교사, 교수, 학자 등의 교육적 분야는 물론 PD, 작가, 평론가 등의 방송계열, 전략기획, 해외영업, 다국적기업 등의 일반기업계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에는 사범대학에 영어교육과가 신설됨으로 인해 기존에 유지되던 영문과 교직과정정이 폐지되었다. 2014년에는 아시아 비즈니스 연계전공을 설치함으로써 융복합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아시아 비즈니스 연계전공은 무역학과, 경제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와의 전공 교수와 학생이 모여 인문학과 실용학문인 경제통상의 연계협력, 해외경험, 인턴십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어에 능통하며 타 사회문화 이해도가 높고 경영경제 전문지식과 혁신적 기업가정신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멈추지 않고 2016년에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진행(3개년도), 2019년에는 국립대학혁신사업 참여 및 진행(3개년도)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여성젠더학협동과정(석사과정)을 신설하여 주관학과에 임함으로써 여성학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963년 3월과 1975년 3월에는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발전해나가는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전문 인재 양성에 있어 전문적 감각을 지닌 인재 육성의 기반을 닦았다.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은 영어학과 영문학으로 세부전공이 나뉘어 있으며, 다각적이면서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졸업생들은 여러 대학에 교수 및 강사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1975년 3월에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여 부족한 교육인력 제공과 높은 수준의 교사 양성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교사후보생들과 현직 교사 등 고급 인력의 재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Ⅰ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는 1975년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신설되었다. 독일어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문학, 문화, 지역 사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독어독문학과 교육 목표이다.

세부 전공은 크게 독어학, 독문학, 독일문화/지역학 세 영역으로 나뉜다. 2016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독일문화/지역학 분야를 강화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한 결과 현재는 어문학, 통번역, 문화, 예술,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독일 및 유럽 지역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본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튀빙엔, 에어푸르트, 도르트문트, 키일 등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어독문학과는 독일어권 언어 및 지역학 체험학습, 독일 교환학생과의 학습동아리 Stammtisch, 탄뎀 파트너, 독어원어연극공연과, 원어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어학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교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어독문학과는 학생들을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로,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유능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학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졸업생들은 문화콘텐츠 기업 및 재단, 독일계 기업, 교육계, 방송사, 신문사, 은행, 공익재단, 무역회사, 출판사, 관공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대학원은 1980년과 1981년에 각각 독어독문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훌륭한 학문적 자질을 갖춘 독어독문학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여러 대학에서 교수, 강사,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Ⅰ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는 1976년 12월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내에 불어불문학과로 설치되었다. 이후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를 익히고, 프랑스 문학의 전통을 연구하며, 프랑스 현대 언어학의 이론과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문학과 언어, 인간과 세계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 목적을 두며 발전해 왔다. 구체적인 전공 내용으로는 프랑스 어학과 프랑스 문학을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학과 프랑스어 교수법을 교육하고 있다.

불어불문학과에서 그리는 인재상은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능력과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인 상상력, 글로벌 감각을 소유한 인재다.

이를 위해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그리고 유럽의 정치·경제·사회·과학·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유럽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국가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과, 프랑스어권 학계 및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대학원은 1981년과 1988년에 각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였다. 졸업생들은 학술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Ⅰ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1977년 12월에 신설되어 1979년 3월 인문계열 2학년 신입생 22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중국어, 중국 문학 교육을 시작하였다. 초대 학과장은 홍인표 교수가 맡았으며, 홍순효 교수는 설립 초기부터 중어중문학과에의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후 1980년 9월에는 허성도 교수가, 1981년에는 우준호 교수가 부임하였고, 홍인표 교수는 서울대학교로 진출하였다. 또한 충남대학교 문과대학과 국립대만사범대학 문학원 간의 학술연구 합작계획에 의거하여 왕중 교수가 초대 객원 교수로 부임하였고, 이후 매년 현지 교수를 교환 교수로 초청해 왔다. 1982년에는 엄귀덕 교수가 부임하였고, 1985년에는 허성도 교수가 서울대학교로 진출하고, 이규갑 교수가 부임하였다. 1995년에는 김명학 교수가 부임하였고, 1997년에는 이규갑 교수가 연세대학교로 진출하고 강혜근 교수가 부임하였으며, 2007년에는 박영종 교수가 부임하였다. 최근 2017년 이은수 교수, 2019년 이근석 교수, 2020년 서연주 교수가 부임하여 현재 5인의 전임교수진과 초빙교원 3인으로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중어중문학과 교수들은 강의, 국내·외 연구 활동뿐 아니라 교내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보직을 겸하면서 학교 발전 및 중어중문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홍순효 교수와 엄귀덕 교수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준호 교수는 다수의 ‘소동파’ 관련 논문 및 중국 산문 관련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하였으며 한국중국문화학회장을 맡아 활동하였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동아시아연구소에 연구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중국 시가’ 분야에서는 엄귀덕 교수의 다양한 논문과 저술이 국내·외 중국 문학 관련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특히 중국 시가에 나타난 여성들의 시각 및 지위를 연구한 점은 학계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또한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의 초대 원장으로서 중국어 교육과 교사양성에 많은 공헌을 한 바 있다. 김명학 교수는 일찍이 국내 중국 문학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 회곡’을 연구하여 이

분야에 관련된 많은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여 많은 후배 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왔다. 강혜근 교수는 ‘중국문자학’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해왔으며, 한국중국문화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중국객가학회를 비롯한 중국 유수의 학술세미나에 초청되어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중국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박영종 교수는 ‘중국 고전소설’ 분야에서 국내·외 학회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사전편찬과 더불어 저역 활동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 ‘중국어문법’을 전공한 이은수 교수는 의미론 분야에서 시간 의미와 관련된 상 표지나 시간부사 등에 대해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근석 교수는 ‘비교문학문화연구’ 전공자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중문화비교 및 중국대중문화연구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연주 교수는 ‘중국 고전시가’ 분야에서 ‘명대’, 그리고 ‘민가’와 관련한 작품과 문화 현상 등에 주목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계에서 꽤 고무적이라 평을 받고 있다.

중어중문학과는 다양한 중국어 과목 외에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국어 문학 분야 및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어 회화의 분반 수업을 비롯한 원어민과의 소규모 분반 수업 등은 중국어 회화 능력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 진로, 유학 문제 등을 교수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미래설계상담과목을 설강하여 신입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돕고 유학 및 취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1981년 대만사범대학을 시작으로 중국의 북경대학, 복단대학, 천진대학, 길림대학, 절강사범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수 및 학생의 상호 교환 및 학술분야 등에서 다방면의 교류를 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 능력을 키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본과의 가장 큰 관심분야이다.

중어중문학과는 졸업생 현황을 보면, 1982년 첫 졸업생 11명을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1,800여 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또한 1982년 대학원 석사과정, 1988년 대학원 박사과정, 1990년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60여 명의 중어중문학 및 한/중어 통·번역 석·박사와 50여 명의 중국어교육 석사를 배출하였다.

중어중문학과는 중국 언어와 문학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와 중국지역학을 두루 공부하고, 중국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중 교류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 및 대만 등 중국어권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환 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공자아카데미, 대학재정 지원사업 등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중어중문학 주전공 외에도 중국과 관련된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중국통상, 아시아비즈니스, 미래기술 창업학 등 연계전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직과정 설치학과로서 매년 일정 인원의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시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국어)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교수, 교사, 공무원 등 교육 및 공직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 통신업체, 금융권, 무역회사, 항공사 등에서 중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면서 관련 분야로의 취업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Ⅰ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는 1986년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로 개설되어 1987년 3월 제1회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1989년 3월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2000년 3월 대학원 석사과정, 2002년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학문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1991년 2월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로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일어일문학과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총 1,850여 명이 졸업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일어일문학과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의 사회, 문학, 언어를 학습·연구하여 양국 간의 문화교류 및 국제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 아래 학과의 인재상을 4S형[4S: 世界(Sekai: 세계)·誠実(Seizitsu: 성실)·責任(Sekinin: 책임감)·專門家(Senmonka: 전문가)]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본관련 지역전문가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4S형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학년 과정에는 일본어·일본어학·일본문학·일본학에 관련하여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을 설강(기초일본어, 일본의 이해, 일어학개론, 일문학개론 등)하고 있고, 고학년 과정에는 일본지역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과목(비즈니스무역일본어, 일본의 기업론, 일본어통역연습 등)을 편성하여 일어일문학과 교육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5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주도하는 PBL 중심의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여 지도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의 글로벌 지역학 모델에 참여하여 코어사업의 취지에 맞게 일본문화와 일본지역학 분야 관련 교과목(일본문화콘텐츠, 일본문학속의 일본, 일본지역세미나)을 학부과정에 대폭 강화하였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함으로써 참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

사학과 학생들은 1학년 과정에서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인문학과목을 폭넓게 수강하며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2·3학년부턴 전공과목을 주로 수강하며 각자의 관심과 선택에 따라 동양사 또는 서양사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 4학년 과정에서는 외국어 강독, 세미나, 특강 등의 수업을 통해 학문적 심화뿐만 아니라 취업기회 확보에 주력한다.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역사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 과목 이수자는 중·고등학교에 진출이 가능하고, 박물관, 연구소 등의 학예연구사 뿐 아니라 방송국, 언론사, 공·사업체 등 사회 각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1963년 3월과 1980년 3월 각각 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사학과 대학원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역사학과 역사적 자료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와 학습을 통해 학문적 기초를 연마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현실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역사학 연구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렇듯 모든 학문의 밑거름이 되는 역사학 연구를 기반으로 사학과 대학원 졸업생들은 여러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직 공무원, 대학교 교직원, 학예사 및 기타 시간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Ⅰ 국사학과

국사학과는 1989년 3월 사학과에서 한국사 전공이 분리·독립되면서 신설되었다. 분리되기 이전 사학과의 교수진은 한국사의 성주탁·정덕기·최근묵·권태원·김수태 교수, 동양사의 정기돈·김선욱·장인성 교수, 서양사의 서정복·차상철·김응종 교수, 그리고 고고학의 이강승 교수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설 국사학과에는 권태원·김수태 교수가 소속을 변경하여 부임하였다. 사학과 소속의 성주탁·정덕기·최근묵 교수는 1989년부터 국사학과에 수업을 담당하다가 1990년 국사학과로 옮겨왔으며, 고고학 전공 이강승 교수도 합류하면서 본과 교수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다.

현재는 허종·이정란·이근호 교수가 재직하고 있으며, 본과의 교수진들은 한국사연구회·한국고대사학회·중세사학회·호서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등 중앙·주요 학회의 중견 연구자로 혹은 주요 임원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사 전 분야에 걸친 폭넓은 강의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과 교수진 외에 한국사 전공 각 분야별로 명성 있는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전문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과는 현재 한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폭넓은 안목과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교과과정은 1학년에서는 한국사 및 동양사, 서양사에 대한 개설적인 연구를 주로하고, 2학년에서는 고대사에서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에 이르는 한국사 전반에 관하여 개괄적인 연구와 사료 강독을 주로 하고 있고, 3·4학년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강독 및 특강, 세미나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또한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전국을 경기도·강화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총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2회 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 답사를 통하여 학생들은 이론으로 배운 우리 역사의 다양한 현상 및 제 양상 등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 기타 학과 내 소모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탁본의 방법 및 실습을 주로 하는 화선지, 학과 내 학회지 및 답사지 등 각종 학술지 발간을 주로 하는 찬수청, 학술 답사의 계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답사부 등이 구성·운영되어 학생들이 학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본과의 학생은 1989년 20명의 학생을 모집한 이래, 1993년 15명의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었고, 2022년 2월까지 약 56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이들 졸업생들은 한국사 제 분야에 걸친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에 고르게 진출하였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언론사 및 은행원, 대기업, 교(직)원, 각종 개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사학과 대학원은 1993년 3월 1일 석사과정이 설치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1993년은 국사학과 창설 이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시점이었다. 대학원 과정의 개설은 국사학과가 한국사 연구의 산실이자 연구자 배출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다. 박사과정은 2003년에 설치되었다. 박사과정이 설치됨에 따라 사학과와 국사학과로 나누어져 있었던 한국사 전공과목들은 모두 통합되어 국사학과에 속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학원의 전공과목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 석·박사과정의 연구 인력들은 경향 각처에서 대학교수 및 연구직 공무원, 대학교 교직원, 학예사 및 기타 시간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강의 및 연구 활동을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한국사의 체계화에 일조하는 한편, 본과의 위상 또한 높이고 있다.

Ⅰ 철학과

충남대학교 철학과의 역사는 1952년에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내에서 시작되었다. 철학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존재를 근원적으로 규명하기를 시도하고, 인간 지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며, 인류 사회의 윤리 규범과 가치의 근거를 모색하는 등 인간에게서 가능한 모든 문제와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과는 진리탐구의 과정을 통하여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 이를 정신적 기반으로 삼아 완성된 인격자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철학과 규모 축소 및 폐지가 이루어

지고 있는 와중에도 충남대학교 철학과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현재 대전·충남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철학과로서 대전·충남지역의 철학적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철학과는 교육과정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이 균등을 이루고 있는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교수진 또한 동양철학 전공 교수 4명 및 서양철학 전공 교수 4명 총 8명으로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다. 동양철학의 교육과정은 도가철학, 중국 및 한국의 성리학과 양명학, 인도 및 중국과 한국의 불교철학, 선진유가철학, 그리고 한국 전통 철학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서양철학의 교육과정은 서양고대철학, 유럽근세철학, 윤리학, 논리학, 현대영미분석철학 및 언어철학, 현대유럽철학 및 사회철학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동·서양을 고루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철학자와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철학과는 현대 시대의 여러 문제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주도적인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K-mooc, Youtube 등 다양한 강의 방식을 활용하여 현대 시대에 걸맞는 철학 교육의 보편화 및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교수, 교사, 연구원, PD, 작가, 출판인, 연기자, 공무원 등 단지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철학과 대학원은 1957년 4월에 석사과정, 1963년 3월에 박사과정이 각각 설립되었으며, 전공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전문적인 철학 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대학원 졸업생들은 전국의 여러 대학에 교수 및 강사로서 활동하여 철학 교양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인문대 내 교직설치학과로서 1975년 교육대학원 신설 및 윤리교육 전공의 설치 그리고 2002년 도덕·윤리연계전공이 설치된 이후부터 매년 훌륭한 도덕·윤리 중등교사를 전국적으로 배출해내고 있다. 2017년도에는 충청학 연계전공을 설치하여 지역학으로써의 충청학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충청학 관련 연구 활성화 및 학술대회 개최, 총서 발간, 충청학 홍보 등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충청학이란 충청 지역 기반의 철학, 국어국문학, 국사학, 한문학 등을 아우르는 단어로, 그야말로 충청 지역의 문화와 학문의 총체라고도 볼 수 있다.

Ⅰ 고고학과

고고학은 과거 물질자료인 유물·유적 등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고대 인류 문화 및 사회를 복원하고 해석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문자기록이 없던 문명 이전의 선사시대를 다루는 유일한 학문이며, 국경과 인종 및 종교와 같은 상호 ‘구별짓기’ 행위 이전 단계까지 인간 본연의 면모에 대하여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발굴 등의 야외조사를 통해 탐구 대상 자료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분야이며,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가설과 검

증을 거쳐 일반화된 지식을 축적하는 실증과학의 분야이기도 하다.

충남대학교 고고학과는 1991년에 개설되었으며, 체계적인 훈련과 연구를 거쳐 전문적인 고고학자를 배출하여, 지역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고취하고 우리 문화산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999년과 2003년에는 각각 고고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고고학의 학문적 본질에 가장 충실한 한국의 대표적인 고고학 전문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최초의 시대인 구석기시대부터 한국의 고대사회인 삼국시대까지 물질자료를 매개로 한 과거연구가 이루어지며, 그 외에 독립적으로 중국고고학, 일본고고학, 서양고고학 분야가 존재한다. 고고학 자체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중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관련 분야로서 미술사, 박물관학, 문화유산 및 관광학 등을 통한 실무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좁게는 충청 지역 및 백제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향토 연구, 넓게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전지구적인 인류 고유의 과거문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변화하는 학문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관련 업계 취업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중앙 및 지방 행정직의 학예사나 문화관광 부서,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연구소나 국립박물관에 종사할 수 있으며, 발굴 및 문화재조사 전문용역회사, 관광사, 언론, 출판 관련 기관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Ⅰ 언어학과

언어학은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언어학에서 언어에 대한 탐구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 등 각 개별 언어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뿐만 아니라, 각 개별 언어들을 아우르는 언어 보편적인 속성의 탐구를 포괄한다. 언어에 대한 연구는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이며,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인접과학인 전산학(자연언어처리), 심리학, 철학(논리학), 뇌과학 등과의 활발한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 정신이나 마음에 대한 본질 규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인문 사회 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 방법론의 선구적 역할 또한 맡고 있다. 언어가 인간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언어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어서, 언어학적인 지식의 처리는 자동번역 및 통역 시스템, 정보검색 시스템, 문서낭독 시스템, 음성타자 시스템, 철자교정기, 음성대화 시스템, 문서자동요약 시스템, 문서인식 시스템 등의 첨단 응용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나아가서 언어학은 언어치료나 광고카피, 브랜드네이밍 등 다양한 언어 관련 전문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충남대학교 언어학과는 언어의 여러 측면, 즉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및 화용론 등의 언어학 중심 과목과, 방언학, 논리학, 전산언어학, 실험음성학, 역사비교언어학, 컴퓨터에 의한 언어 처리, 음성공학, 언어병리학 등의 응용 과목, 그리고 라틴어, 그리스어 등의 고전어학과 러시아어 등의 현대어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고 응용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핵심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충남대학교 언어학과는 언어학과가 단일학과로 개설되어 있는 전국 5개 학과 중 하나이며, 또한 언어병리학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언어학과이기도 하다. 충남대학교 언어학과는 교수진은 음성학,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전산언어학, 언어병리학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과정에서는 이들 핵심 과목들은 물론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등과 같은 학제적 분야 과목들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는 언어학 전공 외에 연계전공으로 언어정보처리 전공을 선택하여 전산언어학에 대한 심도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부/복수/연계 전공 제도를 통해 다양한 학문과 융·복합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대학원 언어학과에는 이론언어학 전공과 전산언어학 전공 등 두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의과대학, 교육학과 등과 공동으로 언어병리학 전공 협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각 전공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언어를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는 언어학을 전공하게 되면 언어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는 물론 비판적·논리적 사고 능력, 가설을 수립하고 논증하고 명료하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언어 교사, 통·번역가, 사전편찬 전문가, 작가, 광고 카피라이터, 기자, 출판인 등 언어와 관련된 직업에 있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언어정보처리 전공을 병행하여 회사에서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동번역, 인공지능, 자연언어처리,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교육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 대학원 언어병리학 전공에 진학하면 언어재활사가 될 수 있으며, 대학원 이론언어학 및 전산언어학 전공, 또는 언어와 관련이 있는 심리학, 인지과학, TESOL 등 대학원에 진학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4) 역대 학장

〈표 191〉 인문대학 역대 학장

구분	성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민태식	철학과	1953.01.24 ~ 1953.08.29
제2대	노도양	사학과	1953.08.30 ~ 1958.01.13

구분	성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3대	김순동	국어국문학과	1958.04.23. ~ 1960.05.16.
제4대	유희세	수학과	1960.05.16. ~ 1964.03.24.
제5대	김형기	국어국문학과	1964.03.25. ~ 1966.02.28.
제6대	유원동	사학과	1966.03.01. ~ 1966.03.23.
제7대	임창구	수학과	1966.03.24. ~ 1967.12.31.
제8대	오희필	물리학과	1968.01.01. ~ 1970.02.14.
제9대	정기돈	사학과	1970.02.15. ~ 1972.01.16.
제10대	박종희	화학과	1972.01.17. ~ 1974.04.10.
제11대	송병학	영어영문학과	1974.04.11. ~ 1977.03.18.
제12대	송재영	불어불문학과	1977.03.19. ~ 1979.02.28.
제13대	이정복	철학과	1979.03.01. ~ 1981.02.28.
제14대	박상용	영어영문학과	1981.03.01. ~ 1983.02.28.
제15대	최원규	국어국문학과	1983.03.01. ~ 1985.03.18.
제16대	김봉주	영어영문학과	1985.03.19. ~ 1987.03.18.
제17대	도수희	국어국문학과	1987.03.19. ~ 1989.03.18.
제18대	정덕기	국사학과	1989.03.23. ~ 1991.03.22.
제19대	서해길	철학과	1991.03.23. ~ 1993.03.22.
제20대	손기영	독어독문학과	1993.03.23. ~ 1995.03.22.
제21대	사재동	국어국문학과	1995.03.23. ~ 1997.02.28.
제22대	김선옥	사학과	1997.03.01. ~ 1999.02.28.
제23대	홍순호	중어중문학과	1999.03.01. ~ 2001.02.28.
제24대	서정복	사학과	2001.03.01. ~ 2003.02.28.
제25대	손종호	국어국문학과	2003.03.01. ~ 2004.08.31.
제26대	한영목	국어국문학과	2004.09.01. ~ 2006.08.31.
제27대	김용완	사학과	2006.09.01. ~ 2008.08.31.
제28대	김두정	교육학과	2008.09.01. ~ 2009.03.31.
제29대	박찬인	불어불문학과	2009.06.01. ~ 2011.05.31.
제30대	김선기	국어국문학과	2011.06.01. ~ 2012.08.31.
제31대	김응중	사학과	2012.09.10. ~ 2014.01.31.
제32대	류병래	언어학과	2014.02.01. ~ 2016.01.31.
제33대	홍성심	영어영문학과	2016.03.08. ~ 2018.02.28.
제34대	이건수	불어불문학과	2018.03.01. ~ 2020.02.29.
제35대	차전환	사학과	2020.03.01. ~ 2022.01.31.
제36대	이종성	철학과	2022.02.01. ~ 현재

※ 인문대학은 1952~1978년까지 문리과대학, 1979년부터 2003년까지 문과대학이었음.

3. 인문대학의 미래

1)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중요성

지난 수십 년간 과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미 그 단계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주류를 점하고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향후 인류 사회의 변화 역시 더욱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창의적이고 융복합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요구된다. 또한 AI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함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글로벌 시대에 더 복잡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참여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과 그 근원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존엄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건전하고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세계를 해석함으로써 건전한 인류 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인문학의 존재 의미이며 책임이다. 더욱이 인문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자원의 원천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근원으로서 창의적이고 융복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 인문대학의 장점

우리 인문대학은 중부권 최고 거점국립대학의 인문학 중심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견실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인문학 전반을 포괄하는 12개 학과가 고루 포진해 있고, 이를 구성하는 전임교원 역시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다. 특히 국사학과, 고고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등은 여타 거점국립대학에 거의 설치되지 않았지만 소외되기 쉬운 인문학의 중요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동안 인문대학은 CK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PILOT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여러 국책 연구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그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중부권 인문학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문적·사회적으로 인문학의 역할은 더욱 증대하고 중요시될 것이다. 인문대학은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거점국립대학 인문대의 공통적인 기본채무로 인식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인문학을 사회 주도적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부권 인문학 발전의 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학술적·대중적 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의 결합은 인문콘텐츠를 개발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같은 블루오션 앞에서 우리 인문대학은 학문의 탐구와 병행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문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인문콘텐츠 개발은 기획 단계에서 창의적 발상, 창작 소재, 구상,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므로 견실한 인문학적 소양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인문대학은 디지털기술, 컴퓨터공학, 예술 등과 연계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콘텐츠 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인문학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달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현재 연계전공인 인문콘텐츠학과(국어국문학과)를 주관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의 역사

1. 사회과학대학 연혁

- 1971년 03월 법경대학에 행정학과 신설
- 1975년 03월 문리과대학에 사회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행정학과 신설
- 1979년 07월 사회과학연구소를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로 개편
- 1980년 03월 문과대학에 도서관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사회학과 신설
- 1981년 01월 문과대학에 심리학과 신설
- 1982년 03월 행정대학원 신설
- 1985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행정학과 신설
법과대학에 정치외교학과 신설
- 1988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심리학과 신설
- 1989년 03월 문과대학에 신문방송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정치외교학과 신설
문과대학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개편
- 1990년 03월 사회과학대학 및 산업대학원 신설
문과대학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신문방송학과, 법과대학의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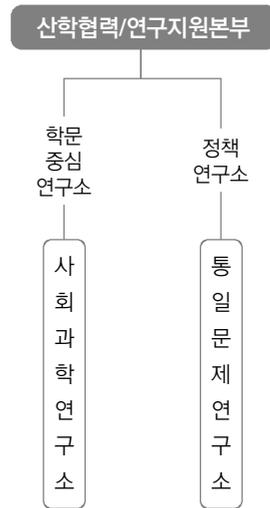
- 학과, 정치외교학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 변경되고 자치행정학과 신설
- 1990년 04월 사회과학대학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신설
 - 1991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문헌정보학과 신설
 - 1993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사회학과 신설
 - 1994년 03월 사회과학대학에 사회복지학과 신설
 - 11월 사회과학대학 교사 신축
 - 1996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신문방송학과 신설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정치외교학과 신설
 - 1997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자치행정학과 신설
 - 1999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사회복지학과 신설
 - 2000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심리학과 신설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기록보존학 협동과정 신설(주임학과: 문헌정보학과)
 - 2001년 03월 신문방송학과를 언론정보학과로 명칭 변경
 - 2002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문헌정보학과 신설
 - 2003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자치행정학과 신설
 - 2005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신설
 - 2006년 07월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신축
 - 2011년 03월 대학원 기록보존학 협동과정을 기록학과로 명칭 변경
 - 2013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기록학과 신설(주임학과: 문헌정보학과)
 - 2014년 03월 대학특성화사업(CK) 선정
 - 사업단명: 지식혁신형 공공인재 양성 사업단, 참여학과: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 2015년 03월 행정학과와 자치행정학과 통합으로 행정학부 신설
 - 2020년 03월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지역사회디자인학과 신설
 - 2022년 03월 도시·자치융합학과 신설

2. 사회과학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25] 사회과학대학 행정조직도



[그림 26] 사회과학대학 연구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192〉 사회과학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과	교수	조교	학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사	박사	계
사회학과	6	1	27	24	37	64	159	8	7	15
문헌정보학과	6	1	25	20	18	40	110	12	2	14
심리학과	8	1	30	27	35	42	143	24	10	34
언론정보학과	7	1	33	44	33	78	196	15	7	22
사회복지학과	5	1	33	23	19	28	109	6	7	13
정치외교학과	7	1	22	28	26	46	130	6	8	14
행정학부	12	3	82	94	94	116	401			0
행정학과					1	13	14	4	6	10
자치행정학과						8	8	4	4	8
기록학과							0	21	1	22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지역사회디자인학과							0	10		10
군 사 학 과							0		37	37
행 정 실		1					1			0
총 계	51	9	252	260	263	435	1,270	110	89	199

3) 학과별 역사

Ⅰ 사회학과

사회학과는 문리과대학에 1975년 신설되었으며, 1979년 이래로 학사 1,400여 명, 석사 31명, 박사 11명을 배출하였다. 현재 160여 명의 재학생들이 사회학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교수진의 지도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학풍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사회학은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체계를 만들어내서 이를 통해 사회현상들을 조망하려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모든 측면들을 다룬다. 주요 교과내용은 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 분야의 기본 과목들과 다양한 사회 현실, 연구 주제들을 다루는 응용과목들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한편,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및 발전시키려는 진취적인 자세와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사회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교원자격증(일반사회, 공통사회), 사회조사분석사, 직업상담사 등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 관련 자격증으로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이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학계 및 연구기관, 언론계, 지방 및 중앙 행정기관, 금융계 및 일반기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주요 취업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연구소) 등 각종 도서관 및 공공기관 정보센터, 기업체·신문사·방송국 등의 정보실 및 기획실, IT 관련 기업, 웹포털 정보서비스 분야 등이 있다.

Ⅰ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은 종래에는 도서관학이라 하여 주로 도서자료를 인식하고 수집, 정리, 조직, 운용하는 지식과 기술을 다루는 분야로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정보 개념이 도입되면서 넓은 의미의 정보와 이용자 및 그 상호관계로 분야가 확대되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정보와

문헌이 폭증하고 있으며,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단체·국가 간의 정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헌정보학의 역할과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정보가 새로운 자원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문헌정보학은 바로 이 시대의 핵심영역이며, 이를 통해 배출되는 문헌정보학도들은 정보화시대에서 정보전문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사람, 정보, 기술의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보 이용 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집, 처리, 축적, 유통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학, 정보학, 기록학, 데이터사이언스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 지식과 기술을 다루며, 미래 정보 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정보전문가와 전문사서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문헌정보학과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계전공 지식생태 전공과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기록학과의 주임학과를 맡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어떤 특정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에 공통되거나 우선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는 기초과학인 동시에 종합과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 여러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졸업 시 사서자격증(정사서2급, 준사서)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로 진출하여 사서직 공무원으로서 국가대표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고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이나 기록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 세계를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IT 관련 기업, 공공기관 정보센터, 언론사(방송국, 신문사) 등에서 정보전문가,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고, 독서지도사 및 독서치료사, 웹포털 정보서비스 분야(네이버, 구글 등)의 웹컨텐츠 기획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기록물 전문가 등이 될 수 있다. 교직이수자는 졸업 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주요 취업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연구소) 등 각종 도서관 및 공공기관 정보센터, 기업체·신문사·방송국 등의 정보실 및 기획실, IT 관련 기업, 웹포털 정보서비스 분야 등이 있다.

Ⅰ 심리학과

심리학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모

광고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실무적 테크닉을 익히고 응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이 이론 및 실무를 적절히 배합하여 교육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안목과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하게 된다.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광고대행사, 정보통신 유관회사, 정부기관 및 기업체, 여론조사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기자, PD, 아나운서, 웹PD 및 게임 기획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여론조사 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방송 및 인쇄매체 뿐 아니라 뉴미디어 분야에서도 활동영역이 구축되어 언론정보학 전공자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 광고, 홍보, 여론조사, 이벤트 등의 영역에서 언론정보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속적인 학문연구를 할 수도 있다.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광고대행사, 정보통신 유관회사, 정부기관 및 기업체, 여론조사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Ⅰ 사회복지학과

현대국가는 복지국가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나 실천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욕구 및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충남대 사회복지학과는 선도성, 전문성, 과학성, 실천성의 학과 발전이념에 따라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겸비해야할 자질과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회복지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탐구, 분석능력 그리고 인간사랑과 사회봉사의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창의성과 합리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이해와 적응력의 제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사회과학 분야 전반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및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각종 사회단체, 청소년관련기관, 의료기관, 기타 기업체 등 졸업 후 진출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다양한 복지욕구의 분출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사회복지 및 관련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주요 취업기관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사회사업실,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재단, 대학 등이 있다.

원, 군장교, 중등교사 등이 있다.

Ⅰ 도시·자치융합학과

도시·자치융합학과는 1990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자치행정학과’의 3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받아 2022학년도에 행정학을 기반으로 자치 및 도시 분야의 학제적 교육을 선도하기 위하여 ‘도시자치융합학과’로 신설되었다.

1990년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설립된 자치행정학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21세기 대전·세종·충청의 메가시티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공공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문제 해결과 정부정책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와 연구자, 활동가를 육성하여 충청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글로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공은 지방자치, 도시행정을 중심으로 정책, 재정, 공법 분야 뿐만 아니라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목 및 현장실습으로 확대된 심화교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자치융합학과는 각종 국내 외 세미나와 지방의회 연찬, 자치단체 강연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지역 인사들에게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과 이의 실제적용 등에 있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행정학 및 사회 과학에 관한 이론 및 연구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 행정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개발 및 지역사회운영 발전에 관한 지식과 외국의 선진제도를 분석 종합하여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키고 있다.

도시·자치융합학과 졸업생들은 자치행정학과 동문졸업생들의 진로와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사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2000년 행정고시 전체 수석 합격자 배출) 또한 공기업, 일반기업체, 지방자치관련 연구소, 언론기관, 금융기관 등에 활발하게 취업하고 있다. 주요 취업 기관으로는 각종 고등고시, 직렬별 직급별 공무원, 공사 공단, 대기업 및 일반 사기업의 인사·기획·총무관련 부서,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 언론사, 법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으로의 진학 등이 있다.

4) 역대 학장

〈표 193〉 사회과학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가재창	행정학과	1990.03.01. ~ 1992.02.29.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2대	김동훈	자치행정학과	1992.03.01. ~ 1994.02.28.
제3대	김지환	심리학과	1994.03.01. ~ 1996.02.29.
제4대	이계희	정치외교학과	1996.03.01. ~ 1998.02.28.
제5대	이동인	사회학과	1998.03.01. ~ 2000.02.29.
제6대	안근석	심리학과	2000.07.25. ~ 2002.07.24.
제7대	육동일	자치행정학과	2002.08.14. ~ 2004.08.13.
제8대	윤석경	행정학과	2004.08.14. ~ 2006.02.28.
제9대	김필동	사회학과	2006.03.01. ~ 2008.02.29.
제10대	차재영	언론정보학과	2008.03.01. ~ 2010.02.28.
제11대	강병수	자치행정학과	2010.03.01. ~ 2012.02.29.
제12대	김교현	심리학과	2012.03.01. ~ 2014.01.31.
제13대	조성겸	언론정보학과	2014.02.01. ~ 2016.02.29.
제14대	민윤기	심리학과	2016.03.01. ~ 2018.01.31.
제15대	신희권	자치행정학과	2018.02.01. ~ 2020.01.31.
제16대	류진석	사회복지학과	2020.02.01. ~ 2022.01.31.
제17대	김종성	도시자치융합학과	2022.02.01. ~ 현재

3. 사회과학대학의 미래

사회과학대학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는 통섭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지향하는 것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간 경계를 넘어서 통섭적 연구와 교육을 지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사회과학 정립을 위한 연구 인프라구축이다. 이를 위한 기본과제는 사회과학연구소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통해 통섭적 연구와 교육의 기반 마련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과학대학을 넘어서는 타 분야 학문과의 통섭적 연구를 지향하고 사회과학대학의 학문단위별 연구자원 및 지역전문가를 활용하며,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운동조직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유한다. 또한 공동연구 과정에 학생참여 장려를 통해 실습의 장을 마련한다. 그리고 RIS 및 DSC 공유대학 등에 교양과정 개설 등, 사회과학 부문의 적

극적 참여를 모색한다. 이를 통하여 연구와 교육의 연결고리와 선순환을 확립한다.

둘째,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교육과정의 구축이다. 이를 위한 기본과제는 사회과학 전공자로서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 창의성 함양을 위한 사회과학대학 공통과정을 개발하며, 진로지원을 체계화하여 진로탐색, 진로교육훈련, 취창업지원을 연계시킨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디그리와 연계하거나 SW연계전공 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민관학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한 기본과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과학대학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으로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로의 전환 모색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론 수업을 넘어서서 학습한 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한다(예: 실습,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학과간 융복합전공과목 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지역맞춤형 리빙랩, 캡스톤디자인 교과과정 개설, 지역사회 협력형 연구프로젝트 수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 및 봉사 프로그램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의 특성과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넷째,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의 구축이다. 이를 위한 기본과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 습득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유수의 사회과학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학문적, 문화적 역량을 확장시키며,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의 국제학술교류 활성화 및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리고 타국의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 및 학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며, 타도시/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학생들의 국제교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연계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과학대학의 역사

1. 자연과학대학 연혁

1952년 05월 도립 충남대학교 발족(문리과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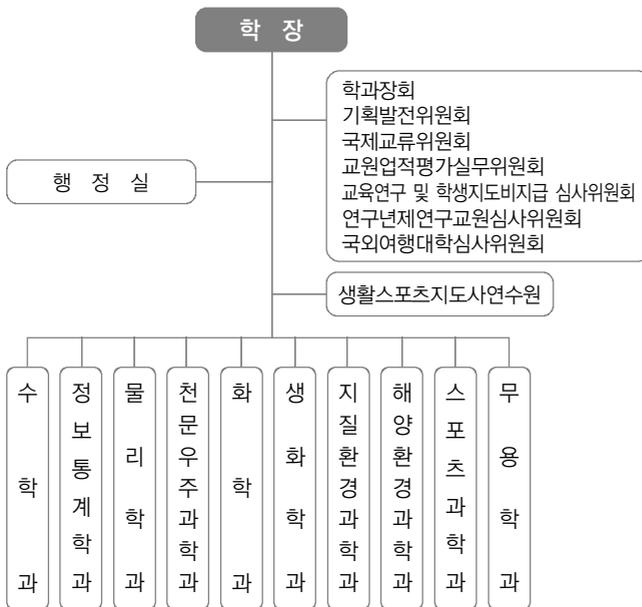
1954년 02월 문리과대학 이학과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로 분리

- 1968년 03월 의예과 설립
- 1973년 01월 체육학과 설립
- 1975년 03월 생물학과, 가정학과 설립
- 12월 체육학과를 체육교육학과로 명칭 변경
 가정학과를 가정교육과로 명칭 변경
- 1978년 03월 계산통계학과 설립
- 1979년 03월 문리과대학이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분리
- 지질학과, 해양학과, 약학과 설립
- 12월 이과대학(대덕연구단지) 대덕캠퍼스로 이전
- 1980년 03월 의류학과 설립
- 1981년 01월 식품영양학과 설립
- 1985년 03월 이과대학에서 약학대학으로 분리
- 1986년 03월 미생물학과 설립
- 1987년 03월 이과대학이 자연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 및 가정대학 분리
- 생화학과 설립
- 계산통계학과가 전산학과와 통계학과로 분리
- 1988년 03월 천문우주과학과, 사회체육학과 설립
- 1993년 02월 전산학과가 컴퓨터과학과로 명칭 변경
- 1995년 03월 무용학과 설립
- 1998년 03월 수의예과 설립
- 기초과학부 설립(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해양학과)
- 1999년 03월 지질학과 기초과학부에 통합
- 2000년 03월 컴퓨터과학과를 공과대학 소속으로 변경
- 2003년 03월 기초과학부를 수학정보통계학부, 물리천문우주과학부, 화학생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생물미생물학부로 분리
- 2004년 03월 생명과학부를 본부직할로 소속변경
- 2006년 03월 수리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신설
- 2007년 03월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화학과와 생화학과를 화학·생화학과로 통폐합
- 2009년 03월 사회체육학과를 스포츠과학과로 명칭 변경
 체육교육과를 자연과학대학에서 사범대학으로 소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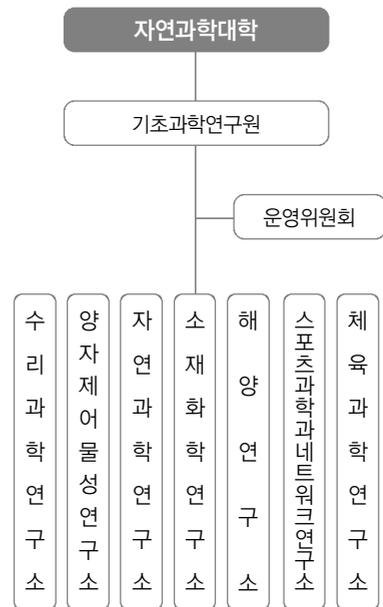
- 2010년 03월 수학정보통계학부를 수학과와 정보통계학과로 분리
- 물리천문우주과학부를 물리학과와 천문우주과학과로 분리
- 화학생화학부를 화학과와 생화학과로 분리
- 지구환경과학부를 지질환경과학과와 해양환경과학과로 분리
- 05월 자연과학대학 1호관 리모델링
- 2014년 03월 대학원 천문우주과학과와 지질환경과학과를 우주·지질학과로 통합
- 대학원 대기과학과 신설
- 2020년 06월 스포츠과학네트워크연구소 신설
- 03월 대학원 대기과학과를 우주·지질학과 대기과학전공으로 편입
- 2021년 07월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 2022년 02월 자연과학대학 2호관 리모델링 및 이전

2. 자연과학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27] 자연과학대학 행정 조직도



[그림 28] 자연과학대학 연구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194〉 자연과학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수 학 과	16	2	87	113	88	184	472	4	8	12
정 보 통 계 학 과	6	1	37	55	31	52	175	12	2	14
물 리 학 과	18	3	74	97	77	107	355	33	13	46
천 문 우 주 과 학 과	9	1	37	49	41	56	183			
화 학 과	16	3	77	93	134	104	408	28	5	33
생 화 학 과	7	1	34	42	46	52	174	21	7	28
지 질 환 경 과 학 과	7	2	53	68	62	68	251			
해 양 환 경 과 학 과	6	2	40	49	32	53	174	12	10	22
스 포 츠 과 학 과	6	1	42	55	43	63	203		6	6
무 용 학 과	4	1	22	23	26	37	108	13	14	27
대 기 과 학 과								1		1
우 주 · 지 질 학 과								25	23	48
총 계	91	16	481	621	554	739	2,395	149	88	189

3) 학과별 역사

Ⅰ 수학과

수학은 인류역사상 초기부터 발달해온 학문으로서 현대에 와서도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수학은 인간의 사고에 의하여 창조되는 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되는 실용적이며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기도 하다. 수학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문화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다.

수학과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유능한 재능인으로서 수학적 재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것이다. 본과는 현재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16명의 교수, 400여 명의 학부생과 30여 명의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생, 30여 명의 교육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수학 학문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수한 학과이다. 수학과는 크게 순수수학과 응용수학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순수수학은 대수학, 해석학, 위상학과 기하학을 응용수학은 통계학과 수치해석학, 컴퓨터과학을 포함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관심이 높고 있는 암호론, 금융수학, 빅데이터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수학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 개척이 가능한 기본소양을 키울 수 있다.

충남대학교 설립과 함께 1952년 문리과대학 안에 수학과가 개설되었으며 이후 1956년부터 총 3,033명의 이학사가 배출되었다. 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이 1963년에 개설되어 1965년부터 현재까지 19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박사과정은 1980년에 개설되어 1985년부터 114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1964년부터 학부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교원양성(중등교사2급)이 시작되었으며 교육대학원이 1975년에는 교육학석사과정에 수학교육전공이 개설되어 1977년부터 574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개설 당시 수학과 학생모집정원은 20명이었고, 1977년 학생정원이 40명으로 증원되었다. 수학과는 점점 발전하여 1978년에 계산통계학과가 분리되어 개설되었고 그 후, 수학과는 학생정원이 80명(1979) 그리고 100명(1981)으로 증원되는 등 그 규모가 점점 커졌다. 1998년에는 자연과학대학 10개 전공분야를 기초과학부로 통합하였다가 2003년 다시 수학·정보통계학부로 분리되었다. 2009년에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가 신설되면서 교직과정이 폐지되었고 수학·정보통계학부로 모집하던 모집단위를 수학과로 변경하여 정보통계학과와 다시 분리가 되었다.

수학과에서는 국내·외 학술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연구발표회, 충청수학회 연구발표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의 시상식 및 폐회식,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의 학술발표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국제학술대회 등이 개최되었고 필드상(Field's prize) 수상자인 스메일(S. Smale, 미국) 교수와 젤마노프(E. Zelmanov, 러시아) 교수가 각각 1994년과 1997년에 수학과를 방문하여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또 수학과는 전국고등학교수학경시대회를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제16회)까지 매년 개최하였다.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수학비전 2013사업팀'이 BK21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학비전2020사업팀'으로 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수리과학 선도인재 양성팀'이 4단계 BK21 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훌륭한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또한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재단의 과제를 수행 중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과학대학이 보은캠퍼스에서 1979년 대덕캠퍼스로 옮긴 후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과 시설이 좋아졌고 수학과와 실습 및 연구시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 수학과는 현재 다수의 시청각교육도구, 컴퓨터, 강의용 전자장비 등을 갖춘 응용수학실습실, 현대적 시설이 구비된 세미나

실이 있으며 Mathematica, Matlab, Maple, GPS 등 수학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수학전문학술지 약 100종을 포함한 교육 및 연구자료가 있는 자료실 등이 있다.

수학과에서는 일반적인 교내외 장학금 외에 수학과 동창회 장학금, 감민호 장학금, 교수장학금 등의 수학과만의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학과 졸업생들은 충청, 서울 등 전국각지에서 중등학교 수학교사와 대학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외 수학 관련 연구원, 공무원, 회사원 등으로 사회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많은 졸업생들은 외국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학과는 수학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본다.

Ⅰ 정보통계학과

정보통계학과는 1978년 문리과대학 내에 전산학전공과 통계학전공으로 이루어진 계산통계학과로 신설되었다. 1987년 계산통계학과에서 통계학과로 분리되어 1991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98년 기초과학부 내 통계학전공, 2003년 수학·정보통계학부 내 정보통계학전공, 2010년 정보통계학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보통계학과는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금융계, 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교과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균형 발전 및 데이터사이언스와 바이오, 그리고 국가통계 분야의 융합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빅데이터 및 AI 기술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은 1981년에 설치되어 통계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활용 능력을 갖춘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대학원과정은 데이터사이언스 교과과정 수립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각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심화과정 수강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생들은 연구소, 학계, 정부기관, 기업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Ⅰ 물리학과

물리학은 한편으로는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찾아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

칙을 현실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주는 학문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공학이나 경영학 등과 달리 기본적으로 학문 추구적인 면을 강하게 가진 학과이다. 그러므로 물리학과는 학부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물리학에 관한 지식들을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론 기초과목으로서의 물리학을 필요로 하는 공학도, 자연과학도 또는 인문 사회과학도 등 비전공 학생들을 위한 지원 강의를 감당하는 일을 맡는다. 대학원에 있어서는 물리학의 전문 지식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이를 직접 연구 응용할 수 있게 함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 또 하나의 목표로서 교수들의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일을 큰 목표로 삼는다.

충남대학교 물리학과는 1952년 개교와 더불어 설립된 학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63년에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하고, 1977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신설하였다. 1963년부터 중부지방 방사능측정소를 설치하여 대전지역의 방사능 측정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학부를 지원 하는 누리사업, 2010년에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BK21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반도체소재부품장비기술인력양성사업, 2020년에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4단계 BK21 사업에 선정이 되어 현재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2022년 4월 현재 교수 18명, 학부 재적생 373명, 대학원 재적생 44명으로 규모가 큰 학과이다. 충남대학교가 대덕연구단지에 속해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변의 국책연구소들과 활발히 교류를 하고, 여러 가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어서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 천문우주학과

천문우주학과는 1988년 3월 자연과학대학에 설치되었다. 또한 1995년 3월에 대학원이 설치되었으며, 천문우주학과와 지질환경과학의 융합 연구를 위하여 2014년 3월에 우주·지질학으로 대학원을 개편하였다.

천문우주학과에서는 순수 천문학과 응용천문학인 우주과학 분야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천문학(Astronomy)은 우주(Universe)의 생성과 진화, 그리고 우주 내 별과 은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규명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호기심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분야이다. 본 학과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천문학 현상에 대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측 및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론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우주과학(Space Science)은 태양계의 현상과 태양 및 지구의 상호작용, 우주환경에 따른 지구와 인간의 변화 및 자연재해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본 학과에서는 지상 및 인공위성 관측 자료 및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위성과 과학로켓에 탑재되는 과학측정장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35년간 대덕 연구단지내에 위치한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원

로 보다 세부적인 전공교육과 실질적인 연구과정을 통하여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응용력을 갖춘 전문 화학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수와 대학원생이 하나의 연구조직이 되어 화학의 각 분야에서 독창적 학문탐구와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교수는 학문발전 및 과학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학생은 독자적 학문탐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 있다. 화학과는 우리나라 연구의 중심지인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국가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기업 연구소 및 여러 벤처기업들 등 많은 연구기관들과의 학문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화학과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들은 국공립 연구소 및 기업체 연구소, 산업계, 교육계, 화학지식이 요구되는 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전문 공자로서 최첨단 과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으며, 특히 대학원 졸업생들은 화학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화학 분야 및 산업기술의 발전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대학원 화학과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문교부로부터 1957년 4월 설립 허가를 받았다. 화학과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최초 설립 당시의 학과로서 설립 당시에는 석사학위과정만 먼저 개설되었으며, 이 후 1974년도에 화학과 박사학위과정이 설립되었다.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기초 학문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물질의 성질, 조성, 구조, 화학반응, 물질의 합성 등을 연구하여 신물질을 창출하고 새로운 현상을 예측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바탕이 되는 학문이다. 이러한 화학은 신물질 및 소재, 에너지 분야의 응용을 가능하게 하며 생명과학 분야의 각종 현상들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화학과 대학원에서는 학부과정에서 익힌 화학에 대한 이해력과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인 전공교육과 실질적인 연구과정을 통하여 학문적 현상의 폭넓은 이해 능력과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기능성 신소재, 에너지 및 바이오소재, 그리고 신규 의약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응용력과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화학과 대학원에서는 화학의 세부전공인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등 세부전공 교과목을 구분하여 보다 심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수와 대학원생이 하나의 연구조직이 되어 화학의 각 분야에서 독창적 학문탐구와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교수는 학문발전 및 과학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학생은 독자적 학문탐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 있다. 또한 화학과는 우리나라 연구의 중심지인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국가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기업 연구소 및 여러 벤처기업들 등 많은 연구기관들과의 학문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화학과 대학원 졸업생들은 국/공립연구소, 대기업연구소 및 각종 산업체를 비롯하여 다

석사학위과정은 신설되었으며, 1985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신설되어 본격적인 전문인재 양성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1987년 이과대학이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 개명되었다. 학과가 신설된지 10년째 되던 1989년, 지질학과는 이학관에서 기초과학1호관으로 이전하였다. 증가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1996년 산업대학원 지질공학전공이 신설되었다. 학부통합의 열풍을 피하지 못해 1999년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로 편입되었다, 2003년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다. 2010년 지질환경과학과로 학과명이 최종 변경되며, 21세기 현대적인 개념의 학과로 안착하였다.

2013년 지질환경과학과 대학원과 천문우주과학과 대학원은 우주·지질학과로 대학원 과정을 통합하였다. 2014년 대학원 우주·지질학과는 BK21+ 사업에 “충남대학교 미래 우주·지질 탐사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7년에 걸쳐 22억 상당의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았다. 2016년 지구과학 관련 학부 3과(지질환경과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가 합심하여 대학특성화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CK사업)에 “지구/우주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지역산업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대학의 특성화에 일조하였다. 2021년 충남대학교 건물명 개편에 의해, 과거의 기초과학1호관은 자연과학3호관(W11-1)으로 건물명이 변경되었다.

지질환경과학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분석하여 행성의 생성, 행성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밝히고 그 미래를 분석, 예측하는 과학이다. 실제 지구는 자기권, 대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구시스템을 다루는 지질환경과학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태양계의 생성 및 진화, 생명의 탄생 및 행성간 이동, 지구환경의 형성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도는 행성체가 연구 대상이다. 최근에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학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행성과학분야 시장 창출과 우주개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유망한 미래 우주탐사 및 우주자원 활용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졸업동문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중등 교사, 엔지니어링회사, 지하수개발회사, 그라우팅회사, 환경관련회사, 건설회사, 지질용역회사 등 사회 각계에서 지구과학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가 처한 자원 및 환경 그리고 공간적 제약 요소들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우주과학 분야 핵심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활발한 우주지구과학 분야의 융합연구를 주도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우주·지질 분야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3년 충남대학교 지질환경

양학, 지질해양학의 네 분야로 구성되며, 이들 각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확보, 해저자원개발, 기후변화 연구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국립수산진흥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농어촌진흥공사 등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또한, 교직자격증을 취득 후 중/고등학교 교사로 진출할 수 있다. 대학원과 같은 상급교육기관 진학을 위해 1982년, 1992년 차례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신설하였고, 현재 해양환경화학, 해양미소생물, 해양유기화학, 해양지질, 해양기후역학, 해양저서생태의 6개 연구실을 통해 융합 과학으로서의 교육부문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연구부문에서는 2009년 7월 국토해양부 지원 “충청 SeaGrant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관학연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끝으로, 지구표면의 약 70%나 차지하는 드넓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바다처럼 우리 해양환경과학과도 무한한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학적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연구 분야들을 개척해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연안 해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스포츠과학과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이후, 국민체육진흥정책과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육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체육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88년도에 전국의 국립대 중에서는 처음으로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내에 50명의 입학 정원으로 사회체육학과 설립을 인가하였다. 학과 설립 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지도, 건강운동, 스포츠경영관리, 레저·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수영, 테니스, 골프, 볼링, 태권도 등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은 물론이고, 보디빌딩,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소비자 중심의 전공실기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운동처방, 생체역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 등 휴먼 사이언스 중심의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스포츠 전문 지식과 다양한 정보 활용능력을 제공함은 물론 최적 수준의 운동기능과 분석능력을 보유한 유능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우수한 교수진과 최신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 운동부가 활동하고 있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충남대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1996년부터 사회체육전공 석사과정이 신설되었고, 2009년 스포츠과학과로 학과명을 개정하고,

스포츠건강·스포츠문화·산업 전공 박사과정 설립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Ⅰ 무용학과

무용학과는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리더십 있는 예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1995년 자연과학대학 내에 신설되었다. 학부 과정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5년에는 무용학 석사과정, 2011년에는 무용학 박사과정을 추가 신설하였다.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창의적인 무용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내외 공연에 무용수, 안무가, 스태프 등으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용예술계를 이끌어 갈 역량을 배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아무용, 문화예술교육사, 발레지도자, 필라테스, 방송댄스 지도자 등 다양한 자격증 준비를 통해 최근 무용의 대중화와 융복합화 경향에 대비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과의 대외 활동으로는 매년 초·중·고등학교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를 실시하여 무용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무용을 전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격려해 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부흥을 위하여 세종국제무용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무용학도가 대전·세종·충청지역 예술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또한, 국립대육성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JTBC 방송에서 소개된 <Your Dance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무용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현재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전문무용수, 안무자, 무대예술감독, 공연예술기획자, 학교 및 복지기관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학원 및 문화센터 강사,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대학강사, 비평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4) 역대 학장

〈표 195〉 자연과학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윤화중	물리학과	1979.03.01. ~ 1981.02.28.
제2대	권기성	화학과	1981.03.01. ~ 1983.02.28.
제3대	이천배	화학과	1983.03.01. ~ 1985.02.28.
제4대	이천배	화학과	1985.03.19. ~ 1987.03.18.
제5대	윤화중	물리학과	1987.03.01. ~ 1989.03.18.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6대	주진구	수학과	1989.03.24. ~ 1991.03.22.
제7대	최종석	정보통계학과	1991.03.23. ~ 1993.03.31.
제8대	최신석	생물학과	1993.04.01. ~ 1995.02.28.
제9대	이동수	수학과	1995.03.01. ~ 1997.02.28.
제10대	윤석승	화학과	1997.03.01. ~ 1999.02.28.
제11대	백상기	생물과학과	1999.03.01. ~ 2000.08.31.
제12대	전길웅	수학과	2000.10.01. ~ 2002.09.90.
제13대	방재욱	생물과학과	2002.10.01. ~ 2004.01.31.
제14대	김성래	수학과	2004.02.01. ~ 2006.01.31.
제15대	박철	해양환경과학과	2006.02.01. ~ 2008.01.31.
제16대	김용하	천문우주과학과	2008.02.01. ~ 2010.01.31.
제17대	김영상	생화학과	2010.02.01. ~ 2012.01.31.
제18대	김흥기	정보통계학과	2012.02.01. ~ 2014.01.31.
제19대	홍기민	물리학과	2014.02.01. ~ 2016.01.31.
제20대	김건철	화학과	2016.03.08. ~ 2018.02.28.
제21대	이찬용	생화학과	2018.03.01. ~ 2020.02.29.
제22대	김문덕	물리학과	2020.03.01. ~ 2022.01.31.
제23대	최성희	지질환경과학과	2022.02.01. ~ 현재

※ 자연과학대학의 전신인 문리과학대학의 역대학장(1953~1978년)은 <표 191> 인문대학 역대학장에 표기됨.

3. 자연과학대학의 미래

미래사회에서는 기초 과학이 원천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은 인류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하여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2022년을 ‘세계 기초과학의 해’라고 정하였다. “기초학문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 자연과학대학이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1)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원보강

자연과학대학은 기초과학연구원을 두고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기초과학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수리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양자제어물성연구소, 소재화학연구소, 해양연구소, 스포츠과학네트워크연구소, 체육과학연구소 등을 산하 연구소로 구축하여 자연과학 분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세계 수



경상대학의 역사

1. 경상대학 연혁

- 1958년 10월 문리과대학 내에 경상학과 설치
- 1962년 03월 문리과대학 경영학과 신설(정원 15명)
- 1965년 03월 신설 법경대학으로 경영학과 소속 변경
- 1972년 10월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신설
- 1975년 03월 경제학과 신설(정원 30명)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신설
- 1978년 03월 회계학과 신설(정원 50명)
- 1979년 03월 무역학과 신설(정원 50명), 법경대학이 법과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
오덕균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07월 경영경제 관련 분야 연구조사를 위해 경영경제연구소 설립
- 08월 교내 경상대학 학술지 '경상논집' 발간
- 1981년 03월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신설
오세도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07월 대덕캠퍼스로 이전
- 1983년 03월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신설
방우제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1985년 03월 오덕균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12월 '경상논집'을 '경영논집'과 '경제논집'으로 분리하여 출간
- 1987년 03월 김홍중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1989년 02월 이근식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03월 오덕균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대학원 회계학 박사과정 신설
- 1991년 03월 대학원 무역학 석사과정 신설
전철환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1992년 03월 대학원 회계학 박사과정 신설

- 1993년 03월 손명환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1995년 03월 송계충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04월 경상대학장이 경영대학원장 및 경영경제연구소장 겸임
- 1996년 03월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신설
- 08월 경상대학 및 지역사회 정보화를 위한 경영경제정보센터 설립
- 1997년 03월 김능진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1998년 03월 전철환 교수 한국은행 총재 취임
- 1999년 02월 대전·충청지역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CRC)협력기관 지정
- 03월 한인수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국제화 시대 부흥 위해 국제교류위원회 설치(이후 국제교류센터로 확장 후 경영경제정보센터와 통합하여 현재 국제교류정보센터로 운영)
- 학과별 신입생 모집, 선발에서 경상계열로 신입생 모집, 선발 체제로 전환
- 2000년 08월 교내 학술지를 '경영경제연구'로 통합하여 발간
- 2001년 03월 조대우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2002년 06월 경영경제연구소,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중점연구소 지정
- 2003년 03월 경상계열(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을 경영학부(경영전공, 회계전공, 국제경영전공), 경제무역학부(경제전공, 무역전공)로 조정
- 정상철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08월 산업자원부 TI(Trade Incubator) 사업단 지정
- 2005년 03월 권택성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2006년 03월 경영경제연구소장을 학장으로부터 분리
- 06월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사업단 지정
- 2007년 03월 정용길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07월 지식경제부 GTEP사업단 지정
- 2008년 11월 국제교류센터, 경영경제정보센터를 국제교류정보센터로 통합
- 2009년 02월 박재기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03월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환원(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국제경영학과)
- 경영대학원장 분리임명
- 12월 정범구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2010년 12월 경상대학 기업가정신센터 설립

- 2011년 03월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를 경영학부로 조정(경제학과, 경영학부, 무역학과)
경상대학 취업센터 설립
- 2012년 03월 오근엽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2014년 02월 문희철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2016년 01월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신설
- 03월 윤평식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2018년 03월 강대석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경영경제연구소,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
- 2020년 03월 김형준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 09월 경영학과·무역학과 한국연구재단BK21 사업단 지정
- 2022년 03월 최병천 교수 경상대학장 취임

2. 경상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29] 경상대학 조직도

2) 전체 현황(2021.10. 01. 기준)

〈표 196〉 경상대학 전체 현황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경 제 학 과	9	1	72	104	98	149	423	10	8	18
경 영 학 과						4	4	74	26	100
회 계 학 과						2	2	2	3	5
무 역 학 과	7	1	55	79	69	119	322	24	8	32
경 영 학 부	33	5	265	346	402	582	1,595			
국 제 경 영 학 과						1	1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1		30	27	53	34	144			
총 계	50	7	422	556	622	891	2,491	110	45	155

3) 학과별 역사

Ⅰ 경제학과

경제학과는 1975년 3월 충남대학교 법경대학 경제학과로 신설되었다. 1979년 3월 법경대학이 법과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됨에 따라 경상대학 소속이 되었다. 경제학과는 합리적 판단력과 경제학적 분석 능력,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경제전문가로서의 기초소양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 기본 과목을 바탕으로 금융, 국제, 재정, 노동, 환경, 산업, 경제사 등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의 이론 및 실증 연구 방법을 탐구한다. 경제학은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는 학문 분야로서, 경제학 이론과 실증 방법론을 통해 경제 현상의 분석 및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금융계, 공공기관, 정부 기관, 일반 기업, 학계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학과는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학제 간 연구가 발전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융복합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다면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비즈니스연계전공, 미래기술창업학연계전공, 과학기술행정융복합연계전공 등에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직설치학과로서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기 교육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하나로서 '경제데이터 실무이해과정'을 운영하여 전공교육

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은 1981년 3월과 1983년 3월에 각각 경제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였다. 경제사와 경제학 전공이 있으며, 각 세부전공별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역량 증진에 힘쓰고 있다. 졸업생들은 공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선택하거나 연구기관/대학교 등 학계로 진출하고 있다.

■ 경영학부, 대학원 경영학과, 대학원 회계학과

경영학부는 1958년 개설된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경상학과로부터 출발하였다. 1962년 충북대학교와의 합병 이후 경영학과로 변경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 학과의 신설과 통합 등 수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해왔다. 현재의 경상대학 경영학부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별도 학과로 존재하던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가 통합되어 신설되었다.

대학원의 경우 1972년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경영학과가 신설되었고 1975년에 일반대학원에 경영학 박사학위과정이 신설되었다. 대학원 회계학과는 1989년에 석사과정 1992년에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대학원은 경영학과, 회계학과로 나뉘져 운영되고 있으며 석/박사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BK21, SSK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영학부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Glocal 경영학부”라는 비전과 ‘글로벌 역량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춘 창의경영인력 양성’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그 세부 교육목표로서, 비전과 미션의 달성을 위해 국제적 및 지역적 리더십을 겸비한 인력을 배출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자 한다. 즉 창의적 경영리더, 지역 특화 경영리더, 전문적 경영리더 및 글로벌 경영리더를 육성하는 경영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영학부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첫째 글로벌 경제존속과 지역적 독자생존의 이질적 요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벌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및 실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을 위한 글로벌 경영인재이다. 둘째, 대전·세종·충청권의 연구소, 기업, 산업,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상생과 협력이 가능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경영인재이다. 셋째, 경영학의 윤리적 실천수단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교내·외 봉사활동, 지역사회와의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겸비하는 윤리적 경영인재이다. 넷째, 타인에 대한 이해(Tolerance)를 바탕으로 경영학 분야를 전공하는 선비로서의 자세와 덕을 지닌 군자 리더십을 지향하는 인문학적 경영인재이다. 마지막으로 학문과 산업이 융·복합되는 환경에서 낯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시에 융·복합 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통찰력(Business acumen)을 키우는 창의융합 경영인재이다.

■ 무역학과

무역학과는 1979년 3월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내에 무역학과로 신설되었다. 글로벌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춘 창의적인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사회에서 수요로 하는 무역 및 국제 통상에 대해 전문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무역학 세부 분야별로 무역이론/무역실무/외국어 등 전공 교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고 있고, 인턴십 교과목과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도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무역학과는 국제거래(수출과 수입)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실행을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유효수요도 크지 않아 해외시장에서 자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그 완제품을 다시 외국시장으로 수출하고 국내 수요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수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학과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무역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와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에는 일반적인 경상계열 학생들의 진로인 기업체, 금융기관, 공무원 등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무역, 국제통상, 해상보험, IT 무역컨설팅, 관세사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KOTRA, 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WTO 및 국제기관에서 전문가로 일하거나,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대학교수, 정부기관,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무역, 국제통상정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2014년 7월에는 아시아비즈니스 연계전공의 주관학과로 외국어 및 경상계열 전공능력을 융합하여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비즈니스 연계전공은 무역학과, 경제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와 전공이 모여 이수학생들은 하나의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트랙을 선택하며, 경제 경영 무역 전반적인 전공공부를 통해 비즈니스 감각을 키우며 해외 인턴십 등을 통해 글로벌 경험을 가지고 세계를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교육한다.

2016년 1월부터는 스마트이트레이드연계전공의 주관학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기존 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분야 교육과 SW 분야 교육의 연계를 통해 ICT 기반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글로벌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춘 창의적인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미션으로 하는 무역전공과 스마트앱, 빅데이터 등 SW 관련 학문분야의 전공을 폭넓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자무역, 수출입 물류 시스템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대학원은 1991년 3월과 1996년 3월에는 각각 무역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무역실무 및 이론에 능통한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하고 있다. 미래인재양성사업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 되어 졸업생들은 여러 대학 및 기관에서 교수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는 2017년 경상대학 소속으로 개설되었다. 이 학과는 아시아의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려는 충남대학교의 비전을 담아 개설된 학과로, 아시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화 시대인 21세기에 걸맞게, 다양한 국적의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강사진도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는 외국어 및 경상계열 전공능력을 융합하여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에 경제, 경영, 무역 전반적인 전공공부를 통해 비즈니스 감각을 키우며 해외 인턴십 등을 통해 글로벌 경험을 가지고 세계를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교육한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 및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언어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을 가진 글로벌 인력을 배출해내고자 한다.

교육 목표로는 글로벌 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춘 무역전문인력 양성으로 이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중국어, 일본어 수업도 개설되어 있다. 거기에 실무적인 내용들을 보강하기 위해 여러 금융, 회계 등 다양한 실무적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도 경상계열 전공 및 외국어에 특화한 본 학과 졸업생들은 일반적인 경상계열 학생들의 진로인 기업체, 금융기관,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식견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민간기구(NGO)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졸업 후 경상계열이나 다른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전공 분야의 대학교수, 정부기관, 국제기구, 기업체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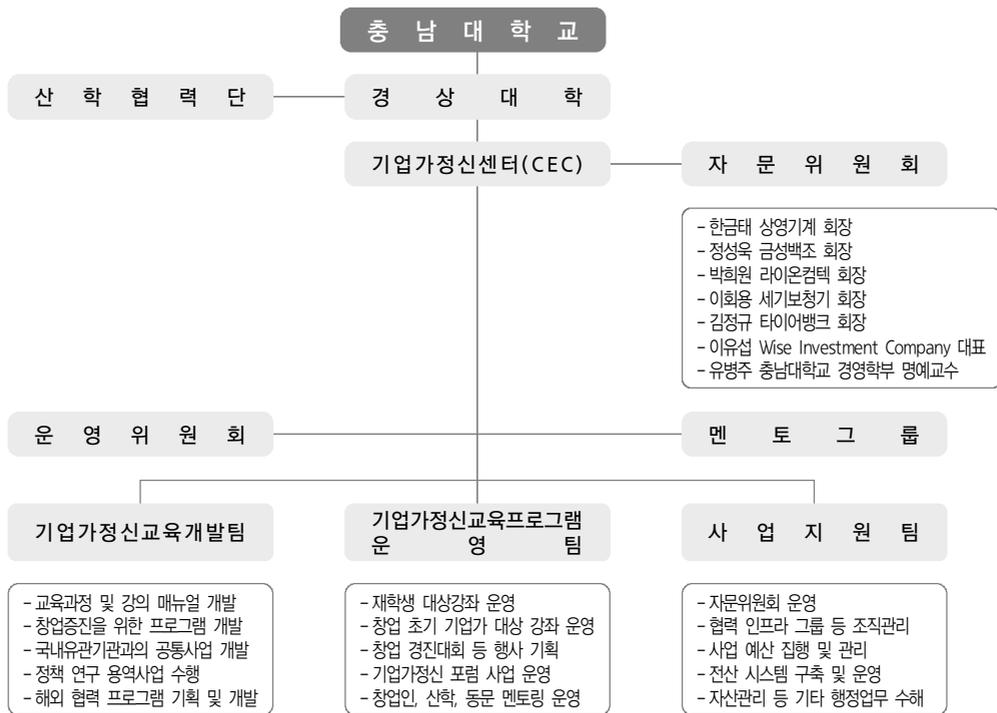
4) 부속기관

▮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소는 경영경제 및 관련분야 이론과 실천응용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되어 이러한 역사에 걸맞게 2002~2008년 6년간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SSK(Social Science Korea)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경험에 대한 지식화 및 국제적 확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2017년에는 연구소에서 연 4회 발행하는 학술지 「경영경제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점연구소 사업의 성공적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다시 10년만에 2018~2024년 6년간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학발전을 물론 국가 경제발전의 엔진이 되고자 한다. 이에 기업가정신센터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자 하는 충남대학교 인재에게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실용 및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전적(challenge)이고 창의적(creative)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5) 조직 및 운영



[그림 30] 기업가정신센터 조직 및 운영 체계

3. 경상대학의 미래

경상대학 발전 전략

글로벌 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경상대학의 미션 달성을 위해, 소속 학(부)과와 부속기관인 연구소·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 유공학, 화학공학의 3개 학과로 확충
- 1963년 03월 국립 충청대학교가 국립 충남대학교와 국립 충북대학교로 다시 분리
- 1964년 06월 공과대학 교사 준공
- 1970년 03월 공과대학에 공업교육과 신설
- 1971년 03월 공과대학에 토목공학과 신설,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화학공학과 신설
- 1973년 03월 공과대학에 산업기계공학과 신설
- 1974년 03월 공과대학에 정밀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금속공학과 신설,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섬유공학과 신설
- 1975년 03월 공과대학에 전기공학과 신설
- 1976년 0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토목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신설
- 12월 공과대학이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되어 건축교육공학과, 토목교육공학과, 기계교육공학과, 화학교육공학과, 금속교육공학과 등의 8개 학과를 둠
- 1977년 03월 공과대학을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
- 07월 공과대학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신설
- 1978년 08월 공업교육대학 대덕캠퍼스로 이전
- 1979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전기공학과, 박사학위과정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설
- 1981년 01월 공업교육대학에 공업기술교육과가 신설. 기계설계교육공학과 폐지
- 03월 박사학위과정에 전자공학과, 금속공학과 신설
- 1982년 03월 공업교육대학을 공업교육학부와 일반공학부로 분리하여 일반공학부에 전자공학과, 섬유공학과, 조선공학과, 재료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가 신설, 공과대학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설
- 1984년 03월 공업교육대학 일반공학부에 화학공학과 신설
- 1985년 03월 공업교육대학을 공과대학으로 개편하여 일반공학부에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공업교육학과 신설
- 1986년 03월 공과대학 일반공학부에 전자계산공학과 신설
- 1987년 03월 공과대학에 고분자학과 신설
- 1988년 03월 공과대학 조선공학과가 선박해양공학과로 명칭변경
- 1990년 03월 공과대학 전자계산기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로 명칭변경,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고분자공학과, 전자계산기공학과, 박사학위과정에 선박해양공학과, 재료공학과가 신설되고, 산업대학원에 11개 학과 신설, 공과대학 부설 산업

- 기술연구소가 법정화됨

1991년 03월 급속응고신소재공학연구센터(ERC)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환경공학과 박사학위과정에 공업화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신설, 석사학위과정의 전자계산기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로 명칭 변경
- 1992년 03월 공과대학에 정보통신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에 학연협동연구과정에 신설,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컴퓨터공학과 신설
- 1993년 01월 정보통신연구소 신설

08월 교육부로부터 공과대학이 국책공과대학으로 지정
- 1994년 12월 국책사업추진위원회 발족
- 1995년 03월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섬유공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및 정밀공업화학과를 신소재공학계열로 특성화하여 신입생 선발

05월 국책공과대학 사업진행을 위한 국책사업단이 비법정기구로 발족

06월 공과대학 부설 신소재연구소 신설
- 1997년 03월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를 통합하여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로 학부제 개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전파공학과, 박사학위과정에 공업교육학과가 신설되고, 항공우주 및 메카트로닉스공학과가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공학과로 분리

06월 정보통신분야 대학원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로 선정

07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대학교 지역센터 설치
- 1998년 03월 공과대학 부설 첨단수송체연구소 신설
- 1999년 03월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화학공학부, 재료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를 분리하고, 재료공학·금속공학·화학공학·고분자공학·정밀공업화학·섬유공학과를 신소재공학부로 개편

07월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센터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우수연구센터(ERC)로 선정

08월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사업 선정(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
- 2000년 03월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를 통합하여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부로 개편, 박사학위과정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파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를 신설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금속공학과, 섬유공학과,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산업공학과, 식량공학과, 지질공학과, 선박해양공

학과를 통합하여 산업공학과로 개편

- 04월 자성재료연구소가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소에 통합
- 2001년 12월 공과대학부설중등교원연수원 명칭을 공과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으로 변경
- 2002년 08월 [전자파 환경기술 연구센터]가 정보통신부로부터 대학 IT연구센터로 선정
- 09월 국책사업단을 나노신소재공학원으로 변경 신설, 공과대학부설 신소재연구소 폐지, 나노·신소재공학원에 나노기술연구센터, 산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신소재연구소 설치
- 2003년 08월 [인터넷 침해대응 기술센터]가 정보통신부로부터 대학 IT연구센터로 선정
- 2004년 03월 공과대학 공업계열(건축공학교육과, 금속공학교육과, 기계공학교육과, 전기공학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 토목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을 건축/토목공학교육학과군(건축공학교육과, 토목공학교육과), 전기/전자공학교육학과군(전기공학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군(기계공학교육과, 기계공학교육과, 금속공학교육과), 기술/화학공학교육학과군(기술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건축/토목/환경계열학과군, 토목/환경공학과군(토목학과, 환경공학과), 기계/선박/항공계열학과군(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을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과군(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로 조정하고, 신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을 응용소재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
- 2005년 10월 공과대학 공업교육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첨단수송체연구소를 대학본부 소속으로 소속 변경
- 2006년 03월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교육학과군(건축공학교육과, 토목공학교육과)을 공업교육학부(건설공학교육전공), 전기/전자공학교육학과군(전기공학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을 공업교육학부(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전공)로, 기계/금속공학교육학과군(기계공학교육과, 금속공학교육과)을 공업교육학부(기계/금속공학교육전공)로, 기술/화학공학교육과군(기술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을 공업교육학부(기술교육전공, 화공섬유공학교육전공)으로 조정하고, 토목/환경공학과군(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을 토목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로,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을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로,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과군(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을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선박해양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로, 신소재공학부(응용소재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정밀공업화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섬유공학전공)을 나노공학부(나노소재공학전공), 나노정보시스템공학전공, 바이오응용화학부(정밀응용화학전공, 고분자바이오재료전

- 공, 생명화학공학전공, 유기소재섬유시스템전공)로 명칭 변경
- 04월 2단계 BK21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에서 5개 사업단(메카트로닉스 고급인력양성사업단, 대덕특구연구 에너지환경소재 혁신인력양성사업단, 산/학(연) 네트워크첨단지능부품소재인력양성사업단, 차세대통신인력양성사업단, 차세대 정보기술SW인력양성사업단)과 2개 핵심사업팀(고인성 콘크리트를 활용한 제진구조 시스템 개발팀, 기술융합형 산업용 섬유 인력양성팀) 선정
- 05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 주관대학으로 '지능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메카트로닉스인력양성사업단' 선정
- 2009년 03월 건축학부를 건축학과(5년제)와 건축공학과로, 바이오응용화학부를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정밀응용화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로, 전기정보통신공학부의 전기공학전공, 컴퓨터전공,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을 전기정보통신공학부의 전기공학전공, 컴퓨터전공, 전자공학전공, 전파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나노공학부의 나노정보시스템공학전공과 나노소재공학전공을 나노공학부의 재료공학전공과 나노소재공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 공과대학의 공업교육학부를 사범대학으로 분리
- 04월 WCU사업 주관대학으로 나노바이오융합기술연구소에서 나노소재기반바이오의료진단기술에 관한 WCU사업 선정
- 2010년 02월 공과대학 행정실을 공과대학·분석과학기술대학원·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명칭변경
- 03월 토목환경공학부를 토목공학과와 환경공학과로,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로,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를 항공우주공학과와 선박해양공학과로, 나노공학부를 재료공학과와 나노소재공학과로, 전기정보통신공학부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로 명칭변경
- 07월 대학원 석사과정에 건축학과 신설
- 2011년 10월 대학원 차세대기관전자회로학과(계약학과) 삼성전기(주)-충남대학교 MOU체결
- 2013년 03월 차세대회로기관연구소 신설
- 2014년 02월 사회기반시설기술연구소 신설
- 11월 대학원 타이어기술공학과(계약학과) 한국타이어(주)-충남대학교 MOU체결
- 2015년 03월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기계공학부로,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를 전파정보통신공학과로, 나노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를 신소재공학과로, 화학공학과, 정밀응용화학과를 응용화학공학과로 통합 개편

- 2016년 03월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를 유기재료공학과로 통합 개편
- 2019년 03월 컴퓨터공학과에서 컴퓨터융합학부로 모집단위 명칭 변경
- 2020년 03월 대학원 일반과정 석사학위과정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유기소재·섬유시스템 공학 전공)를 유기응용재료공학과(유기응용재료공학과 전공)로 명칭 변경
- 09월 대학원 일반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응용화학공학과(화학바이오융합소재 전공) 폐지, 응용화학공학과(융합화학소재공학 전공) 신설, 화학생물공학과(화학바이오융합소재 전공) 신설,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를 폐지하고 전자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분리 신설, 대학원학과간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환경IT융합공학과(환경IT 융합 전공) 신설
- 2021년 03월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신설

2. 공과대학의 현황

1) 조직도(학과, 부속기관, 연구소 포함)



[그림 31] 공과대학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197〉 공과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건 축 공 학 과	5	2	34	59	32	55		180	8	8
건 축 학 과 (5)	7	1	34	48	44	42	54	222	5	3
고 분 자 공 학 과					1	12		13	6	22
기 계 · 기 계 설 계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		1		
기 계 공 학 과						20		20		
기 계 공 학 부	20	4	134	248	140	137		659		
기 계 설 계 공 학 과					1	7		8		
나 노 소 재 공 학 과					1	5		6		
메카트로닉스공학과	9	1	48	95	44	46		233	7	18
바이오SI융합학과									8	47
선 박 해 양 공 학 과	6	1	48	70	40	72		230	10	18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40					40		
신 소 재 공 학 과	19	3	91	159	100	111		461	30	47
유 기 소 재 · 섬유시스템공학과					4	14		18		
유기응용재료공학과	5								4	27
유 기 재 료 공 학 과	10	3	90	145	87	98		420		
응 용 화 학 공 학 과	20	3	102	150	107	133		492	24	67
인 공 지 능 학 과	4		39					39		
자율운행시스템공학과	2		30					30		
재 료 공 학 과					1	3		4	32	60
전 기 공 학 과	8	2	55	112	67	95		329	23	63
전기정보통신공학부						3		3		
전 자 공 학 과	14	2	66	127	80	85		358	13	32
전 자 전 파 정 보 통신 공 학 과									5	10
전 파 공 학 과						6		6		
전파정보통신공학과	16	2	75	146	61	97		379	5	17
정 밀 응 용 화 학 과					1	4		5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	6		7		
컴 퓨 터 공 학 과			2	65	118	201		386	36	91
컴 퓨 터 융 합 학 부	23	4	145	158	71			374		
토 목 공 학 과	11	2	59	97	66	97		319	20	21
항 공 우 주 · 선 박 해 양 공 학 부						1		1		
항 공 우 주 공 학 과	8	1	52	81	53	60		246	15	35
화 학 공 학 과					1	5		6		
환 경 IT 융 합 공 학 과									5	15
환 경 공 학 과	7	1	47	72	41	64		224	6	14
공 학 교 육 혁 신 센 터		2								
총 계	194	34	1,191	1,832	1,162	1,480	54	5,719	262	615

3) 학과별 역사

Ⅰ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생활과 이를 수용하는 조형적인 공간을 이해하여 기능적이고 안전한 공간창출을 위한 제반 건축물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1952년 5월 25일 독립 충남대학교와 함께 설치되었다. 1977년 공과대학이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문교육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건축공학과가 건축공학교육학과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83년 공과대학에 다시 건축공학과를 설립하여 실무에 경쟁력을 가진 전문 건축인을 배출하여 오다가 1999년 건축·환경·토목의 건설공학부로의 통합되었으며, 2004년 모집단위를 건축학부(건축학, 건축공학)로 전공별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어 왔다. 2009년부터는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의 분리모집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건축공학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최고의 전문지식 및 소양을 갖춘 엔지니어로 육성하고자 한다. 건축공학도로서의 인재상은 창의적 사고를 통한 공학설계 능력과 전문기술 경쟁력, 사회결속 및 해결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과 공헌을 실천하는 인재로 삼고 있다.

졸업 후 국내·외 대학원 진학, 건축구조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건설기술관련 연구소, 관련분야 관공서 및 국영기업 등으로 진출하며,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콘크리트기사, 건축사, 기술

계사무소 취업 등 다양한 건축 관련 분야로 진출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건축학과에서 운영 중인 대학원은 2011년 3월과 2016년 9월에 각각 건축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단일 전공으로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응용학문과 학술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Ⅰ 토목공학과

세계화와 정보화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희구하는 인류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학의 기본지식을 갖춘 창의적인 토목공학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토목공학과는 1971년 3월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내에 개설되었다. 1976년 12월 공과대학이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되면서 토목공학과에서 토목교육공학과로 학과명이 바뀌었으며, 공업교육대학이 공업교육학부와 일반공학부로 분리되면서 1983년 3월 토목교육공학과와 더불어 토목공학과가 개설되었고, 2004년 3월 모집단위를 변경한 토목공학교육과는 2009년 3월 사범대학 건설공학교육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현재와 같은 토목공학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토목공학과 교육목표는 ‘합리적인 사고와 바른 인성 및 리더십을 갖춘 전인적 기본 소양 교육’, ‘실험·실습·설계를 통한 창의적 시스템 설계 능력 배양’, ‘유연한 사고로 현장적응력과 신기술 습득능력 배양’, ‘정보화와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전문 토목기술 교육’으로, 이에 부합하는 토목공학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부, 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세부전공으로는 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공간정보공학, 건설관리학 등의 분야가 있다. 구조공학은 구조물을 해석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고, 구조물의 설계 및 새로운 구조재료 개발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수공학은 수공 구조물에 대한 수공학적 해석과 수자원에 대한 양적, 질적 측면의 공급, 관리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지반공학은 다양한 지층이나 암반의 특성을 연구, 조사하고 지반 및 암반의 거동을 공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토목 구조물의 기초안정성과 적절한 토지개발에 관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이다. 공간정보공학은 3차원 측위시스템이나 사진측량 및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국토계획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지형정보를 획득, 분석하는 분야이며, 건설관리학은 각종 관리,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건설의 효율성 제고와 자동화, 정보화를 통한 건설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졸업 후에는 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정부기관(국토교통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개발원, 교통연구원 등)의 연구원 및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실행하는 국영기업체(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외 건설사 및 용역업체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재에 이르고 있다. 대학원은 1976년, 1979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였고,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와 산업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를 운영하며 학술연구를 심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기계공학부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지식을 선도하고 진취적 정신과 환경 친화력을 갖춘 다학제적 사고와 융합형 사고를 통해 스스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기계공학의 기초이론을 강의와 실험실습을 통하여 숙지시킴으로써 장래 기계공학분야와 그 관련분야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기계공학은 현대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학문이다.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수송 기계 뿐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각종 열기관들, 또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각종 공작기계 및 특수 가공 기계들, 로봇 및 최근의 지능형 기계 등도 모두 기계공학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 분야이다.

기계공학부의 교육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기초과학, 공학기초 및 정보기술의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배양한다. 둘째, 공학실무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요구조건에 맞는 시스템 및 공정을 설계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 배양한다. 셋째, 지식과 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 배양한다. 넷째, 전문 직업인으로서 도덕적 사고, 시사적 관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솔력 배양한다.

기계공학부에서는 기초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문 교양과 MSC(Mathematics, Science, and Computer)교과를 기초 학문으로 배우며, 융합생산, 구조 설계 및 제어 및 열유체 분야 등 기계공학 전분야에 걸쳐 실무 역량과 함께 전문 기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수업들을 배운다.

졸업 후 기계·자동차·항공우주·엔지니어링·조선·발전·제철·전자·건설·중공업 분야의 산업체, 각종 공공기관(공무원, 공사, 공단), 인근의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하여 각종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는 기계공학(Mechanics)과 전자공학(Electronics)의 합성어로 컴퓨터제어 및 정보처리기술 등의 전자정보통신공학에서 발전시킨 기술을 기계시스템에 적용하여 융합시스템을 설계하는 고급 기술이며 이러한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1992년

한 교육 및 연구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은 1988년 3월과 1990년 3월에 각각 선박해양공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전문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시스템 공학적 특성에 맞게 2021년 3월에는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설립의 모태가 되었으며, 학내 새로운 기술분야 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 갈 인재양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Ⅰ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산업은 연구개발형의 고부가 사업으로서 산업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항공 우주공학 개발의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의 성장이 자국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국가 전략사업으로 항공우주분야를 육성하려는 계획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이러한 국가 전략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 연구 개발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내의 본과는 이와 같은 시기적, 위치적 상황에 대처하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 기술 인력과 항공우주공학의 발전에 기여할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신설되었다.

항공우주공학은 여객기, 전투기, 헬리콥터, 미사일, 무인기 등의 대기권 비행체와 인공위성 및 발사체와 같은 우주 비행체의 설계/해석/제작/운용에 필요한 물리적 현상의 이해 및 분석과 관련된 학문이다. 항공우주산업은 연구개발형의 고부가가치 시스템종합산업이고 국내에서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전투기, 헬리콥터, 인공위성, 로켓 등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체계종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체, 연구소, 항공우주관련 중소형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중견전문기술인력의 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현장밀착형 학부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원 석박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항공우주공학은 우리 인류의 오랜 꿈이자 영원한 지향점인 하늘과 우주로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학문으로서,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인재는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지녀야 하고, 여러 분야의 기술을 종합하는 항공우주공학의 시스템 통합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는 협동심과 외국어 능력을 포함하는 소통 능력도 요구된다.

종합적인 현장밀착형 학부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공학분야에 대한 학습과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종합분석능력과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학과 고체/유체/열/동역학 등의 기본역학을 기초로 하여 공기역학, 구조/진동, 추진/연소, 비행제어 등의 전공과목에 대한 이론교육/실험실습이 제공되며,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구체

치하였으며, 2007년 3월 두 개 학과를 신소재공학과로 통합하였다.

우리 대학원 과정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재료의 개발 및 응용에 관하여 연구하며, 재료의 기존 특성을 개선하거나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재료들을 개발하는 공학분야이다. 졸업 후 각종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각 기업체 연구소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Ⅰ 유기재료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는 공과대학내 고분자공학과(1987년 설립)와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1954년 설립)가 통합하여 2016년도에 신설되었으며, 현재 전임교수 15명, 학부생 370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88명이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기재료공학과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석유화학재료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에너지환경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등의 첨단 융합기술에 필요한 기능성 유기재료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창의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원에는 고분자공학과(석·박사과정)와 유기응용재료공학과(석·박사과정)가 있다. 대학원 유기응용재료공학과는 2006년 이래로 연속 15년간 BK21 사업에 선정되어 우수한 대학원생 배출에 힘쓰고 있으며 충남대학교 자체 학문분야에서 전체학과 대상 1회, 최우수상 2회, 우수상 4회를 수상한바 있다.

유기재료공학과는 미래 지식사회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기본 소양을 갖춘 유기재료 분야의 인재양성과 유기재료 공학에 필요한 이론, 실험, 설계 및 응용방법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력이 풍부한 공학도 양성, 그리고 유기재료 및 화학소재 산업의 현실과 미래 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형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있다.

유기재료공학과에서 전문가 양성으로 하는 섬유 고분자 소재는 20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공업화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소재로 현대 화학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기소재 생산량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에 달하는 중요한 산업분야로서 화학제품과 관련된 모든 기업체 및 기업체 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유기재료 및 화학공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국가의 산업 혁신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부과정 후에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해외 유학을 통해서 석박사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학부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 후에는 유기소재를 다루는 화학 관련 대기업 및 외국기업, 국책 연구소, 정부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다.

졸업 후에 주요 진출분야 기업체는 LG그룹계열사, 삼성그룹계열사, 효성그룹계열사, 두산그룹계열사, SK그룹계열사, 한화그룹계열사, 롯데그룹계열사, 코오롱그룹계열사, 한국타이어, 태

본 학과에서는 화학공학의 기초이론과 실제 응용 능력을 갖춘 우수인재의 양성과 더불어, 21세기 산업을 선도해 나아갈 IT(정보기술), BT(생물공학), NT(나노기술), ET(에너지화학/환경공학) 분야에 새롭게 화학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차세대 화학소재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표면처리기술, 재활용기술, 신에너지기술, 전기화학기술, 바이오산업기술의 교육 및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응용화학공학과는 60여 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동안 약 4,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왔고, 화학공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응용화학공학과는 그동안 이루어 놓은 우리 학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급변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로서 화학공학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아갈 것이다.

Ⅰ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는 1975년 3월에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내에 신설되었다. 모든 공학 분야의 학문적 바탕이 되고, 발전하는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에 그 목적을 두고 개설되었다. 희망성쇠를 거듭하는 타 분야와는 달리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전기공학의 참여 없이는 어떤 분야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기공학 분야에 늘 우수한 인재가 모여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만 한다.

전기공학 분야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 전송, 저장을 위하여 컴퓨터 활용 및 시스템 제어, 전력용 반도체를 활용한 응용기술, 전자기이론을 기반의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전기공학은 현대 사회의 안전, 행정, 산업 경제 등에 필수적인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기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응용, 저공해 환경 설비 개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지능형 첨단수송기기 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인공지능, 신소재 등 다양한 주변 학문과 융합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공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전기공학 분야의 기술 수준이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기공학 분야의 미래는 매우 밝다 할 수 있다.

전기공학과는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BK21 사업 등 여러 국가연구과제 및 수많은 산업체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하여 왔고 우수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충남대학교 학문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연구 분야 및 강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원은 1979년 3월과 1988년 3월에는 각각 전기공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Ⅰ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는 기술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3월에 전파공학과(1993년 개설)와 정보통신공학과(1992년 개설)가 통합하여 설립한 학과이다.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도전 정신이 충만한 학생, 전파정보통신 분야에 열정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 성실하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줄 아는 학생, 동료/친구들과 협동할 줄 알고,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학생,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학생,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을 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대학원은 1998년과 2000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과 박사과정(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을 설치하였으며, 급변하는 기술에 대처하기 위해 2006년에 일반대학원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로, 2020년 9월에는 일반대학원 전파정보통신공학과로 개편하였다.

구체적인 전공 내용으로는 전파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정보통신시스템, 컴퓨터시스템이 있다. 전파공학은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를 활용하는 제반 연구 분야를 다루는 학문으로 이동통신(LTE, 5G NR), 위성통신(무궁화위성, 아리랑 위성, 우리별위성), 군용통신(Radar) 등에서 많이 응용되며 미래 정보사회의 첨단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차세대 인터넷과 이동 통신망, 인터넷 성능 분석 및 설계, IoT와 네트워크 보안 관련 기술을 연구하며, 정보통신시스템은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접속 기술(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무선 랜, 5G New Radio 등), 지능형 항법 시스템(Navigation), 통신 시스템을 위한 신호처리 및 초고주파 회로 설계기술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시스템은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및 Big Data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전파정보통신공학과는 학생들이 급변하는 기술 흐름에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파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21세기에 각광 받고 있는 무선통신과 정보통신 분야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술들을 교육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핵심인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에는 대기업(삼성, LG, SK, 현대, 한화, KT, 포스코 등)과 벤처기업(세트렉아이, 투루임, 파인텔레콤, KTG, 네오플 등) 및 각종 공기업 및 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BS, MBC,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전파정보통신공학과는 학부 1단계 BK사업, 대학원 2단계 BK사업, 전파인력양성사업, Next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무선통신 정밀기기부품 기반연계 고도화 특성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특화산업인 무선통신융합산업을 활용한 수요기반형 기술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주도 무선통신 메카를 조성하고자 연구하

고 있다. 2021년부터는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사업으로 미래 이동수단인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분야 소재·부품·장비, 정보통신기술(CT)에서의 핵심 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Ⅰ 컴퓨터융합학부

컴퓨터융합학부는 1978년 3월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내에 신설된 계산통계학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1986년 3월에 공과대학 내에 전자계산기공학과가 신설되었고, 1987년에는 계산통계학과가 전산학과와 통계학과로 분리되었다. 1990년에는 전자계산기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4년에는 자연대학 전산학과가 컴퓨터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자연대학 소속이던 컴퓨터과학과와 공과대학 소속이던 컴퓨터공학과는 2000년 3월에 이르러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와 통합하면서 정보통신공학부로 개편되었다. 2010년 3월에 전기정보통신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과로 모집단위가 분리되면서 컴퓨터과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통합된 별도의 학과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2019년에는 여타 학과와의 융합 및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자 컴퓨터공학과에서 컴퓨터융합학부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21년에는 학부 내에 자매학과인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컴퓨터융합학부는 올바른 가치관과 도전 의식을 가진 컴퓨터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세부 전공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컴퓨터 설계와 SW 개발, 정보보호 기술, 동영상/그래픽 멀티미디어 처리, 미래인터넷 및 웹 기술 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다.

컴퓨터융합학부에서 배우는 미래 SW 기술은 전자, 항공우주, 자동차, 조선, 로봇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심리학, 언어학, 문헌정보학 등 여러 분야와 융합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므로 졸업 후에는 각 응용 분야에서 SW 엔지니어, 연구원, 학자, 교수 등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취업 내용을 보면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 통신회사, 포탈업체, SI 업체, 게임업체, 은행, 보안업체, 우주항공 업체, 국방업체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2015년에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하는 대학SW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인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의 주관학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다시 2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AI for Everything 실현을 위한 ABC(AI, Basic, Convergence)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컴퓨터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전공교육,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미국대학 파견 프로그램, 해외 기업 현지 인턴십, 전교생 SW교육 강화, 융복합 연계전공 운영, 지역사회 SW교육 확산 등 대

전 충청권 SW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학원은 1981년 3월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에 계산학전공의 석사과정과 1988년 3월에 자연과학대학 전산학과에 박사과정이 신설되었으며, 1990년 3월에는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석사과정과 1994년 3월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이후 2004년 3월에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학과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와의 대학원 과정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로 통합하게 되었고, 규모가 커진 대학원은 ‘네트워크 및 보안 전공’, ‘인공지능 전공’,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공’과 같이 3개의 전공으로 분리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 대학원은 4단계 BK21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온디바이스 AI를 선도하는 글로벌 SW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SW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리더급 SW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의 핵심 특성인 개방형을 핵심 키워드로 교육, 연구, 국제화, 산학협력 분야의 핵심 추진 전략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탁월한 학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는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2021학년도 신설된 학과로 건축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시대의 통섭적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 인재, 미래도시의 문제를 예측, 해결할 수 있는 융합 역량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 실무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건축공학에서는 첨단기술 내재 시설물 및 스마트시티 산업과 관련한 것을 다루고, 공학기초, 건축재료·시공, 건축구조 분야의 융합적인 교육을 통해 스마트시티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학기초, 인공지능,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 계획 등 건축구조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인턴십, 리빙랩 캡스톤디자인 등 교과목을 통해 지자체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외부전문가로부터의 현장중심 교육을 이수한다.

졸업 후 국내·외 대학원 진학, 건축구조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건설기술관련 연구소, 관련분야 관공서 및 국영기업 등으로 진출하며,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콘크리트기사, 건축사, 기술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는 2021년 신설된 첨단학과로,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수송시스템 분야의 디지털트윈 기반 융복합 교육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운항시스템공학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등 우리나라의 13대 혁신 성장동력 분야와 친환경 스

치를 증대할 수 있는 스마트 정밀축산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AI 생명·약학 전공에서는 신약 및 보건, 환경, 기초생물학분야의 약학과, 생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와 인공지능 분야 컴퓨터융합학부의 역량을 융합하여 신약개발, 유전체 분석, 유용 유전자와 바이오마커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다. AI 식물바이오 전공의 경우 고부가성 식물생산 및 스마트팜 분야의 원예학과와 인공지능 분야 컴퓨터융합학부의 역량을 결합하여 건강한 미래 식품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바이오AI융합학과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Seek), 재정의(Re-Define)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조화롭게(Ensemble) 소통 및 협업(Communication & Collaboration)함으로써 현장의 실제 문제(Application)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산업에 기여(Help)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SEARCH (Seek, Ensemble, Application, Re-Definition, Communication, Help)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바이오와 AI 융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AI 기초와 응용 능력에 출중하면서도 적용 영역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융합-심화과정을 교육한다. 또한,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산학공동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대학원 재학 중에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에는 바이오 인공지능 융합 분야의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4) 역대 학장

〈표 198〉 공과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최재갑	공과대학	1954.05.01. ~ 1960.11.24.
제2대	최삼식	섬유공학과	1960.11.25. ~ 1962.05.13.
제3대	육종철	전기공학과	1962.05.14. ~ 1963.04.17.
제4대	임천구	건축공학과	1963.04.18. ~ 1965.12.31.
제5대	이창갑	건축공학과	1966.01.01. ~ 1969.03.24.
제6대	임흥빈	화학공학과	1969.04.09. ~ 1972.01.17.
제7대	홍원표	화학공학과	1972.01.17. ~ 1975.03.10.
제8대	송주호	섬유공학과	1975.03.10. ~ 1977.03.09.
제9대	김영전	기계공학과	1977.05.03. ~ 1980.04.07.
제10대	맹기석	화학공학과	1980.04.07. ~ 1982.04.06.
제11대	이정민	섬유공학과	1982.04.07. ~ 1984.04.06.
제12대	이정민	섬유공학과	1984.04.07. ~ 1986.04.06.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3대	윤석천	건축공학과	1986.04.07. ~ 1988.04.06.
제14대	옹장우	기계설계공학과	1988.04.07. ~ 1990.04.06.
제15대	이보성	화학공학과	1990.04.07. ~ 1992.04.06.
제16대	정수영	건축공학과	1992.04.07. ~ 1994.04.06.
제17대	김태균	컴퓨터공학과	1994.03.01. ~ 1995.03.31.
제18대	이은용	전기공학과	1995.04.01. ~ 1997.02.28.
제19대	천병선	신소재공학과	1997.03.01. ~ 1999.02.28.
제20대	강이석	기계공학부	1999.03.01. ~ 2001.02.28.
제21대	주혁중	고분자공학과	2001.03.01. ~ 2003.02.28.
제22대	강준목	토목공학과	2003.03.01. ~ 2005.02.28.
제23대	김대영	정보통신공학과	2005.03.01. ~ 2007.01.31.
제24대	강 용	응용화학공학과	2007.02.01. ~ 2009.01.31.
제25대	김형태	선박해양공학과	2009.02.01. ~ 2011.01.31.
제26대	김용환	기계공학부	2011.02.01. ~ 2013.01.31.
제27대	김형일	응용화학공학과	2013.02.01. ~ 2015.01.31.
제28대	서동일	환경공학과	2015.02.01. ~ 2017.01.31.
제29대	이진숙	건축공학과	2017.02.01. ~ 2019.01.31.
제30대	최 훈	컴퓨터융합학부	2019.02.01. ~ 2021.01.31.
제31대	김규용	건축공학과	2021.02.01. ~ 현재

3. 공과대학의 미래

공과대학의 비전 및 발전 전략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STEM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5대 분야(교육, 연구, 산학협력, 취·창업 교육, 국제화)를 혁신하고자 한다.

(1) 교육 과정 유연화 및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분야 혁신

4차 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공학교육 체계 개발을 통한 3차원 학부교육 선진화 모델을 구축한다. 선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학사제도 및 교수학습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융복합 공학교육시스템 구축과 성과평가 시스템을 강화한다. 상보적, 개방적, 다면적, 전문적, 상시적인 학생 지도 등 학생 중심의 학생 지도 모델 구축한다.

(2)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지원 강화를 통한 연구 분야 혁신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입교원 초기 정착 지원 및 재직교원의 연구력 증진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대학원생 유치, 연구전담 교수 및 박사후 연구원을 증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창의·융복합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연구지원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박사급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우수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한 포상제도를 확충하며 공과대학 부설연구소 활성화를 지원한다. 연구성과 확산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프로그램 및 연구비 확충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성과 전주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우수 대학원생 유치 및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

(3) 지역 상생형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분야 혁신

수요지향적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맞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계 친화형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취·창업을 증대한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유도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가족회사와의 유기적 관계 확대를 통한 산학협력 및 취업을 활성화하고, 학부생 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 확대한다.

(4)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는 취업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취·창업 분야 혁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진로지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전공별·학년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교과목을 운영하고, 경진대회·기업탐방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취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우수 강소기업에 대한 학생인식을 개선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전·충청·세종)의 전략사업과 연계한 취업 전략을 추진한다. 다양한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인턴십 및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미국, 동남아시아, 호주, 영국 등 자체 발굴 기업체를 관리하고 교류를 확대한다.

(5) 해외 우수자원 유치 및 학생의 국제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화 및 대외협력 분야 혁신

유학생 친화형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교육에 기반하여 외국인 학생을 교육 및 지원하고, 아시아권국제교류협력센터를 통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학생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지역 외 동남아, 일본,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역사**

1. 농업생명과학대학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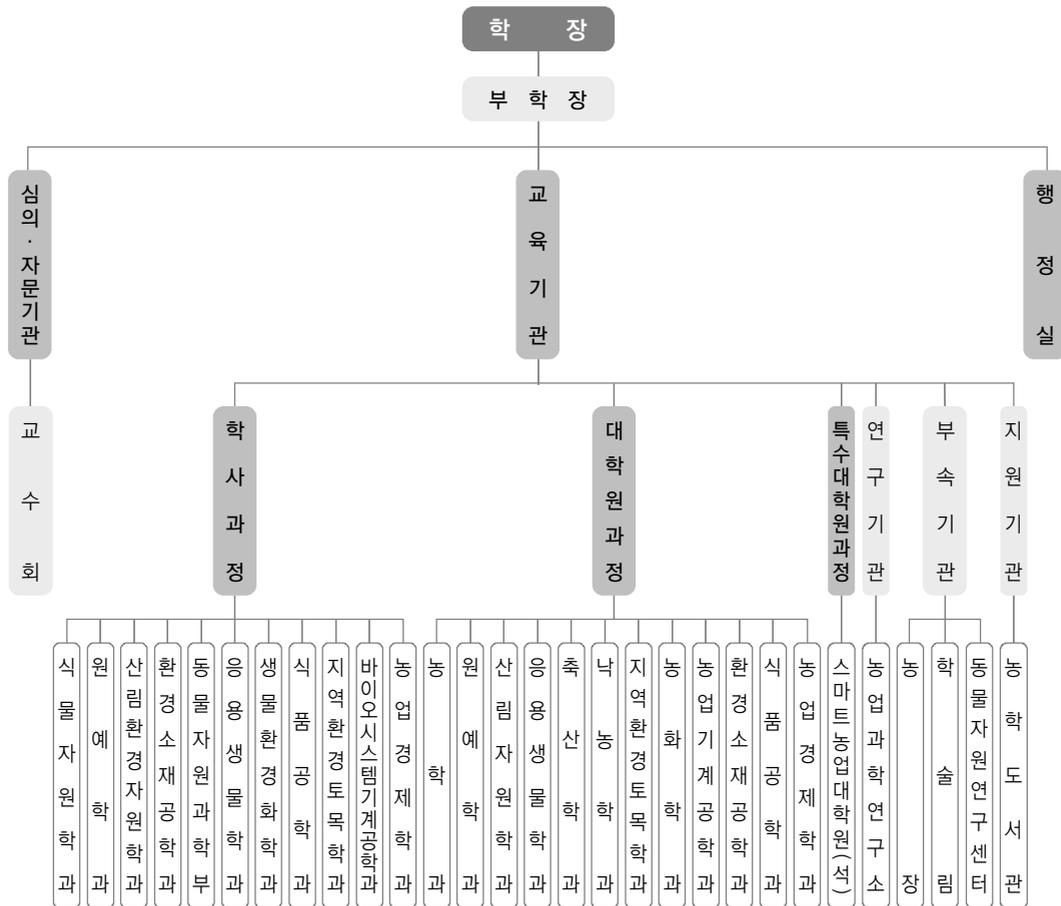
- 1952년 05월 독립 충남대학교 설립인가 농과대학(농학과, 농업토목학과)설립
- 1954년 02월 축산학과 신설
- 1974년 12월 부속농장 설치
- 1957년 04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농학과, 축산학과 신설
- 1958년 04월 부속 동물사육장 설치
- 1959년 01월 농산제조학과 신설
- 1963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농학과, 축산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농업토목학과, 농산제조학과 신설
- 1964년 03월 부속 가축병원 설치
- 1966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농업토목학과, 농산제조학과 신설
- 1971년 02월 농업기술연구소 개소
- 1973년 03월 원예학과 신설
- 1974년 03월 농산제조학과를 농산가공학과로 명칭 변경
- 1975년 03월 임학과 신설
- 09월 부속 연습림 설치
- 1976년 01월 농산가공학과를 식품가공학과로 명칭 변경,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원예학과 신설
- 1977년 12월 농업기계학과, 농생물학과 신설
- 1978년 02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원예학과 신설
- 1979년 01월 낙농학과, 농화학과 신설
- 1980년 03월 농업경제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임학과 신설
- 1981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임학과, 농업기계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낙농학과, 농업기계학과, 농생물학과 신설

- 1982년 03월 수의학과 신설
-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농화학과 신설
- 12월 대덕캠퍼스로 이전
- 1983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농생물학과 신설
- 1985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낙농학과, 농화학과 신설,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농업기계학과를 농업기계공학과로 명칭 변경,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농업경제학과 신설
- 1988년 03월 임산공학과 신설
- 10월 농업기술연구소를 농업과학연구소로 개편
- 1989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의학과 신설
- 06월 부속 가축병원을 부속 동물병원으로 명칭 변경
- 1990년 03월 식품가공학과를 식품공학과로 명칭 변경
- 1991년 03월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식품가공학과를 식품공학과로 명칭 변경,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임산공학과 신설, 수의학과와 부속 동물병원이 수의과대학으로 소속 변경
- 1992년 02월 선경그룹(현 SK)이 충북 영동 및 충주의 임지 1,006ha 기증
-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농업경제학과 신설,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명칭 변경
- 1994년 03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설
- 1995년 03월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명칭 변경
- 1996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임산공학과 신설
- 1997년 03월 농학과와 원예학과를 식물자원학부로 통합 개편, 산림자원학과와 임산공학과를 환경임산자원학부로 통합 개편, 축산학과와 낙농학과를 동물자원학부로 통합 개편, 농생물학과와 농화학과를 응용생물화학부로 통합 개편
- 11월 첨단 유리온실 및 환경조절실험축사 신축
- 1998년 11월 농업과학기술센터 신축
- 1999년 03월 응용생물화학부와 식품공학과를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로 통합 개편, 농공학과와 농업기계공학과를 농공·농업기계공학부로 통합 개편
- 2000년 03월 농공·농업기계공학부를 농업공학부로 명칭 변경
- 2001년 02월 농업생명공학관 준공
- 09월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

- 2002년 03월 식물자원학부 농학전공을 작물생산과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03월 농업공학부(농업토목전공, 농업기계전공)를 생물자원공학부(지역환경토목전공, 생물산업기계전공)로 명칭 변경
- 2005년 03월 포장공학과 신설, 동물자원학부(축산학전공, 낙농학전공)를 동물자원과학부(동물자원생명과학전공, 낙농산업과학전공)로 명칭 변경
 - 05월 부속 연습림을 부속 학술림으로 명칭 변경
- 2006년 03월 포장공학과 폐지
 - 08월 영동학술림 관리사 신축
- 2007년 03월 식물자원학부 작물생산과학전공을 작물과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 2009년 02월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유치
 - 07월 부속 동물사육장 이전(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 충남 청양군 정산면)
- 2010년 03월 식물자원학부를 응용식물학과, 원예학과로 분리 개편
 - 환경임산자원학부를 산림환경자원학과, 환경소재공학과로 분리 개편
 - 동물자원과학부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공학과로 분리 개편
 -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를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로 분리 개편
 - 생물자원공학부를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로 분리 개편
- 2011년 05월 부속 동물사육장을 부속 동물자원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 2015년 03월 동물자원생명과학과와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를 동물자원과학부로 통합 개편
 -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임산공학과를 환경소재공학과로 명칭 변경
- 2018년 03월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농생물학과를 응용생물학과로 명칭 변경
 -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농공학과를 지역환경토목학과로 명칭 변경
- 2019년 03월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에 바이오빅데이터학과(바이오빅데이터와 정밀농업전공) 신설
- 2020년 03월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 스마트농업시스템과학과(스마트농업기계시스템전공, 스마트농업 자원 및 기술전공) 신설
- 2020년 12월 스마트첨단온실 신축
- 2021년 03월 스마트농업대학원(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전공) 설립
 - 05월 충주학술림 관리사 신축

2.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32]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199>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과	교수	조교	학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사	박사	계
식물자원학과	6	2	21	29	26	33	117	6	10	16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원 예 학 과	6	1	24	27	23	40	121	7	3	10
산림자원환경지원학과	7	2	25	25	29	46	134	30	12	42
환경소재공학과	5	1	23	22	22	40	113	5	3	8
응용생물학과	5	2	26	24	21	38	116	11	8	19
동물자원과학부	13	4	42	47	67	74	247	27	34	61
지역환경토목학과	5	2	22	28	22	45	124	11	2	13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6	2	20	22	28	32	110	35	28	63
식품공학과	5	2	27	30	32	44	140	18	4	22
생물환경화학학과	6	1	23	28	23	43	124	10	5	15
농업경제학과	6	1	24	25	30	56	142	3	3	6
총 계	70	20	277	307	323	491	1,488	163	112	275

3) 학과별 역사

Ⅰ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학과는 1952년 충남대학교의 개교와 함께 설립되어 고급인력양성과 연구개발사업에 힘써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인류 복지를 위한 식량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전공하는 학과로 수도작, 약용작물학, 전작, 작물생리, 식물유전학, 작물육종학 등에 관하여 연구하며, 농산물의 품질개량, 생산기술 및 생력 재배 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환경보전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인류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산업에 필요한 식물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 작물의 재배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참된 인성을 가진 인재, 농학 분야에 열정과 목표 의식이 뚜렷한 인재,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가진 인재, 급변하는 사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인재상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동시에, 혁신적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역군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지역 기업체들과의 산학협력교육 실현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함양을 지원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환경친화적 재배기술 연구, 유용 유전자원의 수집 및 평가, 유용 형질 관련 유전자 분석, 인공 교잡, 조직배양 및 생명공학 적 기법을 이용한 고생산성, 고품질, 병해충저항성, 그리고 저투입 지속적 농업을 위한 새로운 품종과 작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량한 식량, 사료, 약용작물의 지속적인 개량을 위

해 첨단 BT, IT, ET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대학원은 1957년 석사학위과정, 1963년 박사학위과정이 신설되었으며 식물분자유전육종학 실험실, 작물분자생리학실험실, 작물생태학실험실, 작물생리학실험실, 식물빅데이터유전체실험실, 작물유전체육종학실험실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졸업생은 현재 국내·외 주요 대학, 연구기관, 농업기술센터, 검역원 등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정부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도 우리나라 농업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물자원학과는 식물학, 생화학, 유전학, 통계학 등을 학습하여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재배학, 사료작물학, 생태학, 잡초방제학 등과 같은 작물의 재배생산과 관련이 있는 작물학 분야와 작물육종학, 생명과학과 육종, 응용작물육종학과 같이 작물품종개량과 관련이 있는 육종학 분야를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다. 또한 현장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12개의 실험, 실습 교과목을 운영중에 있다.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산하 시험장,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기관, 국립식물검역본부, 국립종자원, KT&G, 인삼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종자 및 종묘회사, 농약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종자(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유기농업기사 등이 있다.

Ⅰ 원예학과

원예학과는 1973년 2월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에서 분리 되어 원예학과로 신설되었다. 1997년 3월 농학과와 원예학과를 식물자원학부로 통합 개편 하였으며 2020년 3월 학과제로 시행되며 원예학과로 분리 개편되며 지금의 학과 모습으로 구성이 되었다. 1976년 1월과 1978년 2월에는 각각 원예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원예학과에서는 수시전형 “ICT 기반 영농창업사업단” 트랙의 주관학과로 학과 교수들이 농생대 5개 학과로 구성된 사업단 교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충남대학교 주요 사업인 LINC+ 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현장중심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이론과 현장적응 교육을 실천하며 충남대학교 대학 평가지표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BK21+ 사업(4단계)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융복합 인재양성 사업단”과 바이오 AI융합연구사업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우수 대학원생 유치와 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다.

원예학과에서는 원예작물에 관한 생리, 생태, 재배기술, 번식 및 육종 등에 관하여 주로 연구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 ‘산림측정 및 경영’, ‘산림재해관리’, ‘산림공학기술 고도화’ 등 스마트임업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 및 체험 중심 수업’, ‘실험 및 실습’ 등의 수업 방식을 통해 현장 적용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산림청 본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한국임업경영인협회, 한국산림기술인협회 등 산림청 공공 및 유관기관이 모두 있는 대전이 ‘산림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는 ‘산림수도학과’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 & 양성에 있어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다.

Ⅰ 환경소재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는 1975년 3월 임학과로 설치되었고, 1984년 3월 임학과 임산가공전공으로 분리된 후, 1988년 3월 임산공학과 신설, 2010년 환경소재공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대학원은 1991년 3월과 1996년 3월에 각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설치되었다.

환경소재공학과는 인재상은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젊은 환경소재공학인」이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소재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환경소재공학과는 화석원료기반의 소재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유래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들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 학과이다.

최근, 탄소중립 2050시대 선언을 통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목재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공으로 미래 지구환경과 인류의 생존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소재로서의 목재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분야로서 크게 탄소중립재료인 목재를 이용한 건축기반의 그린건축공학과 제지·나노소재공학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린건축공학 분야는 크게 4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① 탄소중립재료공학 분야는 목재기반 건축신소재 개발과 공학목재연구와 국산목재기반의 탄소중립에 관한 방법을 연구하며, ② 그린건축구조공학 분야는 경골목조건축, 목재와 다른 첨단 소재들을 접합한 하이브리드 건축구조공학 등을 다룬다. ③ 실내주거환경공학 분야는 목재기반 건축으로 이루어진 주거환경에 대한 성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로서 단열, 실내공기질 및 층간소음 등을 연구하며, ④ 장수명목재환경과학 분야에서는 목조건축의 장수명이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건축용 목재의 방부처리, 목재 문화재의 보존, 방충 등 목조건물의 유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지·나노소재공학분야는 두 개의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⑤ 바이오매스 및 제지

공학 분야에서는 목재 및 비목재 바이오매스자원을 이용한 펄프의 제조, 바이오피이너리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의 제조 및 각종 유기화학물질들의 제조, 첨단제지공정, 기능성을 부여한 특수지제조 등을 다룬다. 포장재료의 50% 이상을 점하는 친환경 포장소재와 고지이용기술은 친환경 과학분야이며, 펄프제지업계의 현장 문제점 개선 및 산업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⑥ 제지가공학 및 셀룰로오스 나노재료분야에서는 지류제품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후처리 기술과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셀룰로오스 나노재료를 제지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소재공학 분야는 목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적이고, 인체친화적이며 재생가능한 소재를 다루는, 2050 탄소중립시대를 대표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목재를 다루는 미래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취업분야 또한 산림 및 목재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체까지 다양한 전공 취업이 가능한 분야이다

Ⅰ 응용생물학과

응용생물학과는 1978년 국가의 현안과제였던 식량자급자족과 선진과학기술의 창출시책에 발맞추어 “병·해충 및 기타 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안정된 식량생산을 도모하고 선진 농업환경연구를 통해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취지로 하여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로 설립되었다. 그 후 “인간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생물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첨단 생명과학의 한 분야로서 자원생물이 갖고 있는 기능을 극대화하고 유용한 생물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시대의 변화와 학문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의 응용생물학과에 이르게 되었다.

기존의 농생물학과에서 1982년 12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후, 2021학년도까지 총 1,292명의 농학사를 배출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물보호 및 유용자원의 재창출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고급인력의 양성이 크게 요구되면서 1983년도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신설함에 있어 “식물병리학”과 “응용곤충학” 분야의 체계를 갖추게 되어 명실공히 완전한 식물보호에 관련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학과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본과의 대학원 과정은 설립초기 응용식물학전공, 식물병리학전공, 응용곤충학전공 등 3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하였으나, 1993년 대학원 전공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식물병리학 및 세포공학 전공과 곤충학 전공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식물병리학전공과 곤충학전공으로 재편성하여 식물보호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본 학과의 대학원 과정에서는 2021년까지 총 300명의 석사와 80명의 박

사를 배출하였고, 배출된 고급인력들은 대학교의 관련학과는 물론이고 식물보호와 생명과학 관련 국·공립 연구소와 기업체 및 이들의 부설연구소에서 각자 맡은 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응용생물학과에는 학사과정 117명, 석사과정 13명, 박사과정 9명의 재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응용생물학과에 속한 주요 연구실로는 곤충생리학 연구실, 식물분자바이러스 연구실, 곤충분류 연구실, 분자식물균병학 연구실, 분자식물세균학 연구실, 곤충분자생물학 연구실이 있으며 다양한 기관 및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식물병원균과 농업해충의 생명현상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고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기법 등을 적용한 생명공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생물학과 및 응용생물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KT&G,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식품개발원 등 국공립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진출하여 후진 양성 및 국가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응용생물학과는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직설치학과 중 유일하게 과학(생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등교사로 진출하였으며, 본교를 비롯한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목원대학교, 환경대학교, 영남대학교, 국립농업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LG, 삼성, 경농, 팜한농, 동방아그로 등 농약, 미생물, 효소, 종묘 등과 관련된 각종 기업체 및 이들 연구소에 진출하여 연구와 농업컨설팅 분야에서 우리 대학의 명예를 빛내고 있다. 특히, 많은 졸업생들이 더 높은 학문의 발전과 선진연구의 습득을 위해 각종 장학금을 수혜하며 외국의 명문대학에 유학하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 내의 많은 연구소와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연구소에 산·학·연 과정으로 많은 졸업생들이 진출하고 있다.

Ⅰ 동물자원과학부

1952년 5월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내에 축산학 전공이 신설되었으며, 1954년 2월 축산학과, 1979년 1월 낙농학과가 설립되었다. 1997년 3월 학부제 도입에 따라 축산학과와 낙농학과를 동물자원학부로 통합하였으며 2005년 3월에는 동물자원생명과학전공과 낙농산업과학전공으로 구성된 동물자원과학부로 개편되었다. 2010년 3월 동물자원생명과학과와 동물바이오시스템과 학과로 분리 개편된 후 2015년 3월 학부제를 다시 도입함에 따라 두 개의 학과는 동물자원과학부로 통합 개편되었다. 우리 학부는 지역 내 산학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축산관련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이크로디그리과정(동물생명산업 데이

터 분석과정)을 2021년 신설하였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축산학과 축산학전공 및 가축번식육종학전공, 낙농학과 낙농자원학전공 및 낙농식품 및 생명과학전공으로 각각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학과가 주관하여 2019년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바이오빅데이터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동물산업에 관한 학술연구를 증진시키고 변화하고 있는 산업IT기술에 따라 그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생들은 교수 및 강사로 활동하거나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핵심인물로서 활동하면서 동물산업의 미래인재 양성 및 우리나라의 동물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발전에 힘쓰고 있다.

동물자원과학분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동물자원과학 연구의 각 분야(육종, 번식, 사양, 영양, 환경, 육·유가공, 유통·경영) 최고 전문가들이 첨단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다원화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교육하고 있다.

본 학부를 졸업한 후에는 축산분야의 행정공무원,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 및 지역연구소, 시·도 농업기술센터 등 국영연구기관, 협동조합, 의학 및 생명공학분야 기관 및 연구소, 대학원 진학, 유가공업체, 육가공업체 및 관련유통회사, 사료회사 및 동물약품 관련업체, 축산시설기자재회사, 경제동물 및 애완동물 관련산업체, 기업경영목장, 사료종자 및 사료원료 무역업체, 동물약품회사, 농업관련 언론사, 종축개량, 육우, 양돈, 양계, 산양, 양록, 유가공, 육가공, 양봉 및 양어 등 각종 동물산업관련협회에 진출할 수 있다.

Ⅰ 지역환경토목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는 1952년 5월25일에 충남대학교 설립인가와 동시에 농업토목학과로 발족하였으며, 1966년에 농공학과, 2004년 생물자원공학부 지역환경토목전공, 2010년 지역환경토목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촌에 공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의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고 쾌적한 농촌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교육하며, 인격향상과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환경토목학과는 1963년과 1966년에 석사와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수리환경 및 자원정보 전공과 구조지반 및 시설공학 전공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환경토목학과에는 농업지반공학 연구실, 시설환경공학 연구실, 농업수자원 연구실, 농촌계획 및 GIS 연구실, 농업토목구조 및 재료 연구실이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토목은 농촌에 공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건설의 창출을 위하여 연구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전공분야로는 ① 댐 저수지, 지하수, 하천생태, 농촌환경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수리구조

공학, 지역환경공학 등을 이수하는 농업수리 및 환경공학분야, ② 농업토목구조물의 구조해석 및 시공분야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조역학, 예코토목시공학 등을 이수하는 농업토목구조 및 재료분야, ③ 간척에 의한 농지 및 국토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지반환경공학, 응용지반공학 등을 이수하는 농지조성분야, ④ 농업시설물의 설계 및 환경 조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농업시설공학, 시설환경공학 등을 이수하는 농업시설공학분야, ⑤ 농업수자원 개발 및 관개배수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계배수공학, 생태수문학 등을 이수하는 농업수리학분야, ⑥ 농어촌의 종합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공간계획, 생태공간정보시스템 등을 이수하는 농촌계획 및 GIS응용분야로 나누어진다.

졸업 전 대부분의 학생이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건설안전기사, 수질환경기사 등도 함께 취득하여 농업토목 및 건설분야에 폭넓게 취업하고 있다. 또한 동문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억 원의 장학기금으로 매학기 학년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농림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설공무원,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 농어촌연구원, 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기타 일반건설회사, 설계회사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Ⅰ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는 1974년 3월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에 농공학과의 농업기계전공으로 설치되어 2010년 3월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학과는 첨단 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시스템(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수확, 가공, 저장 관련 분야와 바이오 및 녹색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시스템)에 필요한 기계, 설비, 시설 및 분석·진단 도구의 설계 및 개발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과로서, 4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융복합 지식을 겸비한 고급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농축산 및 식품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명산업 및 녹색산업에 기여함으로써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기계, 전자, 컴퓨터, 생명공학 등 현대공학의 첨단 기술을 응용하여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수송, 관리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기계, 전자시스템 및 시설 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응용공학을 배운다.

일반대학원 1981년 3월에는 농업기계공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BK21사업의 일반대학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가 신설되어 전공별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졸업생들은 여러 대학에 교수 및 강사요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농업대학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4년

에 설치된 11개학과가 산업공학과로 통합됨에 따라 모집단위가 산업공학과 식량공학전공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4년 3월 모집단위를 다시 학과로 변경하면서 학과명을 식품공학과로 개칭하였다. 산업대학원은 식품산업체에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식품산업기술의 이론과 실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고급기술인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교육한다.

식품공학은 국민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주요한 산업으로서 원료의 확보에서부터 식품의 안전성, 가공식품의 품질, 생산성 향상, 새로운 식품소재의 개발까지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학문이다. 전공분야로는 식품공학분야, 식품화학분야, 식품가공학분야, 식품미생물학분야, 식품위생학분야, 식품생물공학분야 등으로 나누어진다.

졸업 후에는 식품공학 전문가로서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체,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국민 건강과 식품 산업 및 학계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Ⅰ 생물환경화학학과

생물환경화학과는 1979년 3월 문화동 보운캠퍼스에서 “농화학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농화학 관련 산·학·연 분야에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 1982년 대덕캠퍼스로 이전 후 1982년 11월과 1985년 3월에 각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대학 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심화시키고 전공별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특화된 커리큘럼을 완성하여 지금의 학과 모습이 구성되었다. 현재 학과 내에는 농업환경화학실험실, 식물분자생물학실험실, 천연물농약화학실험실, 토양환경미생물학실험실, 토양환경보전실험실, 환경독성화학실험실의 6개 실험실이 있으며, 2022년 2월 기준, 1,168명의 학부 졸업생과 석사 228명, 박사 73명의 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생물환경화학과의 교육 목표는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지식인 양성”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 식량 안보의 위협, 환경 오염 등 농산업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농업의 미래자원 개발,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안전 농산물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생명 과학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 개발,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물질 검정, 식물 유래 기능성 물질 평가 및 활용,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와 유해물질 검정, 식물공장, 농업생태 환경 보전, 환경분석기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토양 환경보전, 천연물 농약화학, 생화학 및 토양미생물학, 식물분자생물학, 농업환경학, 독성화학, 바이오에너지 활용 및 기후변화와 농업 등 미래

관련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 농업과학연구소

농업과학연구소는 농업분야의 기술발전, 정보교류 및 산업발전을 위해 1974년 설립된 대학의 법정연구기관이다. 소장, 연구지원부, 국제교류부, 학술부 그리고 10여 개의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약 70명의 책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교수 등이 있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연구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 학술지 “KJOAS” 4회 발간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한일 4개 대학 심포지엄 개최에서 109편, 중국심양대 학수교류 심포지엄에서 25편, 한중일 20개 대학이 참석한 대학원생 포럼에서 242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국제학술정보를 교류하였으며, 베트남 과기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책임연구원의 단기연수지원, 학생의 취업특강 등 학술발전, 취업증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센터에서 다양한 농업 기술과 연계한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연구소는 농업 전 분야에서 진보된 기술의 개발과 응용, 관련된 연구 분야 간의 공동업무 활성화, 국제 경쟁력 증강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과학기술 교류 촉진을 위해 국제/국내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에서 농업과학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학술지 발행, 토양환경 분석, 연구비 관리 및 구성원들의 공동 연구 업무 관리 등과 같은 연구와 관련된 서비스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외국 자매 대학 간의 교수진과 학생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의 기능은 첨단 생명공학의 농업적 이용, 유기농업 개발에 의한 고품질 식량 및 식품 공급,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기계화, 양질의 축산물 생산, 산림의 유용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농업과학분야의 연구 및 연구 결과 평가’,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에 대한 농업기술 보급 및 농업 정보 서비스’, ‘논문집 및 기타 학술간행물 발간’, ‘학술 연구과제 및 용역사업 연구비 관리’, ‘공동기기실 관리운영’, ‘국제 학술교류사업’,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4) 역대 학장

〈표 200〉 농업생명과학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강진형	농산제조학과	1952.05.25. ~ 1962.02.28.
제2대	최재갑	농공학과	1962.03.01. ~ 1963.02.28.
제3대	최범렬	농학과	1963.03.01. ~ 1963.04.17.
제4대	황봉선	농학과	1963.04.18. ~ 1965.12.31
제5대	박종성	농학과	1966.01.01. ~ 1967.12.31.
제6대	최범렬	농학과	1968.01.01. ~ 1970.01.15.
제7대	라광연	축산학과	1970.01.16. ~ 1971.02.03.
제8대	강신업	농공학과	1971.02.04. ~ 1972.01.17.
제9대	민병섭	농공학과	1972.01.18. ~ 1974.04.11.
제10대	김영래	원예학과	1974.04.12. ~ 1976.04.11.
제11대	박운중	식품가공학과	1976.04.12. ~ 1978.04.11.
제12대	강신업	농공학과	1978.04.12. ~ 1980.04.11.
제13대	최창열	농학과	1980.04.12. ~ 1982.04.11.
제14대	김문규	농화학과	1982.04.12. ~ 1984.04.11.
제15대	김문규	농화학과	1984.04.12. ~ 1986.04.11.
제16대	김성렬	식품가공학과	1986.04.01. ~ 1988.04.11.
제17대	김성래	농업기계공학과	1988.05.01. ~ 1990.04.30.
제18대	김찬조	식품공학과	1990.05.01. ~ 1992.04.30.
제19대	김종우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1992.05.01. ~ 1994.04.30.
제20대	한성욱	동물자원생명과학과	1994.05.01. ~ 1996.04.30.
제21대	이재창	원예학과	1996.05.01. ~ 1998.04.30.
제22대	이규승	동물자원과학부	1998.05.01. ~ 2000.04.30.
제23대	최우영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2000.05.01. ~ 2002.04.30.
제24대	박창식	동물자원과학부	2002.05.01. ~ 2004.04.30.
제25대	김태철	지역환경토목학과	2004.05.01. ~ 2006.04.30.
제26대	구자형	원예학과	2006.05.01. ~ 2008.02.28.
제27대	권용대	농업경제학과	2008.03.01. ~ 2010.02.28.
제28대	강호양	환경소재공학과	2010.03.01. ~ 2012.01.31.
제29대	임용표	원예학과	2012.03.01. ~ 2014.01.31.
제30대	유용만	응용생물학과	2014.02.01. ~ 2016.01.31.
제31대	김세빈	산림환경자원학과	2016.03.08. ~ 2018.02.28.
제32대	진동일	동물자원과학부	2018.03.01. ~ 2020.02.29.
제33대	최종명	원예학과	2020.03.01. ~ 2022.02.28.
제34대	김대식	지역환경토목학과	2022.03.01. ~ 현재

3.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미래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농업생명과학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 50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생명 융합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가치창출의 최우수 선도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는데 3대 교육목표의 핵심은 4차산업시대, 융복합시대에 부합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3대 교육목표(3C)는 융합(Convergence), 혁신(Challenge), 소통(Collaboration)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창의융합 전문형 인재, 미래혁신 주도형 인재, 개방 공유 소통형 인재를 양성한다. 창의융합 전문형 인제는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융합 전공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공분야의 탄탄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의미하며 미래혁신 주도형 인제는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물결을 주도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또한 개방공유 소통형 인제는 상생, 소통, 협력을 중시하는 인성을 겸비한 리더를 의미한다.

(3) 인재상

농업생명과학대학은 3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SEARCH 인재상을 설정하였다. SEARCH 인재는 폭넓고 균형 잡힌 시야를 가지며, 새로운 문제를 찾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하며 이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Seek), 다양한 전공 분야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 능력을 갖춘 인재(Ensemble),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Application), 융합학문의 관점에서 기존 문제를 재정의 할 수 있는 인재(Re-Definition),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인재(Communication),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Help)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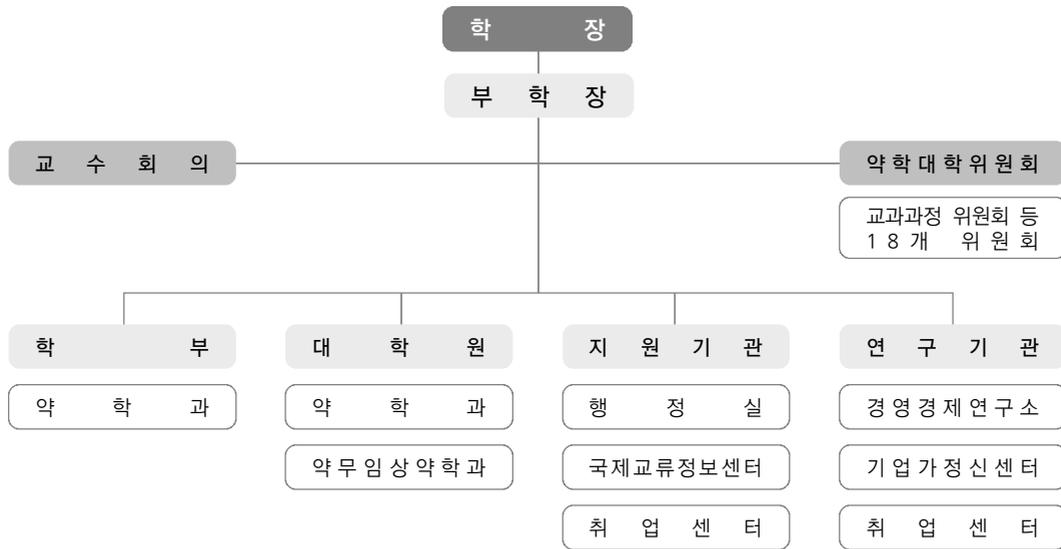
약학대학의 역사

1. 약학대학 연혁

- 1979년 이과대학 약학과(40명) 설립
- 1983년 약사 40인 최초 배출, 대학원 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 1985년 약학과에서 약학대학으로 승격, 대학원 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약학대학 부설 의약품개발연구소 설립
- 1989년 약학과를 약학과와 제약학과로 분리
- 1991년 약학관 준공, 의약품개발연구소 법정화
- 1996년 약초원 및 실습약국 설립, 대학원 제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 1998년 대학원 제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 1999년 약학부로 학제개편
- 2004년 충남대학교 실습약국 개국, 중국 심양약과대학과 교류협력 체결
- 2005년 약초원 관리동 및 약학대학 삼남홀 신축
- 2007년 대학원 약학과 통합
- 2009년 BK21 대형사업단 선정, 대학중점연구소 선정
- 2011년 약학대학 6(2+4)년제 시행, 약무임상약학과 대학원 설립
학문분야평가 최우수상(제약학과), 우수상(약학과) 수상
- 2013년 BK21플러스 사업단 선정, 중앙일보 우수약학대학 선정
충남대 학문분야최우수상(약학과) 수상
-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단 선정, 교육부 특성화우수학과 선정
- 2015년 약학과, 제약학과를 약학과로 통합, 충남대 학문분야 1위 수상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100위권대 진입
- 2017년 기초연구실 사업 선정
- 2018년 약학과 리모델링 착공, 충남대 학문분야 평가 1위 수상
- 2019년 약학과 리모델링 완공, 충남대 학문분야 평가 1위 수상
- 2020년 4단계 BK사업 선정, 충남대 학문분야 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21년 약학교육평가인증획득(2021~2025년), 기초연구실사업 선정
영국 QS 세계대학평가 약학분야 거점국립대 1위
- 2022년 약학대학 통합6년제 시행

2. 약학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33] 약학대학 약학과 행정기구표

2) 전체 현황

〈표 201〉 약학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과	교수	조교	학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사	박사	계
약학과	20	3	0	0	54	52	52	52	210	73
약무임상약학과	-	-	-	-	-	-	-	-	-	7
총계	20	3	0	0	54	52	52	52	210	80

3) 학과별 역사

Ⅰ 약학과

약학대학은 1979년 3월 이과대학(후에 자연과학대로 개명) 내에 약학과의 설립이 인가되어 입학 정원 40명으로 약학교육을 시작, 198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여 1985년 약학대학으로 승격함으로

4) 역대 학장

〈표 202〉 약학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유병태	약학과	1985.03.01 ~ 1987.02.28
제2대	이계주	약학과	1987.03.01 ~ 1989.02.28
제3대	지웅길	약학과	1989.03.23 ~ 1991.03.22
제4대	안병준	약학과	1991.03.23 ~ 1993.03.22
제5대	배기환	약학과	1993.03.23 ~ 1995.03.31
제6대	이순철	약학과	1995.04.01 ~ 1997.02.28
제7대	김봉희	약학과	1997.03.01 ~ 1999.02.28
제8대	정경수	약학과	1999.03.01 ~ 2001.02.28
제9대	명평근	약학과	2001.03.01 ~ 2003.02.28
제10대	장상헌	약학과	2003.03.01 ~ 2005.02.28
제11대	권광일	약학과	2005.03.01 ~ 2007.02.28
제12대	박경래	약학과	2007.03.01 ~ 2009.02.28
제13대	황성주	약학과	2009.03.01 ~ 2011.02.28
제14대	김영호	약학과	2011.03.01 ~ 2013.01.31
제15대	강종성	약학과	2013.02.01 ~ 2015.01.31
제16대	명창선	약학과	2015.02.04 ~ 2017.02.03
제17대	정혜광	약학과	2017.02.04 ~ 2019.01.31
제18대	송규용	약학과	2019.02.01 ~ 2021.01.31
제19대	우선희	약학과	2021.02.01. ~ 현재

3. 약학대학의 미래

약학대학은 한걸음 도약하여 시대변화에 잘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창의 융합 능력 및 전문지식을 잘 갖춘 사명감과 봉사심을 겸비한 미래약사를 양성하는 것을 미션으로, 현장 및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는 교육, 미래 기술과 융합한 전문실무능력 및 평생 학습을 유도하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약학대학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있는 훌륭한 약사를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약학대학을 비전으로 살고 있다.

통합 6년제 시작과 함께 미래 창의 융합형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험 실습, 자기주도적 학습 및 개발, 임상 실무와 문제해결, 소통 능력

- 1984년 10월 보운캠퍼스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 이전
- 1985년 12월 의과대학 보운캠퍼스로 신축 이전
- 1989년 03월 보건대학원 개설
- 1990년 05월 암공동연구소 신설(2007.12. 암연구소로 명칭 변경)
- 1996년 10월 의공학연구소 신설, 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개설
- 1998년 01월 뇌과학연구소 신설
- 09월 의행회관 준공
- 2001년 02월 학생생활관 준공
- 2004년 02월 통합교육과정 도입
- 2006년 03월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21 사업 선정
- 09월 진료실기센터 준공
- 2007년 05월 과학기술부기초의과학연구센터 선정
- 2009년 03월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 대학원 의과학과 개설
- 2010년 03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평가 최상위 등급 인증
- 2011년 06월 컴퓨터기반교육(cbt room) 개소
- 2013년 08월 전임상실험센터 개소
- 09월 의예과 강의동 준공
- 2015년 03월 의과대학 의예과 신설
- 학생생활관 증축
- 2016년 01월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개소
- 2017년 03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학제 전환
- 임상표현교육과정 도입
- 2020년 04월 면역중개연구소 개소

로 인류사회의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다양한 리더십을 가진 의사를 양성함을 목표로 3가지의 교육과정 행동목표(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학교육, 다양성과 전문성의 토대를 제공하는 의학교육, 사회기여의 자질을 함양하는 의학교육)를 달성하기 위해 선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신시설의 증축과 개축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의학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임상 실습의 충분한 실습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인증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인증을 획득하면서 외부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더불어 학제전환을 통한 학과의 신설과 중심을 옮기면서 오랜 시간동안 정체되어 있으면 침체와 현실안주형으로 운영되는 것을 피하고 변화나 트렌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더욱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인류사회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의사양성기관으로서의 임지를 다져가고 있다.

Ⅰ 의예과

“건강사회를 만들 미래 리더들의 창조적 공동체”

의예과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다양한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창조적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의학교육과 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의예과는 의료의 미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능력과 특성을 가진 인재를 존중하고 중시하며, 참여와 협력을 통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한다. 기본 의학과과정의 첫 2년인 의예과과정은 의학 전문성을 보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예과는 2015년 3월에 신설되면서 본과에 비해서 다소 등한시 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본과 진급에 앞서 기초와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신설되면서 예과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집중하고 소속감도 느끼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도 했으며, 한 캠퍼스 안에서 본과 선배들과의 유대감도 증진되고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경우 선배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는 것에도 도움을 받으면서 자칫 경직적인 선·후배 관계나 수직적 구조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도 예방이 되고 있다. 2017년 의과대학으로 학제가 전환되어 교육과정상의 변화도 피하면서 이전보다도 더욱 예과로서의 장점도 증진되고 첫 신설시의 목표 “건강사회를 만들 미래 리더들의 창조적 공동체”가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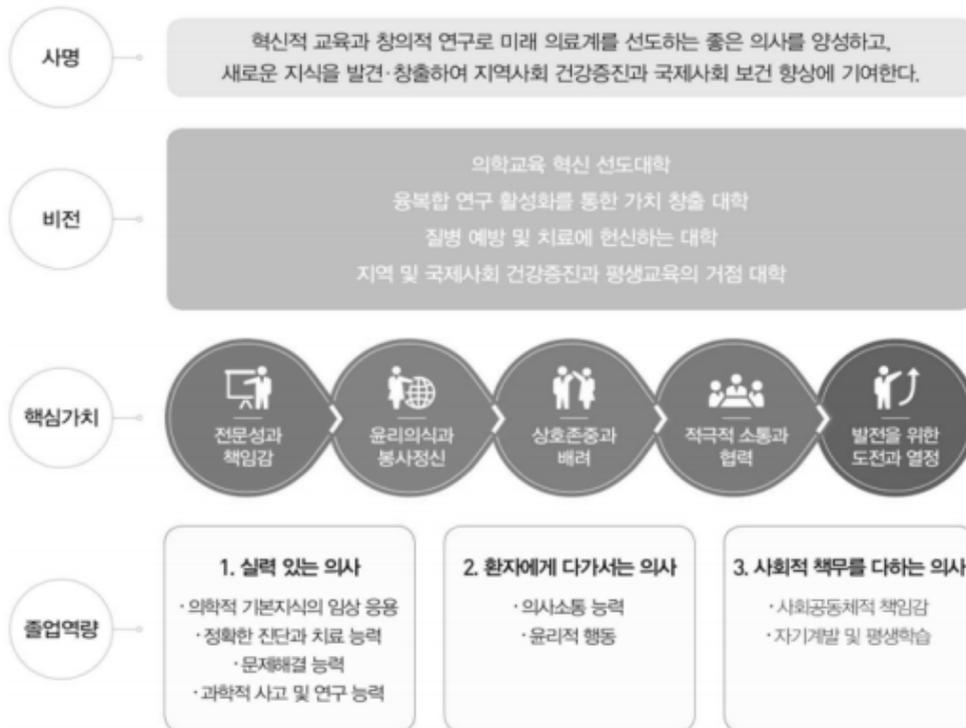
4) 역대 학장

〈표 204〉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역대 학장(원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학장	윤봉헌	의학과	1968.05.15. ~ 1970.07.28.
제2대 학장	이대부	의학과	1970.07.29. ~ 1972.07.29.
제3대 학장	최재규	의학과	1972.07.29. ~ 1973.08.25.
제4대 학장	소주영	의학과	1973.08.25. ~ 1975.03.09.
제5대 학장	이복희	의학과	1975.03.10. ~ 1976.11.11.
제6대 학장	이태숙	의학과	1976.11.12. ~ 1978.11.11.
제7대 학장	심운택	의학과	1978.11.12. ~ 1980.11.11.
제8/9대 학장	손기섭	의학과	1980.11.12. ~ 1984.11.21.
제10/11대 학장	신석철	의학과	1984.11.22. ~ 1988.11.21.
제12대 학장	최세진	의학과	1988.11.22. ~ 1990.11.21.
제13대 학장	배진선	의학과	1990.11.22. ~ 1992.11.21.
제14대 학장	황병두	의학과	1992.11.22. ~ 1994.11.21.
제15대 학장	강대영	의학과	1994.11.22. ~ 1996.11.21.
제16대 학장	이재호	의학과	1996.11.22. ~ 1998.11.21.
제17대 학장	왕성근	의학과	1998.11.22. ~ 2000.11.30.
제18대 학장	이건수	의학과	2000.12.01. ~ 2002.11.30.
제19대 학장	노승무	의학과	2002.12.01. ~ 2004.11.30.
제20대 학장	설종구	의학과	2004.12.01. ~ 2006.11.30.
제21대 학장	이정은	의학과	2006.12.01. ~ 2008.11.30.
제22대 학장 (초대 의전원장)	이충식	의학과(대학원)	2008.12.01. ~ 2011.02.28. (2009.03.01. ~ 2011.02.28.)
제23대 (제2대 의전원장)	최시환	의학과(대학원)	2011.03.01. ~ 2012.12.31.
제24대 (제3대 의전원장)	송민호	의학과(대학원)	2013.01.01. ~ 2015.11.30.
제25대 (제4대 의전원장)	고현송	의학과(대학원)	2015.12.01. ~ 2017.11.30.
제26대 (제5대 의전원장)	김화중	의학과(대학원)	2017.12.01. ~ 2019.11.30.
제27대 (제6대 의전원장)	설지영	의학과(대학원)	2019.12.01. ~ 2021.11.30.
제28대 (제7대 의전원장)	전병화	의학과(대학원)	2021.12.01. ~ 현재

3. 의과대학의 미래

대학의 장기발전(목표, 비전, 사명, 핵심가치) 계획



1) 목표

의과대학은 실력있는 의사, 환자에게 다가서는 의사,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사로서의 졸업 역량을 지니고 혁신적 교육과 창의적 연구로 미래 의료계를 선도하는 좋은의사를 양성하고 신 지식을 발견·창출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국제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하면서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의한 기술과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단순히 질병 치료에 국한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가치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비전

의과대학은 의학교육혁신 선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한 가치 창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헌신, 지역 및 국제사회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의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 윤리의식과 봉사정신, 상호존중과 배려, 적극적 소통과 협력, 발전을 위한 도전과 열정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1) 사명

혁신적 교육과 창의적 연구로 미래 의료계를 선도하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 창출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국제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2) 핵심가치

- 전문성과 책임감(Expertise and accountability)
- 윤리의식과 봉사정신(A code of ethics)
- 상호존중과 배려(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
- 적극적 소통과 협력(Activ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 발전을 위한 도전과 열정(Meeting challenges and a passion for development)

3) 4가지 발전전략 및 12대 전략과제

전략방향	전략과제
교육혁신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의학 교육과정의 선진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 보완 체계화
	학생중심의 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연구-산학 강화	내부인프라와 우호적인 주변 여건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활성화
	학·연·병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보은·세종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충남대 의과대학 강점에 기반한 연구분야 선택과 집중
글로벌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교류&협력 확대
대학운영 혁신	전략적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질적 전략추진을 위한 조직/인사체계 완비
	캠퍼스 확장으로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
	인력운영 효율성과 교수그룹 역량 극대화를 위한 교수 인사관리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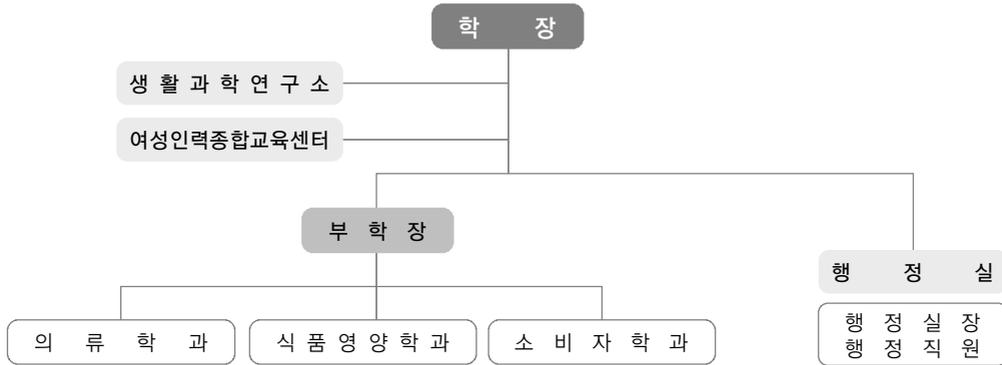
1. 생활과학대학 연혁

- 1975년 03월 문리과대학에 가정학과 신설
- 12월 문리과대학에 가정학과 폐과하고 가정교육과 신설
- 1980년 03월 이과대학에 의류학과 신설
- 1981년 01월 이과대학에 식품영양학과 신설
- 1985년 03월 식품영양학과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설
- 1987년 09월 가정대학부설 생활과학연구소 신설
- 1988년 03월 가정대학 의류학과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설
- 1993년 03월 가정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 신설
- 1996년 03월 가정대학에 가정교육과 폐과하고 소비자·가정관리학과 신설
- 2000년 03월 가정대학에서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변경
- 소비자·가정관리학과에서 소비자생활정보학과로 명칭변경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 2004년 07월 의류학과에 첨단의류기술센터(CIAT) 창설
- 2009년 01월 생활과학대학 신축건물 이전
-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외신산업학과 신설
- 생활과학대학 부설 여성인력종합교육센터 설립
- 2011년 08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
- 2013년 05월 생활과학대학 취업지원센터 설립
- 2018년 03월 소비자생활정보학과에서 소비자학과로 명칭 변경
- 2021년 11월 생활과학연구소 내 군생활문화연구센터 신설

2. 생활과학대학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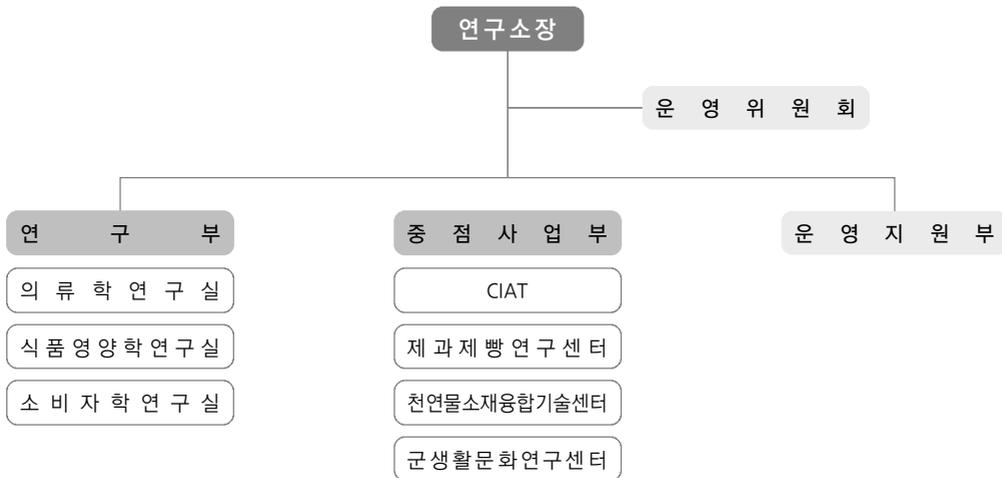
1) 조직도

(1) 생활과학대학



[그림 35] 생활과학대학의 조직도

(2) 생활과학연구소(부설)



[그림 36] 생활과학연구소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205〉 생활과학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의 류 학 과	7	1	36	34	40	74	184	5	7	12
식 품 영 양 학 과	6	1	29	30	31	48	138	15	3	18
소 비 자 학 과	5	1	25	29	30	40	124	7	3	10
총 계	18	3	90	93	101	162	446	27	13	40

3) 학과별 역사

Ⅰ 의류학과

1980년 3월 이과대학 의류학과로 신설되었다. 1987년 이과대학에서 가정대학으로 분리되었고, 2000년 3월 가정대학에서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류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창의성과 융합능력을 보유한 자기진화형 패션인재, 전문성을 갖춘 문제해결형 패션인재, 인내와 협동심을 갖춘 패션인재로서, 의류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의류소재, 패션 트렌드와 시장 분석, 상품 기획, 패션 디자인, 의류 패턴 설계와 평가, 패션 테크놀로지를 교육하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패션 상품을 기획·유통·판매할 실무 능력을 키운다. 의복을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감성적, 기술적, 미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융합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전공 내용으로 의류소재 분야는 섬유와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소재기획 및 가공에 대해 연구하고, 패션디자인 분야는 복식사와 미학적 이해를 통해 다양한 패션디자인 분석과 실습을 하고 있다. 의류설계 및 착의 평가 분야는 3차원 인체를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이해한 후 2차원 패턴 설계와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류를 착용하는 환경, 동작, 감성 등을 종합하여 착의에 대한 평가법을 익힌다. 패션마케팅 및 비즈니스 분야는 소비자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실무중심의 마케팅 및 창업 아이디어를 기르고, 패션 테크놀로지의 경우 패션제조 및 판매 전반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사고와 다양한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각 분야에 적용하는 능력을 익힌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에는 패션디자이너, 머천다이저, 모델리스트, 소재컨버터, 컬러리스트, 테크니컬 디자이너, 3D디자이너, 바이어, 비주얼 머천다이저, 브랜드매니저, 패션정보분석가 및 컨설턴트, 스타일리스트, 패션저널리스트, 공연 및 영상 의상디자이너, 패션크리에이터, 패션일러스트레이

터, 창업, 의류 및 섬유 관련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 강사 및 교수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대학원은 1988년 3월 가정대학 의류학과에 석사학위과정이 신설되었고, 1993년 3월에 박사 과정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2016년 헬스케어용 고기능성 의류디자인 인재양성 사업팀으로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우수한 교육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4단계 BK21 사업에 연속 선정되면서 현재는 휴먼케어용 고기능성 의류디자인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는 해당 분야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과 연결되어 졸업생들은 주요 대학의 교수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는 1974년 3월 문리과대학 내에 가정학과로 설치되었다. 1979년 문리과대학이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분리되었고, 1981년 이과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신설되었다. 1987년 3월 이과대학에서 가정대학으로 분리되었고, 2000년 3월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1985년 식품영양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1993년 3월 박사 과정이 신설됨으로써, 대학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킴과 동시에 지도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의 문화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3월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을 신설하여 영양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 함양을 목표로 전공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산업대학원 외식산업학과를 신설하여, 산업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과 종사하고자 하는 분에게 최신산업기술 및 관련 이론과 지식을 연구 교수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갖춘 최고급 산업선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 충남대학교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환경, 건강, 배려를 고려한 녹색 식생활 실천교육 방안 기획 및 교육컨텐츠 개발, 영양교사, 학교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식생활 교육 리더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식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유성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하고, 유성구의 특징에 맞춰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식품영양학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및 성장발달과 직결되어있는 식생활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적인 생명과학의 응용과학분야로 수학,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식품과 영양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전공과정을 학습한다.

식품 구성성분의 구조와 성질, 조리 또는 가공과정에서의 변화, 기능성, 식품관련 미생물 및 발효식품, 식생활의 위생적인 관리 및 법적 규제 등에 대하여 다루는 식품학 분야와 식품 중의 영양소가 체내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 변화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간 성장 발달 과정의 각종 영양문제 분석 및 해결법, 영양과 질병의 관련성 및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영양 교육 및 상담 등을 다루고 있는 영양학 분야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급식경영의 기초를 학부과정에서는 두루 학습한다. 다양한 강의와 실험 실습을 통하여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임상 영양사, 급식경영전문영양사, 식품기사, 환경기사, 제과제빵 기능사, 바리스타 등 많은 자격증 취득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졸업 후에는 급식전문업체 영양사, 영양교사, 임상 영양사, 보건직공무원, 기업체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농진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국가의 영양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 소비자학과

소비자학과는 1975년 문리과대학 내에 가정학과로 설치되었으며, 1976년 가정학과를 폐과하고 가정교육과가 신설되었다. 1987년 이과대학이 자연과학대학과 가정대학으로 분리됨에 따라 가정대학 가정교육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000년에는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생활정보학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소비자생활정보학이 신설되었다. 2018년부터는 학과 명칭이 소비자학과로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다. 2019년에는 일반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이 신설되어 현재 소비자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학은 소비자복지를 증진하고 소비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통합적 응용 학문이다. 소비자학과는 소비자 및 가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득의 획득, 소비자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효율성 및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소비자학과에서는 소비자를 잘 이해하는 역량,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소비자주의 기반 리더십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에는 소비자 행동 분야, 소비자정책 및 상담 분야, 금융 분야, 소비자조사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가정관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소비자학과는 미래혁신주도형 인재 양성을 통한 대학 및 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개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역량중심 전공 교육과정 개편 우수 학과로 선정된 바 있다.

4) 역대 학장

〈표 206〉 생활과학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오춘자	소비자학과	1987.09.01. ~ 1989.02.28.
제2대	김재숙	의류학과	1989.03.01. ~ 1991.02.28.
제3대	정영진	식품영양학과	1991.03.01. ~ 1995.02.28.
제4대	이정원	소비자학과	1993.03.01. ~ 1995.02.28.
제5대	박춘순	의류학과	1995.03.01. ~ 1997.02.28.
제6대	김영신	소비자학과	1997.03.01. ~ 1999.02.28.
제7대	손천배	식품영양학과	1999.03.01. ~ 2001.02.28.
제8대	박길순	의류학과	2001.03.01. ~ 2003.02.28.
제9대	김순미	소비자학과	2003.03.01. ~ 2005.02.28.
제10대	김미리	식품영양학과	2005.03.01. ~ 2007.02.28.
제11대	홍경희	의류학과	2007.03.01. ~ 2009.01.31.
제12대	구인숙	소비자학과	2009.02.01. ~ 2011.01.31.
제13대	이선영	식품영양학과	2011.02.01. ~ 2013.01.31.
제14대	이영선	의류학과	2013.02.01. ~ 2015.01.31.
제15대	이정순	의류학과	2015.02.01. ~ 2017.01.31.
제16대	김재한	식품영양학과	2017.02.01. ~ 2019.01.31.
제17대	박길순	의류학과	2019.02.01. ~ 2021.01.31.
제18대	박주영	소비자학과	2021.02.01. ~ 현재

3. 생활과학대학의 미래

생활과학대학의 비전

생활과학대학은 실용과학과 응용과학으로서의 생활과학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첨단기술과 생활과학을 연계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1) 생활과학대학의 교육목표: '3C'

Creativity: 융합과학으로서의 생활과학대학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 지식을 학습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통섭적 사고로 사회변화를 이해하

고 주도하는 창의성을 개발함. **Customization**: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생활과학대학생들은 사회와 산업체 등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경험함으로써 맞춤형 전문가로 육성됨. **Collaboration**: 생활과학의 기반은 현재 사회이며 생활과학의 교육은 사회에서 구현됨. 교육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시민과 산업, 그리고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현재와 미래사회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함.

(2) 생활과학대학의 인재상: 3P를 갖춘 인재

Professionalism: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학문적 지식과 실무적 역량을 모두 갖춘 전문성 있는 인재. **Positive attitude**: 올바른 인성 및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인재. **Potentiality**: 능동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미래사회에 적응 대응하는 인재.

(3) 생활과학대학 발전을 위한 전략

생활과학대학은 교육, 연구, 취업, 국제화, 행/재정분야로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첫째, 교육분야 발전전략은 융·복합 학문 창출, 학생자치활동 강화, 특성화 및 비교과과정 강화 등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분야 발전전략은 연구환경 여건 개선, 융·복합 연구과제 개발, 산업체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우수 연구교수 확보 등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취업분야 발전전략은 교과역량강화, 장기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취업 및 창업동아리 지원 확대 등으로 질적·양적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국제화분야 발전전략은 해외스터디투어 강화, 교수 및 대학(원)생의 국제교류 장려, 어학능력 배양, 외국학생 유치 및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생활과학대학을 세계화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재정분야 발전전략은 행정인력에 대한 적정배치 및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화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외부 홍보를 통한 발전기금 기탁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예술대학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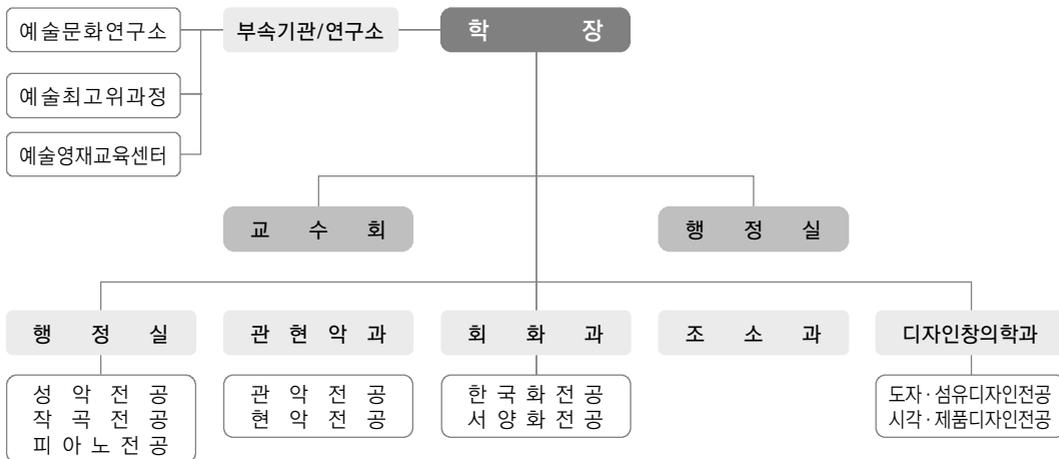
1. 예술대학 연혁

1982년 03월 문과대학에 음악학과, 미술학과 신설

- 1988년 03월 예술대학이 문과대학으로부터 분리 신설
 예술대학의 음악학과가 음악과와 관현악과로 개편
- 08월 예술문화연구소 신설
- 1989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음악과, 미술학과 신설
 예술대학의 미술학과가 회화과와 조소과로 개편
- 1992년 03월 교육대학원에 음악교육전공 신설
- 1993년 03월 교육대학원에 미술교육전공 신설
- 1996년 07월 음악2호관 증축 완공
- 2003년 02월 디자인관 증축 완공
- 2005년 03월 대학원 석사학위 일반과정에 관현악과, 산업미술학과 신설
- 2011년 03월 예술대학의 산업미술학과 박사과정 개설
- 07월 오케스트라홀 증축 완공
- 2014년 03월 예술대학의 산업미술학과가 디자인창의학과로 학과명 변경

2. 예술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37] 예술대학의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207〉 예술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음 악 과	4	2	35	35	39	45	154	23	-	23
관 현 악 과	6	1	27	21	18	26	92	21	-	21
회 화 과	3	1	33	10	31	31	105	24	-	24
조 소 과	2	1	14	11	14	24	63	3	-	3
디 자 인 창 의 학 과	5	1	26	24	28	31	109	13	8	21
총 계	20	6	135	101	130	157	523	84	8	92

3) 학과별 역사

Ⅰ 음악과

1982년 3월 문과대학 내에 음악학과가 신설이 되었다. 1988년 3월 예술대학이 문과대학으로부터 분리 신설되면서 음악학과가 음악과와 관현악과로 개편되었다. 음악과의 구체적인 전공은 성악, 작곡, 피아노의 세 분야로 나뉘며 실기와 이론을 중점적으로 연구, 교수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목 이외에도 각 전공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공 필수과목과 전공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있다. 전공실기, 연주, 시창·청음은 모든 전공의 필수 과목이며, 그 외 성악전공은 합창, 기초화성, 덕선, 음악사로 광범위하게 학구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작곡전공은 음악분석, 현대화성, 현대음악개론, 현대작곡기법, 음악사, 푸가, 현대음악 Seminar로 현대음악 창작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배우고, 피아노 전공은 기초화성, 대위법, 음악사, 피아노 문헌, 음악분석으로 연주기술과 이론적 기반을 연마하게 된다. 또한 각 전공은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음악의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다루게 된다.

그밖에 선택과목은 오페라클래스, 성악문헌, 합창 지휘, 가곡 앙상블, 합창편곡, 피아노클래스, 건반화성, 합창, 관현악법, 음악미학, 한국음악개론, 반주, 실내악, 피아노교수법, 음악치료학, 지휘법 등으로 각자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선택 이수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적인 활동은 각 전공별로 매년 정기연주회가 있고 실내악 발표회 및 춘계연주회, 협주곡의 밤, 오페라 등의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연주 기량 연마에 심혈을 기울이고 나아가 지역적 예술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은 1989년 3월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인 신설되었고, 1992년 3월에는 교육대학원

문과대학으로부터 분리 신설되었으며, 1989년 3월 예술대학의 미술학과가 회화과와 조소과로 개편되었다. 회화과는 4년 과정의 미술학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화 전공과 서양화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화된 미술교육을 통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기르고 풍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개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가로서의 자아 확립 및 미술 전문인력을 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화 전공은 전통적 조형론을 바탕으로 전통미술의 계승 및 현대적인 조형 체험과 다양한 재해석의 표현방법의 모색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학생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인의 창작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미술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익힌다. 서양화 전공은 미적 체험과 조형의 원리를 터득하고 실기와 예술 이론을 함께 정립하며, 독창적인 조형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표현연구와 창작 능력을 성장시키며, 예술적 가치를 익힌다. 본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들의 전공역량 향상을 위해 공모전 참여, 신입생 및 재학생 미술전시, 졸업전시 등의 미술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전시 경험을 제공하고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단계를 통해 졸업 후에는 전문작가, 조사·연구, 문화예술경영, 디자이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1989년 3월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이 설치되었다. 회화 전공으로 전문화되며 개인 작업 방향의 구체화를 위한 실기수업 및 다양한 담론과 비평수업과 이론 수업이 개설되었으며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연구 및 실험, 광범위한 지식과 전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술학과 회화전공에서 배출한 미술전문인들은 현재 전국의 미술대학 및 관련 기관에서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외 미술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93년 3월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이 신설되었고 회화과에서 미술교육전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미술교육전공은 중등 미술교육의 다양한 미술이론 및 미술 분야에 적합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우수한 미술교육전문가를 양성함에 목표가 있다. 교사 및 미술교육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 심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개념을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술교육전공에서 배출한 미술교육지도자들은 현재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 미술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사, 미술지도사, 미술심리치료사, 큐레이터, 평론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조소과

조소과는 1982년 3월 문과대학 내에 미술학과로 설치되었다. 이후 1988년 3월 예술대학이

다. 세부전공 명칭도 도자·섬유디자인, 시각·제품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예술적 사고에 기초한 창의적 감수성을 통해 인간중심의 디자인을 창출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자·섬유디자인전공은 예술교육과 디자인교육을 융합하여, 생활전반의 의식주와 연관된 제품을 개발하고 더불어 창의적인 작품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한다. 이를 위하여 전통과 첨단을 포괄한 장인적 사고와 글로벌적 사고로 당대의 새로운 가치와 생활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 예술인과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인문학적 지식과 이론을 토대로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실기 중심의 교육을 한다. 도자나 섬유미술의 예술적 표현방법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매체의 재료와 기법을 습득하면서 다각적인 표현방법들을 탐구한다.

시각·제품디자인전공은 창의적 직관력과 감각적 조형능력으로 인간만족을 실현하는 총체적 경험을 비물질적 요소(이미지, 서비스 등)와 물질적 요소(제품, 기술)를 통합하여 디자인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 삶의 가치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기초지식, 디자인기반지식, 디자인심화지식, 융합디자인지식 등 디자인 지식 체계에 입각하여 학년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창의적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방법으로 1,2학년 시기에는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의 통합적 디자인창출 능력을 함양하며, 3,4학년 시기에는 개별 디자인 전공 능력의 심화와 융합디자인 능력을 함양하도록 산업체(지자체)와의 협업을 병행한다.

도자·섬유디자인전공자는 산업체에 생활제품분야나 용기제품 디자이너, 요업회사의 제품개발 디자이너, 타일 디자이너, MD/VMD, 텍스타일 디자이너, 벽지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가방, 속옷, 신발, 의상 등), 섬유무역회사, 인테리어 디자인회사, 팬시업체, 도자, 섬유, 패션과 관련된 생활 전문지의 기자, food 코디네이터, 패션 코디네이터, 칼라 코디네이터, 무대 디자이너로 진출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원 진학 또는 유학을 통해 작가나 학문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시각·제품디자인전공자는 디자인전문 스튜디오, 국내 기업의 디자인 연구소, 기업 홍보실, 광고기획회사, 일반 제조 및 서비스 기업, 공공디자인을 포함하는 환경디자인회사 및 건축인테리어 산업분야, 캐릭터 팬시 산업분야, 이벤트 및 기획 관련 산업분야, 컴퓨터그래픽 영상디자이너, 인터랙션디자인, 웹디자인 등 멀티미디어 산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으며, 편집 및 일러스트레이터 분야나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창업도 가능하다.

대학원은 2005년 산업미술학과(미술학 석사) 공예, 디자인전공으로 석사과정이 신설되었으며 2011년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이후 2015년 디자인창의학과(디자인학 석사, 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 세부전공은 공예디자인학, 디자인학으로 변경되었다. 공예디자인학은 도자와

섬유공예를 기반으로 소재연구, 기법연구를 통해 심화된 작품 제작을 하며 졸업생을 작가로 양성하여 국내·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교수 및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디자인학은 기업의 디자이너, 1인 디자인회사의 대표가 재학생으로 상당수 포진되어 있으며, 디자인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디자인 기술연구, 디자인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여 디자인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4) 역대 학장

〈표 208〉 예술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도수희	국어국문학과	1988.03.01. ~ 1988.09.05.
제2대	박판길	음악과	1988.09.06. ~ 1990.09.05.
제3대	남철	조소과	1990.09.06. ~ 1992.09.05.
제4대	박상록	음악과	1992.09.06. ~ 1994.09.05.
제5대	임립	회화과	1994.09.06. ~ 1996.09.05.
제6대	김을곤	관현악과	1996.09.06. ~ 1998.08.31.
제7대	신언모	산업미술학과	1998.09.01. ~ 2000.08.31.
제8대	김병훈	관현악과	2000.09.01. ~ 2002.08.31.
제9대	김진	산업미술학과	2002.09.01. ~ 2004.08.31.
제10대	김선숙	음악과	2004.09.01. ~ 2006.08.31.
제11대	김석우	조소과	2006.09.01. ~ 2008.08.31.
제12대	임해경	관현악과	2008.09.01. ~ 2010.08.31.
제13대	김난희	산업미술학과	2010.09.01. ~ 2012.08.31.
제14대	송치경	관현악과	2012.09.09. ~ 2014.08.31.
제15대	윤여환	회화과	2014.09.01. ~ 2016.08.31.
제16대	은여인	음악과	2016.09.01. ~ 2018.08.31.
제17대	오치규	디자인창의학과	2018.09.01. ~ 2020.08.31.
제18대	유영대	관현악과	2020.09.01. ~ 현재

3. 예술대학의 미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전략

예술대학은 21세기 디지털 정보 사회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대학뿐만 아닌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여 보다 다양한 예술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예술의 흐름을 읽고 4차 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미래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예술대학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적·선도적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1) 예술활동의 지원 및 교육 시설 확충

예술대학에는 학사,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의 우수한 재학 인원이 있으며,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창작물을 위한 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예술대학의 각 전공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학과 단위의 연구소를 운영하여 각 전공의 예술 활동을 특성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술의 확산과 시민과의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거점대학의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음악회, 시민과 함께하는 교수작품전 등 예술대학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예술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초, 중, 고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예술대학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연주 및 전시회 등 결과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린 연계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한다. 충남대학교 예술대학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대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보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선보여 지역민들의 예술에 관한 관심을 유도한다.

(3) 학과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예술대학은 학과 전공 맞춤형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취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능한 실무자로부터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와 기술을 취득하고 나아가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 개인역량 강화와 취업처 발굴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한다.



수의과대학의 역사

1. 수의과대학 연혁

- 1982년 03월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 신설
- 1987년 03월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 1989년 03월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 1991년 03월 수의과대학으로 분리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설립
- 1992년 03월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의과학연구소 설립
- 1996년 02월 수의학관 신축 이전
- 1998년 01월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신축 이전
 03월 수의과대학 수업 연한 연장(4년제→6년제, 수의예과 신설)
- 2002년 07월 수의과대학 수의학관(동물병원 3층) 증축
- 2007년 08월 수의과대학 수의학관(동물병원 4층) 증축
 11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25주년 기념사업 수행
- 2008년 12월 수의과대학 수의학관(2~4층) 증축
- 2010년 02월 2009년도 충남대학교 학문분야평가 우수학과 선정(장려상)
- 2012년 01월 2011년도 충남대학교 학문분야평가 우수학과 선정(장려상)
 01월 2011년도 충남대학교 부속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동물병원, 장려상)
 03월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에서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로 소속 변경
- 2015년 02월 2014년도 충남대학교 학문분야평가 우수학과 선정(최우수상)
- 2016년 02월 2015년도 충남대학교 학문분야평가 우수학과 선정(장려상)
 06월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리모델링 완공
- 2017년 05월 2016년도 충남대학교 학문분야평가 최우수학과 선정
- 2019년 05월 2018년도 충남대학교 학문분야평가 우수학과 선정
 08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의 수의학교육 인증 획득(5년)

2. 수의과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38] 수의과대학의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209〉 수의과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과	교수	조교	학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사	박사	계
수의학과	26	3	57	55	67	82	261	75	27	102
수의예과		1	62	62			124			
총계	26	4	119	117	67	82	385	75	27	102

3) 학과별 역사

인류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공헌하는 전문 수의사 양성

수의과대학은 창조적이고 다양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류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성실한 수의사를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충남대학교는 모든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에서부

터 수많은 먹거리와 약품류의 안전한 제공을 위한 각종 검사와 실험, 인류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역병의 방역과 근절, 첨단생명공학연구 등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수의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Ⅰ 수의예과

수의예과는 수의학을 전공하기에 앞서 필히 이수해야 할 2년간의 기초과정으로서 기초과학 과목과 교양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의예과에서는 수의학과로 진학하기 전 기초과학분야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고 수의학과 과정 이수에 요구되는 기본적 자질 함양 및 수의학의 기초 학문 습득 및 원만한 인격형성을 위한 일반교양 과목을 다양하게 배움으로써 전문인뿐만 아니라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년동안 수의예과에서 요구하는 교양 및 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4년과정의 수의과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Ⅰ 수의학과

수의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전반과 그와 관련된 학문의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연구하며 응용하는 학문이다. 수의학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인격을 지닌 수의학 분야의 지도자와 의·약학 및 공중보건학 분야를 위시한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할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다. 수의학은 생명과학의 기초로부터 수의임상의 응용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핵심 과학이기 때문에 이수 학과목의 영역이 넓어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이 160학점 이상이다. 수의예과 2년과 본과 4년 과정을 이수한 후 수의사 국가 고시에 합격하면 수의사 면허증을 받게 된다.

4) 역대 학장

〈표 210〉 수의과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2대	김무강	수의학과	1991.03.01.~1995.02.28.
제3대	전무형	수의학과	1995.03.01.~1997.02.27.
제4대	조성환	수의학과	1997.03.01.~1999.02.28.
제5대	김덕환	수의학과	1999.03.01.~2001.02.28.
제6대	김명철	수의학과	2001.03.01.~2003.02.28.
제7대	윤효인	수의학과	2003.03.01.~2005.02.27.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8대	류시윤	수의학과	2005.03.01. ~ 2007.02.28.
제9대	신상태	수의학과	2007.03.01. ~ 2009.02.28.
제10대	김철중	수의학과	2009.03.01. ~ 2011.02.28.
제11대	박배근	수의학과	2011.03.01. ~ 2012.12.31.
제12대	손화영	수의학과	2013.01.01. ~ 2014.12.31.
제13대	이영원	수의학과	2015.01.01. ~ 2016.12.31.
제14대	송근호	수의학과	2017.01.01. ~ 2018.12.31.
제15대	신현진	수의학과	2019.01.01. ~ 2020.12.31.
제16대	정성목	수의학과	2021.01.01. ~ 현재

3. 수의과대학의 미래

One-Health 가치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발전과 그 존재 의미는 더 이상 동물의 진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동물, 건전한 환경, 건강한 사람을 하나의 틀로 생각하며, 그 중심에서 수의사와 수의과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수의과대학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부문의 발전, 우수한 연구성과,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의사의 양성,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와 임상 교육을 하는 동물병원,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는 수의과대학이라는 모든 가치를 함께 이루어내는 전국 최고의 선도적인 수의과대학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충남대학교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수의과대학으로 발전함으로써 충남대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가장 가고 싶은 수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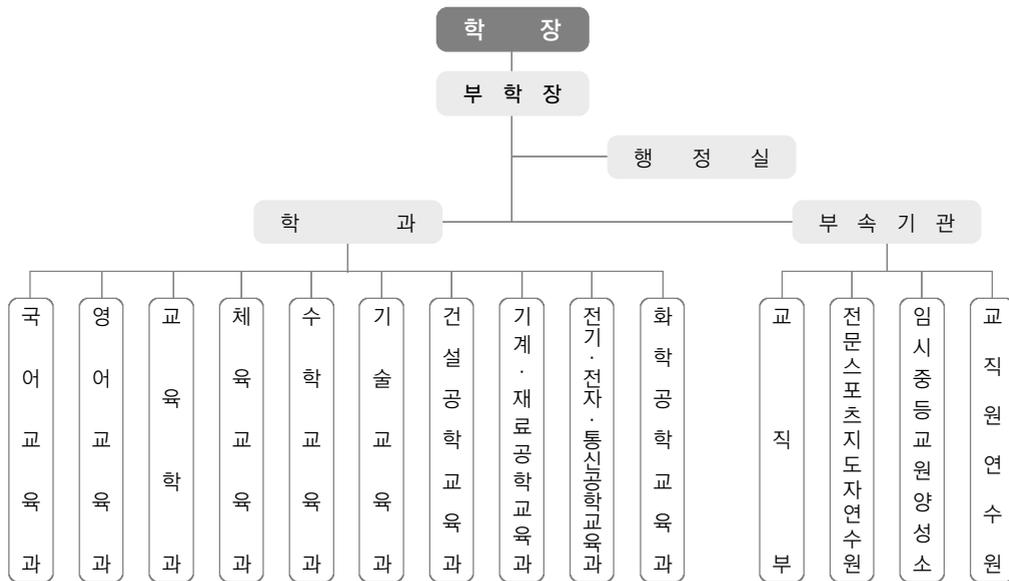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하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의사로 가장 잘 교육해주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우수한 학생이 선택하고, 우수한 학생이 공부하며,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수의과대학. 좋은 학생, 좋은 교육 여건, 좋은 연구 환경, 좋은 동물병원에서, 진료하고, 교육하며,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우수한 교원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도모한다.

- 1973년 03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문리과대학 체육학과 신설
- 1975년 03월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수학과, 체육교육과 교육대학원 신설
- 12월 체육교육과로 개편(입학 정원 40명)
- 1977년 03월 공업교육대학으로 특성화(8개 학과, 475명 입학 정원)(건축공학교육과, 토목공학교육과, 기계공학교육과, 기계설계공학교육과, 금속공학교육과, 전기공학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 1979년 03월 교육학과 설립(입학 정원 40명)
- 08월 문과대학 대덕캠퍼스로 이전
- 1980년 03월 교육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 1981년 03월 교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교육학과 입학 정원 증원(65명)
기술교육과 신설(입학인원 130명), 기계설계공학교육과 폐지, 공업교육대학 정원 910명으로 증원
- 1982년 10월 체육과학연구소 신설
- 1983년 03월 대학원 석사과정(체육학) 신설
- 1994년 03월 교육학과 입학 정원 조정(15명)
체육교육과 입학 정원 20명으로 변경
- 1997년 02월 경기지도자 연수원 신설
- 2000년 03월 체육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 2001년 03월 교육인적자원부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1주기)’ 우수 등급 획득
- 2006년 03월 공업교육학부로 독립하여 5개 전공으로 통합(건설공학교육전공, 기계·금속공학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공학전공, 화학공학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
- 2007년 03월 교육인적자원부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2주기)’ 최우수 등급 획득
- 2008년 10월 사범대학 설립 인가(10개 학과, 3개 학과 신설)
- 2009년 03월 사범대학 설립(10개 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신설
인문대학 교육학과를 사범대학으로 소속 변경
자연과학대학 체육교육과를 사범대학으로 소속 변경
공과대학 기술교육과를 사범대학으로 소속 변경

- 공과대학 건설공학교육과를 사범대학으로 소속 변경
- 공과대학 기계·금속공학교육과를 사범대학으로 소속 변경
- 공과대학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를 사범대학으로 소속 변경
- 공과대학 화학공학교육과를 사범대학으로 소속 변경
- 2010년 03월 교직부를 사범대학 부속기관으로 변경
- 2011년 06월 교원양성선도사범대학 지원사업 선정
- 08월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2010년)에서 A등급 획득
- 2013년 09월 대학원 융복합시스템 공학과 신설
- 2014년 03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사업단명: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기반 공업 기술교원 양
 성체계 구축사업단)
- 2015년 02월 경기도자연수원에서 전문스포츠지도자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 2016년 02월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2015년)에서 A등급 획득
- 04월 BK21+ 사업 선정(사업단명: 세계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 2018년 03월 기계·금속공학교육과를 기계·재료공학교육과로 학과 명칭 변경
- 05월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2019년 05월 대학혁신지원사업 산정
- 2020년 03월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 2021년 02월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2020년)에서 B등급 획득
- 05월 2021년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설치 사업 선정
- 2022년 02월 27개 초·중·고등학교의 SCP(School-College Partnership)선도협력학교 협약 체결과
 운영
- 03월 영어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2. 사범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39] 사범대학의 조직도

2) 전체 현황(2021. 10. 01. 기준)

〈표 211〉 사범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과	교수	조교	학부				계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석사	박사	계
국어교육과	4	1	15	17	19	19	70	-	1	1
영어교육과	3	1	16	17	16	18	67	-	-	-
수학교육과	4	1	19	18	24	16	77	-	-	-
교육학과	12	2	17	21	18	23	79	16	37	53
체육교육과	6	2	25	29	24	22	100	5	13	18
건설공학교육과	4	1	27	33	26	30	116	-	-	-
기계·재료공학교육과	5	1	35	37	37	35	144	-	-	-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5	1	36	52	33	37	158	-	-	-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화 학 공 학 교 육 과	3	1	20	24	18	15	77	-	-	-
기 술 교 육 과	6	2	35	36	33	40	144	-	-	-
공 업 기 술 교 육 학 과	-	-	-	-	-	-	-	13	12	25
융 복 합 시 스템 공 학 과	-	-	-	-	-	-	-	5	5	10
총 계	52	13	245	248	248	255	1,032	39	68	107

3) 학과별 역사

Ⅰ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는 중등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내(고등교육법 제41조) 중등 국어 교사 양성을 위하여 2009년 3월 1일 신설되었다. 국어교육과는 올바르게 정확한 국 어 사용 능력을 익히고, 다양한 한국 문학의 세계를 탐구하며,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인 적 교사 배출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학과 국문학(고전문학, 현대문학) 등의 일반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국문학개론,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국문학사, 국어논술 등의 강의와 국어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소설교육론, 희곡교육론, 시교육론과 같은 국어교육 전공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어교육과정 및 교재연구, 국어교수법 및 평가와 같은 교 육 연구의 심화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개설하여 국어교육전공자들 이 차세대 교육자로서 올바른 언어관과 문학관 그리고 교육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어교육과는 사범대학 비전을 기초로 삼아, ‘지적 호기심’, ‘창의적 사고 능력’, ‘전인적 인격’이라는 세부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 비전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국어교육을 이끌어갈 특화된 중등 교원, 더 나아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앞서서 헤쳐 나갈 능력과 교양을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하려 한다.

국어교육과의 졸업생은 일차적으로 중등학교 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 지식을 쌓아 학자나 대학교수로 진출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작가나 기자, 북 에디터나 카피라이터 등과 같은 문화계 및 언론계의 창작 전문가로서, 또 교육 관련 여러 분야의 행정가 로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일도 가능하다.

국어교육과는 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우수하고 창의적인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한)국어교육 전공을 설치하였다. 자국어로서의 국어뿐만 아 니라 제2언어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할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학, 연구기관, 정책 수립 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Ⅰ 영어교육과

2009년 3월 1일 사범대학이 발족함에 따라 신설된 영어교육과는 유능한 중등학교 영어교사 양성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업 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정확한 발음 체계와 문법 및 구문을 가르치고, 생활영어 및 교실에서 응용되는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 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어문학 관련 지식 습득과 그 적용에 대해 다각도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공은 영어교육, 영어학, 영문학, 일반영어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3명의 전임교원과 1명의 외국인 초빙교원, 그리고 5명의 겸무교수가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고 국가와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첫째, 논리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둘째, 중등 영어교육에 필요한 영미언어권(Anglosphere)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영어 문법과 영어학의 기본 지식을 함양하며, 셋째, 영미문학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영어교육에의 활용 능력을 신장하며, 넷째, 중등학교 교육에 적합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하여 배양된 제반 지식을 교육현장에 온전하게 응용하는 능력 개발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과정은 기초-핵심-심화의 체계적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교육과는 졸업 시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영어)을 취득하여 중등학교 정교사로 임용되거나, 영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적 분야로 진출하여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영어능력이 활용되는 외교, 통상, 무역, 기업, 매스컴 등의 분야와 교육 능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 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영어교육과는 2013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로, 2022년 2월 현재 제11회 졸업생까지 총 11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다.

2014년 2월 영어교육과는 13개 대학, 89개 전 학과를 대상으로 한 충남대학교 학문분야평가에서 '우수학과 상위 10개 학과'에 선정된 바 있다.

2022년 3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스마트영어교육' 전공을 신설하여 스마트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 콘텐츠의 기술적 개발과 교육공학적 방법론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 연구자(teacher researcher)는 물론 관련 영어 교육 및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Ⅰ 교육학과

교육학과는 사범계열 학과로 1979년에 인문대학 내에 설립되었고, 2009년 사범대학 신설과

연구에 필요한 지적 능력과 과학적 태도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 능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사범대학 설립에 따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보다 유능하고 열정적인 체육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유기적이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학원은 1983년 3월과 2000년 3월에 각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체육학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전공별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함으로써 체육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Ⅰ 수학교육과

수학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학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수학교육과는 이러한 수학적 지식과 소양을 가르치고 이론적·실천적인 사고력과 계속적인 처리능력을 담당할 우수하고 창의적인, 수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학교사 및 수학교육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의 수학 교원양성은 1952년 독립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으로 출발한 수학교과가 1964년부터 수학 교직원 양성 과정을 시작하였고 이 교직이수 인원은 1998년 30명에서 20명으로, 99년 20명에서 다시 10명으로 점점 감축되다가 2009년 3월 1일 사범대학의 발족과 함께 편제정원 14명으로 신설된 수학교육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수학교육과의 신설과 함께 신준국 교수(위상수학, 수학교육 전공)가 수학과에서 수학교육과로 소속 변경하여 부임하였고 다음 해인 2010년 부덕훈 교수(해석학, 수학교육 전공)가 수학교육과로 소속 변경함으로써 수학교육과의 교수진이 보강되었다. 현재는 서보억 교수(수학교육 전공), 이강용 교수(대수학 전공), 김준형 교수(위상수학 전공), 윤창욱 교수(해석학 전공)를 포함 총 4명의 전임 교수와 2명의 명예교수(부덕훈, 신준국) 외에 10명의 수학과 교수진(구남집-위상학, 김학만-해석학, 박진해-해석학, 신통수-대수기하학, 안재현-대수학, 오세권-대수학, 오세영-수치해석, 이건화-위상학, 이상훈-해석학, 주항연-위상학)을 겸무교수로 위촉하여 전공과목의 효율적인 강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수학교육과 주관으로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수학교수학습전공을 신설하여 중등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교사의 재교육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게 되었다.

수학교육과는 학과 신설 이후 현재까지 총 1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 중 44명이 중등임용고사에 합격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사 외에도 교육공무원, 대학원 진학, 학원강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또 수학교육과는 졸업 후에도 동문 학생들과 교사교육 세미나, 홈커밍데이 활동을 통한 지속

감과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건설관련 교과내용학과 실험실습과목 등 150학점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에 종사할 건설 기능인을 교육할 수 있는 중등교원 양성을 목표로 건설분야의 공학적인 지식 및 교사전문성을 함양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전공교육, 현장견학, 교직과목 및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해 교사로서 자질 및 인성을 함양한다. 또한, 중등교원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공공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건설공학교육과가 목표하는 인재는 전문교과 교사로서 건설(건축·토목)분야에 대한 공학적인 전문성과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 건설분야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목 및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며 긍정적인 사고, 끈기, 책임감 등 인성을 갖추는 것이다.

대학원은 2014년 3월 사범대학 공업기술교육 5개 학과(건설공학교육과, 기계·재료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가 연합하여 융복합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하였고 학과 간의 공학관련 학문적 융합뿐만 아니라 교육철학, 심리, 공학윤리, 발명교육,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인문사회계열학과의 연계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융합형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스마트소재 및 구조공학’, ‘융합생산 및 스마트전자’ 2개 전공을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기계·재료공학교육과는 1970년 공업교육과를 모태로 하여 1977년 기계공학교육과와 금속공학교육과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9년 사범대학 설립에 따른 기계·금속공학교육과로의 통합·개편 후 2018년부터 현재의 기계·재료공학교육과로 모집 단위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계·재료공학교육과는 21세기 첨단 산업 기술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공학 기술 인력을 교육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수한 기계·재료 분야 교사 및 교육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 수 있도록 기계·재료 공학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험 실습 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교육학 이수를 통하여 교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투철한 교육관을 가진 교육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게 하여 공업 및 공학교육 분야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교사 및 교육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기계 및 재료 관련 분야에서 공업계고등학교 교사, 공업 및 공학교육 전문가,

기업 교육 전문가, 기계·재료 관련 연구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는 1977년 공업교육대학 전기공학교육과와 전자공학교육과로 설립하여, 2006년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전공으로 통합·개편하였고, 2009년 사범대학 신설과 함께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로 독립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인류 발전을 이끌어가는 전기·전자·통신 분야에 종사할 기술인재육성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공학기술 및 관련 교육학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추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에서는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디지털회로, 전자회로, 반도체공학, 통신이론, 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험·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실기 능력을 함께 배양한다.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 적극적인 행동, 항상 노력하는 자세,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갖춘 교사’라는 인재상을 목표로, 전문적 교과지도 능력과 공학적 사고, 전인적 인격을 갖춘 유능하고 창의적인 교육 리더를 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에는 특성화 고교의 교사 및 대학원 진학, 공학 및 교육 관련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구원, 기업체 연구소 연구원, 공학교육 관련 전문기관 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고, 주로 공학 분야 기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전문가(교사 또는 정학사 등)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등교원양성기관으로서 현재까지 40년 이상의 전통과 함께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분야 교사의 70%이상을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기·전자·통신공학분야 교육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전기·전자·통신공학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기술인재육성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리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의 역할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는 1977년 공업교육대학 화학공학교육학과로 설립하여 2006년 공과대학 공업교육학부 화공·섬유공학교육 전공으로 독립되었고, 2009년 사범대학 신설과 함께 화학공학교육과로 개편되었다.

화학공학은 현대 기술문명을 이끌어 온 중요한 학문일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하

며 신소재와 화학공정, 생명공학 그리고 고분자공학 등 다양한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학문으로서, 화학공학교육과는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공학과 섬유공학 전문교과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다.

예비교사의 교육적 전문역량 함양을 위하여 교육학은 물론 화공양론, 물리화학, 유기화학, 반응공학, 방적공학, 염색화학 등 기초학문과 고분자과학, 기능성섬유가공, 편성공학, 에너지공학 등 전공학문을 심도있게 교육하고 다양한 실험·실습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습의 균형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 교과지도 능력과 합리적인 사고 및 전문적 인격을 함양한 유능한 전문교과 교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과 졸업 후 진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중등교사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업체의 현장 및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정부·공공기관,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졸업생들이 중등교사로 진출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공학과 섬유공학에 관련한 교육전문성을 갖춘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본 학과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기본적으로 화학공학과 섬유공학 전공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측면과 교사로서의 품성과 인성을 갖춘 인격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전문성 있는 교사로서 전공지식이 풍부한 학문적 실력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이어야 한다. 화학공학 또는 섬유공학 분야의 기초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공학적 기초 능력과 그 기초학문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및 응용력 등을 갖추며, 현장을 이해하는 현장 중심적이며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 교원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올바른 교사로서의 윤리의식, 품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배려, 협력,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인품과 학생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적성이 필요하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는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내는 성실한 인재이어야 한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위하여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춘 인재이어야 한다.

4) 역대 학장

〈표 212〉 사범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류창열	기술교육과	2009.03.01.~2011.02.28.
제2대	임선희	교육학과	2011.03.01.~2013.01.31.
제3대	신준국	수학교육과	2013.02.01.~2014.12.31.
제4대	김기수	기술교육과	2015.01.01.~2016.12.31.
제5대	오정환	체육교육과	2017.01.01.~2018.12.31.
제6대	최광만	교육학과	2019.01.01.~2020.12.31.
제7대	최유현	기술교육과	2021.01.01.~현재

3. 사범대학의 미래

1) GREAT VISION for Educational Leaders

사범대학은 교육학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수하여, 국가 사회와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하고 창의 융합적인 교사와 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창조적인 대학 체제를 갖추고 글로벌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과 지식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양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양성기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실천적 지혜를 갖춘 교원 양성을 주도한다.

사범대학 설립 근거인 고등교육법 제41조 “사범대학은 중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에 근거하여 사범대학은 다음과 같은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했다.

- ① 교육학의 학문연구: 교육학 및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체계를 연구 발전
- ② 교사 및 교육전문가 양성: 중등 교사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학생에게 함양시켜 중등교사는 물론,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
- ③ 지역사회 교육 중심체로서의 역할 수행: 국가 및 지역사회 교육과 지식 공동체의 중심체 역할, 즉 학문적 및 인적 중심체로서 교육 연구와 자문 등의 역할 수행

2) CNU Edu 핵심 아젠다 및 추진 전략

사범대학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적 변혁

시대에 대응한 교사양성 교육의 요람과 선도모델로서 비전과 핵심 아젠다를 설정했다.

(1) 핵심 아젠다

첫째, 사범대학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계승(교육 문화)한다. 이는 사범대학의 독창적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계승하며,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미래 창의융합 교사를 양성(교육 인재상)한다. 전문성과 리더십, 통찰력을 갖춘 창의융합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교육협력 체제 구축으로 교육 기여 및 현장 교육의 역량을 제고(교육 협력)한다. 지역 학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School_College Partnership)하여, 지역사회 교육봉사와 현장 교육력에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넷째, 특성화 기반 협력적 가치를 창출(연구/산학협력)한다.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는 특성화 기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가진다.

다섯째, 교육 혁신 공공성을 구현(봉사)한다. 교육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공학 HRD 혁신주도, 리빙랩 등을 통한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링을 만들어 실천한다.

여섯째, 미래교사교육의 혁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부속 학교 및 교육연수원, 교육관련 연구소를 구축하고 혁신적 운영 모델링을 실현한다.

(2) 추진 전략

- ① **교육 문화:** 사범대 소통을 정례화(사대뉴스, 사대 포럼)하고, 교육 문화 축제를 연다. 이는 사범대학의 독창적 교육 문화를 정착·계승·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사범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사범대 교육문화제를 하며, 사범대 교육력을 나누고 공유한다.
- ② **교육 혁신:** 국가적 미래 교사양성 체제 발전을 선도하는 교육 기획 및 실천,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음악, 미술 교육과 신설, 전공 교육과정 유연성과 능동적 체제 변혁, 미래교사 역량 증진을 위한 사범대 교양(전공기초) 교과목의 개발과 실천, 학생 생활 및 교육 진로의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천
- ③ **교육 연구:** 특성화 기반의 다학문, 다학제 융합 연구 선도 및 다학문의 교육적 실천을 위한 교육학, 교과교육, 교과내용학 연구의 협력적, 융합적, 독창적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 ④ **글로벌 교육 협력 및 공헌:** 글로벌 교육 역량을 기획하고 실천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 교육협력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 ⑤ **교육지원 시설:** 사범대학 1호관(글로벌인재양성센터), 사범대학 2호관 전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확보한다. 하이브리드 스마트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온 스테이션, 온 클래스룸, 온 스튜디오, 온 서비스룸, 온 콘텐츠룸, 온 컨퍼런스룸, 온 세미나룸)한다.
- ⑥ **선도협력학교(School_College Partnership) 제도**의 정착을 통한 교육실습, 교육봉사,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협력으로 지역학교와의 교육혁신 시너지를 창출한다.
- ⑦ **부속 교육시설:** 지역교육청과 협력적 정책 모델링으로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 및 전국 수준의 교육연수원의 인프라 구축과 혁신 모델을 창출한다. 교육 관련 연구소의 통합적 연구원을 설립(교육혁신연구원, 교육, 공학교육, 체육교육, 기초교육(국영수) 연구소를 총괄)한다. 다양한 주제 연구소를 발전시킨다.



간호대학의 역사

1. 간호대학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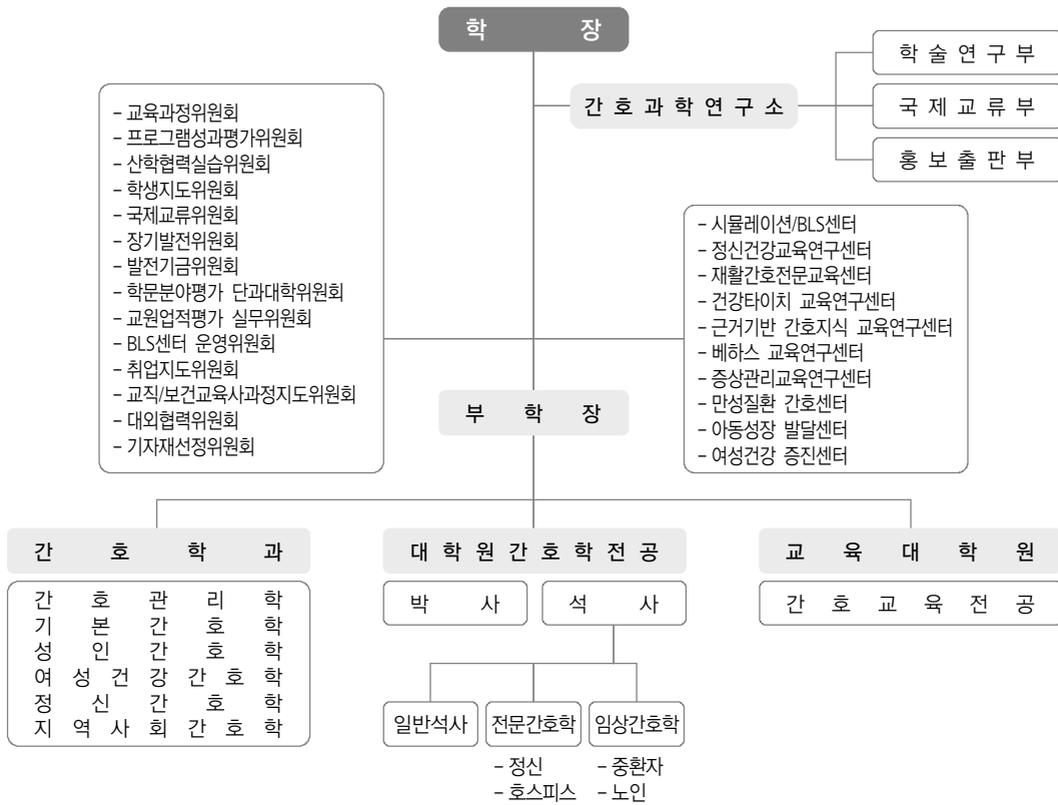
- 1967년 11월 문교부 의과대학(대흥동) 신설 인가
- 1969년 09월 의과대학 신축 기공식
- 11월 의과대학 간호학과 문교부 인가(입학 정원 40명)
- 1970년 03월 의과대학 간호학과 개설, 1회 32명 입학
- 1972년 08월 의과대학 부속병원(대흥동) 개원식
- 1973년 01월 도서관 의대분관 개소
- 1975년 03월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설립, 교육대학원(간호교육전공) 신설
- 1977년 08월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 최초 수여(오경옥, 이강이)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석사학위 최초 수여(김인순)
- 1983년 02월 간호학과 보운캠퍼스 (구)도서관동으로 이전
- 1984년 10월 문화동 보운캠퍼스로 충남대학교병원 신축 이전하여 개원
- 1985년 12월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과 보운캠퍼스로 신축이전
- 1988년 09월 보운캠퍼스 의행관 신축

- 1989년 09월 간호학과 및 도서관동 신축
- 1991년 10월 가정간호사 수습기관 지정 승인(대한간호협회 인증)
- 1992년 03월 가정간호사 1기 40명 입학
- 1993년 09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간호학과 신설 승인
- 1994년 03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간호학과 첫 입학생 입학
- 1995년 08월 충남대학교병원 법인화
- 1997년 03월 간호학과 입학 정원 50명으로 증원
- 08월 간호과학연구소 설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증평가 인증
- 1998년 09월 의행회관 준공
- 2001년 02월 보운캠퍼스에 의과대학(의학과, 간호학과) 학생기숙사 신축
- 2003년 11월 대학원 응급/호스피스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
- 2004년 02월 가정간호사 교육과정 종료
- 03월 응급/호스피스 전문간호사과정 1기 입학
- 05월 간호학과 1기 졸업 30주년 모교방문의 날 기념행사 및 발전기금 기부
- 11월 대학원 정신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
- 2005년 03월 정신전문간호사과정 1기 입학
- 2006년 12월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교육평가원 인증평가 인정
- 2007년 11월 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 지정
- 2008년 03월 간호학과 입학 정원 60명으로 증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 1기 입학
- 2009년 03월 입학 정원 70명으로 증원
- 간호대학으로 승격, 초대 간호대학장 오경옥박사 취임
- 2010년 03월 간호대학 입학 정원 90명으로 증원
- 07월 간호대학 시뮬레이션/BLS센터 설립
- 2011년 01월 간호대학 교육실기센터 건립제안서 작성
- 03월 2대 간호대학장 소희영박사 취임
- 06월 재활간호사 전문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정(대한간호협회 인증)
- 2012년 0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간호대학 교육실기센터 신축사업 사업비 심의 확정
- 12월 간호대학 교육실기센터 설계 완료
- 2013년 02월 3대 간호대학장 김종임박사 취임
- 05월 간호대학 교육실기센터(지하층 지상 7층) 신축 기공식

- 06월 간호대학 강의동 증축공사 완공
- 11월 대학원 응급전문간호사과정 폐지, 중환자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 12월 간호교육평가원 2주기 인증평가 인정
- 2014년 03월 대학원 석사과정 중환자전문간호사과정 1기 입학
- 2015년 02월 4대 간호대학장 박인숙박사 취임
- 05월 간호대학 교육실기센터 건물 완공(지하 1층, 지상 7층)
- 07월 간호교육실기센터 신축건물 완공 및 이전
- 2016년 03월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 선정(지역주민 자기주도형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인재 양성사업단)
- 2017년 02월 5대 간호대학장 김현리박사 취임
- 2018년 12월 간호교육평가원 3주기 인증평가 인정
 보건복지부(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대학 실습교육지원사업 선정
- 2019년 01월 보건복지부(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대학 실습교육지원사업 1차년도 운영
- 02월 6대 간호대학장 안숙희박사 취임
- 0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실습교류협약(하계 실습캠프)
- 2020년 09월 한국연구재단 BK21FOUR사업 선정(사람중심 스마트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사업단)
- 12월 간호대학 50년사 발간
- 2021년 01월 간호대학 설립 5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02월 7대 간호대학장 송라운박사 취임

2. 간호대학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40] 간호대학의 조직도

2) 전체 현황(2021. 10. 01. 기준)

〈표 213〉 간호대학 전체 현황(2021.10.01. 기준)

(단위: 명)

학과	교수	조교	학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사	박사	계
간호학과	17	2	100	97	104	104	405	109	33	142
총계	17	2	100	97	104	104	405	109	33	142

행정 책임을 맡고 있으며, 장기발전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학생 지도위원회, 산학협력실습위원회 등과 간호대학 분야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과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09년에 시행된 충남대학교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에 간호대학 간호학도가 선정되어 국제 간호표준에 맞춘 간호대학 교과과정 및 실습과정을 개발하였으며, 2010년에는 간호대학 입학 정원이 90명으로 증원되었다.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서도 총 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매년 학부 는 정원 외 포함 약 10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고, 대학원도 전문간호사과정과 일반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약 8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다.

간호대학은 중부권 거점 국립대학으로 1970년 개설 이래 2,500여 명의 학부 졸업생을 배출 하였고,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여 450여 명의 석사, 박사를 양성함으로써 간호학문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은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연구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2016년 BK21 Plus 사업과 2020년 4단계 BK21 사업을 운영하고 있 으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연구센터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교직원과 360명의 학부생, 1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간호학문을 탐구하며 간호학자로, 간호 교육자로, 간호 실무자로, 간호 리더로 지역을 선도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4) 역대 학장

〈표 214〉 간호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오경옥	간호학과	2009.03.01. ~ 2011.01.31.
제2대	소희영	간호학과	2011.03.01. ~ 2013.01.28.
제3대	김종임	간호학과	2013.02.01. ~ 2015.01.31.
제4대	박인숙	간호학과	2015.02.01. ~ 2017.01.31.
제5대	김현리	간호학과	2017.02.01. ~ 2019.01.31.
제6대	안숙희	간호학과	2019.02.01. ~ 2021.01.31.
제7대	송라운	간호학과	2021.02.01. ~ 현재

3. 간호대학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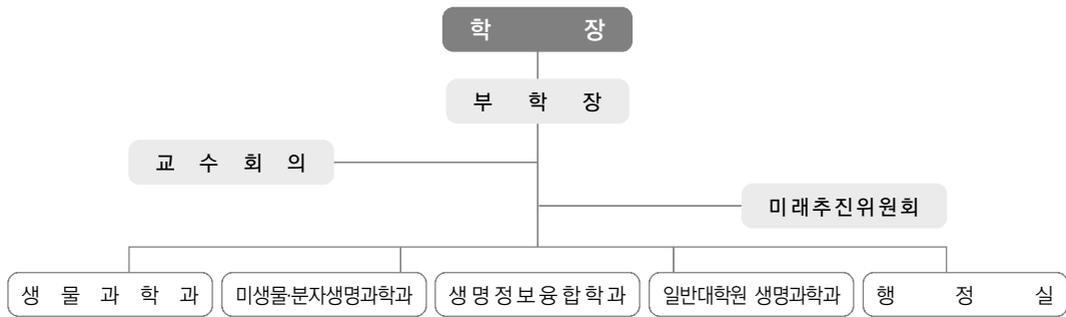
간호학 발전을 위한 전략

간호학은 인류의 안녕을 위해 인간존중에 기초한 과학적 지식, 치료적 의사소통과 공감능력,

- 03월 생물학과 대덕캠퍼스로 이전, 생물학과 석사과정 신설
- 1981년 03월 생물학과 박사과정 신설
- 1982년 02월 생물학과 제1기 석사 배출
- 03월 생물학과 입학 정원 80명으로 증원
- 1986년 03월 이과대학 미생물학과 신설 / 제1기 신입생 31명 입학
- 1987년 02월 생물학과 제1호 박사 배출, 이과대학이 자연과학대학으로 개칭
- 03월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와 미생물학과로 개칭
- 1988년 02월 기초과학관 1호관으로 이전
- 1990년 02월 미생물학과 제1기 학사 21명 배출
- 03월 미생물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및 제1기 신입생 6명 입학
- 1991년 03월 생물학과 정원 60명으로 감원
- 1992년 03월 미생물학과 대학원 제1기 이학석사 6명 배출
- 1994년 03월 미생물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및 제1기 신입생 3명 입학
- 1997년 03월 기초과학분야 지방대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 1998년 03월 기초과학부 생물학전공과 미생물학전공으로 개편
- 1999년 08월 미생물학과 제1호 박사 배출
- 2001년 06월 지방대 특성화 사업 종료
- 2003년 03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과 미생물학전공으로 개편
- 2004년 03월 본부 직할 생명과학부로 분리 독립(영문명: School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 2005년 07월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선정
- 2006년 03월 생명과학부 대학원과정(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을 대학원 생명과학과로 통합
- 2007년 08월 생명과학원(N11)으로 이전
- 10월 생명과학부 행정실 독립
- 2009년 03월 생명시스템과학대학으로 승격(영문명: Colleg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 09월 교육과학기술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약바이오 인재양성센터) 선정
- 2010년 03월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과학과와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로 개편
- 2012년 03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 2013년 09월 BK21 + 지역우수대학원 육성분야 사업 선정
- 2014년 09월 특성화 사업인 “충청권 융합 생명-의학사업” 참여
- 2019년 03월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
- 2021년 03월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명정보융합학과 신설 / 제1기 신입생 26명 입학

2. 생명시스템과학대학 현황

1) 조직도



[그림 41] 생명시스템과학대학 행정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215〉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전체 현황

(단위: 명)

학과	교수	조교	학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사	박사	계
생물학과	14	3	50	67	72	73	262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9	1	34	62	50	37	183			
생명정보융합학과	2	0	26				26			
생명과학과	25							69	19	88
총계	50	4	110	129	122	110	471	69	19	88

※ 대학원 생명과학과 교수는 생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생명정보융합학과 교수가 겸무

3) 학과별 역사

Ⅰ 생물학과

생물과학과는 1975년 3월 문리과대학 내에 입학 정원 20명의 생물학과로 설립되었다. 1979년 보운캠퍼스에서 대덕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하였고, 1981년 입학 정원을 80명으로 증원하고 박사과정을 신설하였다. 생물과학과는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초학문분야로 첨단 BT 산업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생명과학도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동물·식물·미생물을 대상으로 생리학, 유전학, 세포생물학, 분류학, 생태학, 발생학, 분자생물학 및 진화생물학, 빅데이터분석 등을 학문분야로 구성하여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핵심분야인 바이오에너지 및 식량자원 개선, 신약개발을 통한 질병치료, 생명정보분석을 통한 생명현상 및 다양성을 규명하고, 인류 복지 실현을 위한 자원확보 및 보존과 복원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학부과정에서는 생명현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기업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동·식물분류학실험, 세포·생리학실험, 유전·발생생물학실험, 생태학실험, 분자생물·생화학실험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바이오 관련 지식과 응용력, 탐구력을 겸비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생물과학과는 200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인 NURI 사업 수행을 시작으로, 2009년 의약바이오인재양성 사업, 산학협력선도 대학육성사업, 충청권 의약·생명 융합 특성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여 미래기술창조에 기여하여 왔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2009년부터 BK21사업 및 BK21+사업을 수행하면서 석·박사과정을 생명과학과로 통합하여 생물다양성 및 환경생태학, 분자기능생물학, 식물시스템생물학분야로 전공 분야를 확대하여 관련분야의 석·박사 전문바이오인재 양성을 통한 바이오특성화 및 연구중심 학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졸업 후에는 생명과학관련 연구원, 자원관, 생명과학관련 분야 공무원 등 생명과학 관련 영역에서 일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외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체산하 연구소, 중·고등학교 교사, 국내·외 대학교 교수, 생명과학관련 벤처 CEO 및 연구개발 회사, 제약, 식품, 발효, 화학, 환경분야의 산업체 및 생명과학분야 관련 공무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 전문적인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는 1986년 3월에 충남대학교 이과대학 미생물학과로 설치되었다. 그 후 1987년 3월에는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로, 2003년 3월에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미생물학전공으로 개편하였고, 2004년 3월에는 본부 직할 생명과학부로 분리 독립하였다. 2007년 8월에 생명과학원으로 이전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단과대학으로 승격하여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미생물학전공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2010년 3월에는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였다.

국내 첨단과학의 메카인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는 21세기 산업의 핵심을 이루게 될 생명과학 분야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 기초 첨단

신설할 계획이다.

졸업 후에는 생명과학 및 컴퓨터를 활용한 생물정보분석 분야의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기업, 신약개발 제약회사, 인공지능 관련 전문기업, 바이오분야 산업체, 벤처 회사 및 관련 국가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을 통해 최신 연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독립연구를 진행한 경우, 국공립연구소, 제약 및 식품 환경 분야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원 및 교수 등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분야에 바이오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활용이 가능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융합적 역량을 가진 생명정보융합학과 졸업생 및 대학원 진학자들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역대 학장(2009.3.1. 생명시스템과학대학으로 승격)

〈표 21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역대 학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맹필재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2009.03.25. ~ 2011.03.24.
제2대	임헌만	생물과학과	2011.03.25. ~ 2013.01.31.
제3대	박희문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2013.02.01. ~ 2015.01.31.
제4대	이명철	생물과학과	2015.02.01. ~ 2017.01.31.
제5대	김정운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2017.02.01. ~ 2019.01.31.
제6대	이한길	생물과학과	2019.02.01. ~ 2021.01.31.
제7대	김승범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2021. 2. 1. ~ 현재

3.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의 미래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이하 생명대)의 비전과 목표는 충남대학교 교육목표(학칙 제2조), 충남대 장기 발전계획 비전 2030과 4차 산업혁명시대 생명과학분야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2018년 생명대 미래기획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아울러 생명대의 비전과 교육목표는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와 벤처기업체가 밀집한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캠퍼스와 내포캠퍼스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본교의 지정학적인 강점과 지역 혁신 성장 선도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의약분야에 대한 충·대·세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급격한 확장을 보이는 생명과학분야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설정되었다.

생명대의 비전은 “세계 200대 생명과학분야 교육/연구기관”이며 생명대의 교육은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와 융합능력을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개발하며,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소속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의 학부전공 교육방향은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와 지역이 요구하는 생명의약분야 전문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창의적 학문탐구와 전문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생명과학분야의 고급 연구·교육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관련 산업이 집약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충·대·세 지역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서 인접학문 전공자에 대한 지원교육 및 기타 전공자에 대한 교양교육을 통하여 융합학문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생명대의 혁신비전

생명대의 비전은 “세계 200대 생명과학분야 교육/연구기관”으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생명대의 교육목표인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와 융합능력을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소속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교육을 바탕으로 충남대 생물학 전공교육 시작 5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까지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생명대의 중장기 발전목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융합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융합기술의 확대와 가치창출 효과로 인하여 생물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대 생명대의 경우 고등교육환경의 변화로 신입생의 학습역량 저하, 우수 졸업생의 타 학교 대학원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휴학생 비율 증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른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며 세계 200대 생명과학분야 교육/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대 교육연구분야 SWOT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목표를 설정한다.

(1) 강점강화 기회활용 발전목표

우수한 교수자원과 대덕연구특구 인프라 및 연구인력을 활용한 융합적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다. 우수인재 양성 지역 바이오산업체 중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성화한다. 활용 학생의 실

무역량을 강화하고, 종합대학의 장점을 살려 교내 융합 가능 학과 간 적극적 협력을 통한 융합 특성화 교육을 강화한다.

(2) 강점강화 위협극복 발전목표

- 기초학습능력 부족 신입생에 대한 사전 학습자료 제공과 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지역우수인재 생명과학분야 공동 진학지도를 통한 지역인재 수도권 이탈을 최소화한다.
- 미래 유망 생물학문분야 전문가 중 기존 연구그룹의 강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원의 적기를 확보한다.

(3) 기회활용 약점극복 발전목표

- 실험실습 및 기술 교육 내용 개선을 통한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 경쟁력을 확보한다.
- 연구소·산업체의 연구주제 또는 애로 기술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 지역 및 대학의 바이오분야 집중 양성을 활용하여 실험 인프라를 개선한다.

(4) 약점극복 위협 최소화 발전목표

- 4차 산업혁명시대 생명대 인재상을 반영하여 교과목 내용을 개선하고, 평가체계를 정비한다.
- 생물학분야 취업희망자와 비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교과이수체계를 마련한다.

3) 생명대의 인재상

생명대의 교육은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와 융합능력을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개발하며,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소속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유전공학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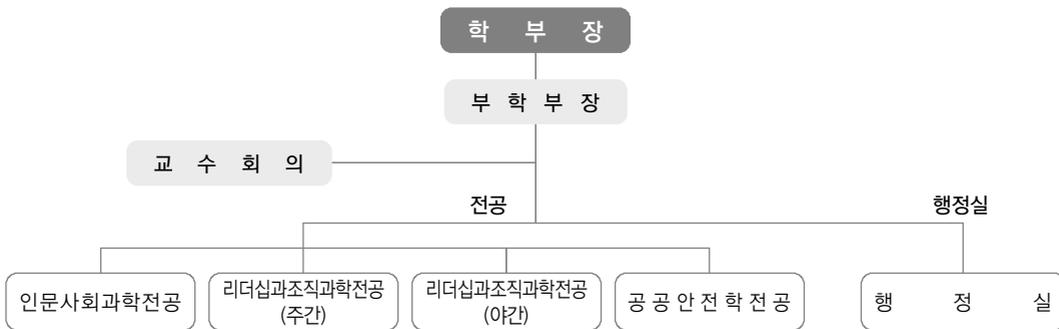
1. 연혁(2008.08.~2022.3.31. 현재)

2008년 08월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 09월 자유전공학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2009년 03월 자유전공학부 설치(인문사회과학전공 신설, 과학기술전공 신설)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차제순 교수 취임
- 2010년 03월 고흥월 교수 부임
- 09월 서영식 교수 부임
- 2012년 02월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주간)(재직자과정) 신설
- 02월 김정숙 교수, 박준용 교수 부임
- 2013년 02월 과학기술전공 폐지
- 2014년 12월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서영식 교수 취임
- 2015년 03월 공공안전학전공 신설
- 09월 전임교수 5명, 행정실 1명, 조교 1명 재직, 총 4개 전공영역에 300여 명 재학
- 2020년 12월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김정숙 교수 취임
- 2022년 02월 차제순 교수 정년퇴임
- 03월 전임교수 4명, 행정실 1명, 조교 1명 재직. 총 4개 전공영역에 30여 명 재학

2. 현황

1) 조직도



[그림 42] 자유전공학부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217〉 자유전공학부 전체 현황(2021.10.1. 기준)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리더십과조직과학(주간)	5	1	15	22	14	27	78
리더십과조직과학(야간)			8	12	12	16	48
인 문 · 사 회 과 학			17	18	16	28	79
공 공 안 전 학			21	23	19	28	91
과 학 기 술			-	1	-	-	1
총 계	5	1	61	76	61	99	297

3) 학과별 역사(학부, 대학원의 설치과정, 전공분야, 진로 등을 중심)

자유전공학부는 학제간의 융합과 통섭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학문 경향에 부응하며, 나아가 21세기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2009년 3월 독립 단과대학으로 출범하였다.

입학 초기부터 졸업 때까지 전임교수진이 학생들을 밀착 지도함으로써 학생 각자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는 대학원 수준의 학부생연구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연구능력개발과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전공학부의 교육철학은 지식의 단순한 축적을 넘어서, 스스로 인성도야에 매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자유전공학부의 모든 전문화된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와 윤리적 태도의 함양을 지향한다. “내가 이 사회의 정직한 주인공이라는 자각과 더불어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구성원 상호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토대로 한 협력과 상생을 적극 실천한다.”

이처럼 차별화된 교육 및 연구체계를 기반으로 그동안 자유전공학부에서 수확한 다수의 학생들은 국내·외 유수의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MBA, 해외 명문대학원, 약대편입 등)에 진학하여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졸업생이 각종 공무원 시험과 공채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공식사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Ⅰ 인문사회학전공

융합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과정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사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학습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습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사유능력’을 키우게 된다. 대부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세미나 형식과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Ⅰ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

미국 워싱턴 D. C. 소재 George Washington University(GWU)의 Columbian College of Arts & Sciences에 소속된 Organizational Sciences and Communication학과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학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직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다. 조직관리,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통계학, 경영경제학 그리고 국제학 등의 학문분야가 융합되어 있어 개인과 조직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보다 깊은 이해와 리더십을 갖춘 다양한 사회조직의 관리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주간과 야간과정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특히 재직자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다.

Ⅰ 공공안전학전공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현상 및 국가형사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정책들을 제시하는 통섭적인 학문영역이다. 공공안전학 관련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가운데 최초로 개설된 학과이다.

4) 역대 학부장

〈표 218〉 역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차제순	자유전공학부	2009.03.01. ~ 2013.02.28.
제2대	길병옥	국가안보융합학부	2013.03.01. ~ 2013.06.25.
제3대	김정숙	자유전공학부	2013.06.26. ~ 2014.12.07.
제4대	서영식	자유전공학부	2014.12.08. ~ 2020.12.07.
제5대	김정숙	자유전공학부	2020.12.08. ~ 현재

3. 자유전공학부의 미래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로, 이를 선도하는 네오휴머니즘과 창조적 리더십의 신설이 필요하다. 전통적 차원의 지식교육은 다양한 정보내용을 습득하고 정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이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의 연마를 지향한다. 이에 자유전공학부는 시대를 이끌도록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전통적 의미의 과목지식 습득을 넘어서, 배우는 방법 자체를 배우고 스스로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을 일깨워주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이를 창조적 사유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새로운 차원의 지식교육을 선도할 수 있게 한다.

자유전공학부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건전한 가치와 철학을 갖춘 다기능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다. 공공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형사사법기관에 두루 진출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범죄 및 형사사법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며, 융복합성격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 있는 교육철학 및 교육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가안보융합학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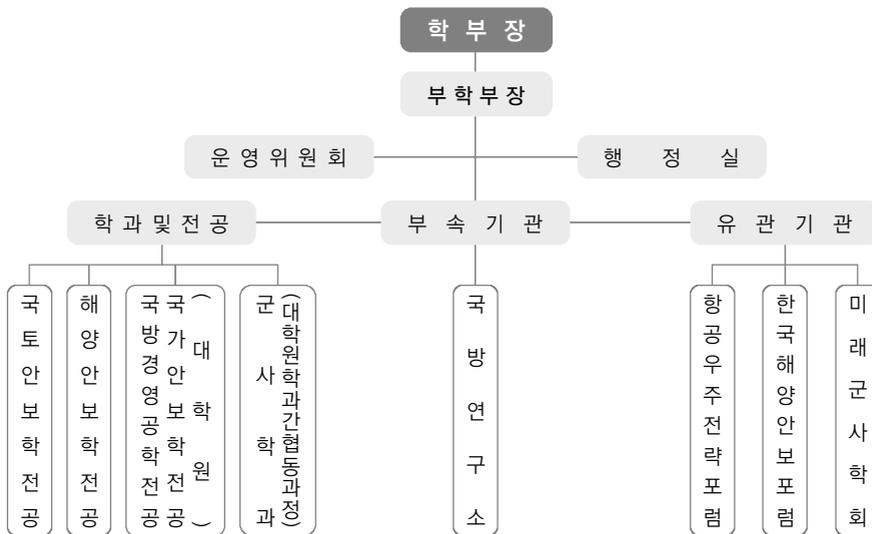
1. 국가안보융합학부 연혁

- 2003년 03월 평화안보대학원 “군사학 석사학위과정” 개설
- 2005년 03월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군사학 박사학위과정” 개설
- 2006년 12월 국방연구소 설립
- 2011년 02월 미래군사학회 발족
- 09월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 체결(충남대학교-해군)
- 2012년 03월 해군학전공 설립(입학 정원 30명 / 계약학과)
- 02월 3군 합동 고급정책전문가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충남 대학교- 육군,해군, 공군)
- 06월 군사학과 [학,군제휴] 협약서 체결(충남대학교- 육군)
- 10월 군사학부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2014년 03월 군사학부 설립(1대 군사학부장 길병욱 교수)

- 12월 물정책, 기술 융복합 리더 양성 관, 학, 산 협력 합의를 협약체결
(충남대학교-환경부-K-water)
- 2020년 02월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3기(26명), 해양안보학전공 5기(37명) 졸업
- 03월 국토안보학전공 3기 임관(학군단 15명)
- 05월 해양안보학전공 5기 임관(35명)
- 06월 국토안보학전공 3기 임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9명)
- 2021년 02월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4기(23명), 해양안보학전공 6기(16명) 졸업
- 03월 국토안보학전공 4기 임관(학군단 17명)
- 05월 해양안보학전공 6기 임관(16명 / 해군OCS중앙회장상)
- 06월 국토안보학전공 3기, 4기 임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4명) / 3기 1명, 4기 3명
- 2022년 02월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5기(30명), 해양안보학전공 7기(36명) 졸업
국가안보융합학부 3대 학부장 취임(전기석 교수)
- 03월 일반대학원 국가안보융합학과 “국가안보학, 국방경영공학 박사학위과정” 신설
국토안보학전공 5기 임관(학군단 25명)

2. 국가안보융합학부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43] 국가안보융합학부의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219〉 국가안보융합학부 전체 현황(2021.10.1. 기준)

(단위: 명)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석 사	박 사	계
국 토 안 보 학 전 공	5	1	28	29	31	36	124	-	-	-
해 양 안 보 학 전 공			28	15	33	38	114	-	-	-
국 가 안 보 융 합 학 과			-	-	-	-	-	20	-	20
총 계	5	1	56	44	64	74	238	20	-	20

3) 학과별 역사

Ⅰ 국가안보융합학부

국가안보융합학부는 육군 및 해군과 협약이 체결된 국방, 군사, 외교, 안보, 통일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선도하는 최초의 국립대학교이며, 군사학 석사 및 박사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으로서 우수한 군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안보융합학부 내의 국가안보관련 교육은 학부과정(국토안보학전공, 해양안보학전공)과 대학원과정(국가안보융합학과: 국가안보석사/박사, 국방경영공학석사/박사)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안보·국방·군사·통일·외교·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Ⅱ 국토안보학전공

국토안보학전공은 2013년 6월 충남대학교와 육군본부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개설한 국립대 최초, 유일의 국토안보학 관련 전공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인 인재 발굴과 군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학생활과 국가안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국토안보학전공을 통해 정예 육군장교로서 국가와 사회의 리더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품성, 체력, 지위통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복수전공 과정을 통해 군과 안보, 통일, 국방, 국제관계, 방위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소양을 쌓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졸업생 전원이 소정의 군사훈련을 거쳐 자랑스러운 육군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리더의 꿈, 그리고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도

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전공이다.

국토안보학전공은 육군과의 협약에 의한 맞춤형 정예 육군장교와 충남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창의, 개발, 봉사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바탕으로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전문지식, 교양교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육군 장교후보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체성 확립 및 진로지도를 실시하며, 국내·외 유관 대학 및 연구소와의 학술 교류 협력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학군 장교 또는 학사 장교에 선발될 경우,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다양한 병과에 진출(공무원 7급 수준), 임관신분별 의무복무기간 육군 장교로 복무 후 장기복무 및 사회 진출(예: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7년, 학군사관 2년 4개월 등)이며, 군 복무 중 다양한 혜택(주택, 복지 지원, 석박사학위 취득 기회, 국내·외 국비 위탁교육 등)과 장기복무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일정기간 근속 시 군인연금 혜택이 있으며, 군 근무경력을 활용한 사회 전문분야 진출(국내·외 우수기업 및 연구소, 안보기관, 항공기 조종사, 군무원, 방위산업체, 비상기획관, 예비군 지휘관 등)이 가능하다.

Ⅰ 해양안보학전공

해양안보학전공은 2011년 9월 충남대학교와 해군본부의 협약에 근거하여 개설한 국립대 최초의 해양안보 관련 전공으로, 조국의 바다와 영공을 수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창의력 있는 인재 및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안보학전공 입학생 전원은 입학과 동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학생생활과 심도 있는 전공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더불어 졸업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이 소정의 군사훈련을 거쳐 해군 장교로 임관한다.

정예 해군장교로서 국가와 사회의 리더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품성, 체력,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고, 복수전공과정을 통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리더의 꿈, 그리고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전공이다.

해양안보학전공은 해군과의 협약에 의한 맞춤형 정예 해군장교와 충남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창의, 개발, 봉사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토대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군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전문지식, 교양교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군 장교후보생으로서 갖

추여야 할 정체성 확립 및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국내·외 유관 대학 및 연구소와의 학술 교류 협력 세미나 및 포럼에 참여하며 해군본부 주관으로 다양한 장교직무체험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 후 진로로서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함정, 항공, 정보통신 등 다양한 병과에 진출(공무원 7급 수준), 7년간 해군 장교로 복무 후 장기복무 및 사회 진출(의무복무기간 3년+장학금수혜기간 4년)이며, 군 복무 중 다양한 혜택(주택, 복지 지원, 석박사학위 취득 기회, 국내·외 국비 위탁교육 등)과 장기복무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일정기간 근속 시 군인연금 혜택이 있으며, 군 근무경력을 활용한 사회 전문분야 진출(국내·외 우수기업 및 연구소, 안보기관, 항공기 조종사, 군무원, 방위산업체, 비상기획관, 예비군 지휘관 등)이 가능하다.

Ⅰ 국가안보융합학과

국가안보융합학과는 다양한 전공(정치학, 공학, 법학, 범죄학, 인적자원 및 조직개발, 군사학 등)의 최상의 교수진이 오랜 기간 육·해·공군의 행정·교육·훈련기관과 함께 각종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軍과 국가안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가안보 전문인력 육성과 연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국가안보학전공은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안보관련 분야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안보는 과거 군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안보연구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고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학과에서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뿐 아니라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정치요소, 지역적이고 범세계적인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국제기구 및 국제레짐 관계, 문화심리학과 리더십, 환경이슈, 인적자원 및 인구학적 문제 등 국가안보 관련 이슈들을 복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인해 군사 안보뿐 아니라 국가안보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시야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며, 한국안보의 개념과 대상, 위협요인 등, 구체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국가차원의 안보이슈들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국방경영공학 전공은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등 국방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를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로서 군 조직, 군 관련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국방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토대로 이러한 영역에서 필요한 경영지식과 동시에 공학지식을 습득한다.

국방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방위력의 구축 및 개선, 전력의 유지, 병력 운영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 및 최적화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 요구되는데, 국방경영공학전공은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전략, 전술, 교리에서부터 부대배치 및 전개, 군사작전 등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관점뿐 아니라 국방전략 수립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무기체계 및 장비획득, 군수지원 등 국방기획구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공학적/과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국방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 부분보다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시스템적 경영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국방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있는 제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방경영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역대 학부장

〈표 220〉 역대 국가안보융합학부 학부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길병옥	국가안보융합학부	2014.03.01.~2018.01.31.
제2대	설현주	국가안보융합학부	2018.02.01.~2022.01.31.
제3대	전기석	국가안보융합학부	2022.02.01.~현재

3. 국가안보융합학부의 미래

국가의 안보와 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국가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다. 국가안보융합학부는 국립대 유일의 안보 및 군사 분야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국방조직에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안보 및 군사학 연구 및 교육 영역에서 국내 최고의 기관이 되어 국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 학부 비전: 국내 N0.1의 안보 및 군사학 연구 및 교육기관

❖ 중장기 발전 목표

I. 미래전 대비 합동성 차원 전방위 영역에서 안보 인재 양성

- 기존 국토 및 해양안보학 전공 전문성 강화 및 향후 항공우주안보관련/ 방위산업전공/ 안전과학 개설 및 발전

II. 안보 및 군사학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미국, 일본, 중국 민간 대학 안보관련 학과와 자매결연

- 교환학생 운영 및 공동학술대회 운영

Ⅲ. 안보 및 군사학 분야 연구 전문 능력 강화

- 국가안보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및 학문발전 추진(교수진 강화)
- 관련 학회지(군사학논총, 한국해양논총) 등재지 및 영문학술지
- 산하 국방연구소의 학문 중심 연구소 전환 및 기능 강화
-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국가연구센터 유치

Ⅳ. 실무 중심 교육 강화 및 준비된 리더십 역량 개발

- 육·해·공 안보현장 및 교육기관 선 체험, 리더십 교육 강화
- 체계적인 미래설계 및 훈육상담을 통해 올바른 품성 함양 지도

14년도에 정식 학부로 설립된 이후 18년에 국토안보학 1기, 해양안보학 3기 배출. 19-22년 성장 도약기이며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발전하고자 한다.

1. 토대구축기(14-18년) 학부 창립(14년) 및 1.2기 졸업생 배출
2. 성장도약기(19-22년) 국가안보교육/연구 전문성 강화(국가안보학, 국방경영공학 석박사 개설) (국방관련 연구기관 유치)
3. 글로벌확장기(23-27) 미국, 일본, 중국 민간대학 안보관련 기관과 협력, 교환학생, 공동 학술세미나
4. 안정 및 제2도약기(28년~) 1,2기 졸업생 영관장교 진출/민간안보분야 중견 전문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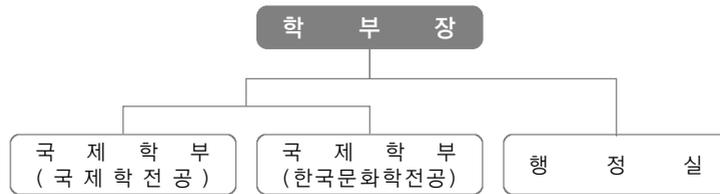
국제학부의 역사

1. 국제학부 연혁

- 2020년 11월 국제학부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2021년 08월 학칙 국제학부 신설 반영
- 2022년 03월 국제학부 신설

2. 국제학부의 현황

1) 조직도



[그림 44] 국제학부의 조직도

2) 전체 현황

〈표 221〉 국제학부 전체 현황

(단위: 명)

학 과	교 수	조 교	학 부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국 제 학 부	1	1	47	0	0	0	49
총 계	1	1	47	0	0	0	49

3) 학과별 역사

Ⅰ 국제학부(국제학전공)

가. 전공 목표: 국제 정세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나. 전공 분야: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무역, 정치·외교, 국제법 등. 국제학 관련 지식 함양과 외국어 능력을 융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졸업 후 진로

- 국제 이슈 분석평론가, 국제무역통상전문가, 국제협상전문가, 다국적기업위험관리매니저 등을 할 수 있다.
- 빈곤, 저소득층을 돕고 세계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기구에서 일하거나, 국제 평화 안보 관련 기관, NGO 등의 기관에서 협약을 할 수 있다.

- 다국적 기업의 홍보, 개발 및 협력 전문가 등을 할 수 있다.
- 국내·외 기업체, 금융기관, 국제통상 및 지역경제 분야 전문가 등을 할 수 있다.

■ 국제학부(한국문화학전공)

가. 전공 목표: 한국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나. 전공 분야: 한국 음악, 문학, 영화, 음식, 의류, 사회, 정치 등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 보급, 육성 관련 전공을 개발한다.

다. 졸업 후 진로

- 문화평론가, 한국문화분석전문가, 한류 전문가 등을 할 수 있다.
- K-컨텐츠 프로듀서, 방송인, 저널리스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을 할 수 있다.
- K-컨텐츠 연구자, 디지털 정보 및 미디어 플랫폼 종사자 등을 할 수 있다.
- 국내·외 기업 및 단체에서 활약할 수 있다.

4) 역대 학부장

〈표 222〉 역대 국제학부 학부장

연 번	성 명	소속학과	재임 기간
제1대	조혁수	경상대학 무역학과	2022.03.01.~현재

3. 국제학부의 미래

현대 사회는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이며, 국제 경쟁력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충남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무궁한 잠재력이 있는 우리 학생들을 최고의 글로벌 인재와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학부를 설립하였고, 국제학부는 정치경제학 기반의 국제학과 한류 열풍의 근원인 한국문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시킬 것이다.